

정책연구 2017-14

대전 자치구별 격차조사(Ⅱ): 원인과 대책

유병선 외

연구책임

- 유병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양승희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 정경석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한상헌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이정림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 방정희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금홍섭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김덕진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 김종남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민윤기 /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 박찬인 / 충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 이재현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정책연구 2017-14

**대전 자치구별 격차조사(Ⅱ):
원인과 대책**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는 도시임. 하지만 지속되어 온 도시 내부의 자치구간 격차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흐름 안에서 심화되고 있음
 - 즉, 이제 대전의 동-서간의 격차는 단순히 도시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간의 격차와 중첩되어 고착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실태분석과 원인과 대책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자치구간 격차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함
 - 첫째,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자치구간 격차의 장기적 추이를 분야별로 파악함
 - 둘째,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대전통계연보」, 「KOSIS e-지방지표」, 「대전의 사회지표」 등에 수록된 총 30개의 행정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함
-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함. 분석대상자는 총 11,057명임

■ 연구결과

□ 지표분석: 지역격차 현황

- 대전의 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인구이동 역시 정체 및 감소함. 하지만 유성구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인구순이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형성과 대단위 아파트 분양 등의 개발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경제부문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중구를 제외하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모든 구에서 상승하고 있음
 - 2015년 대전의 평균 GRDP를 상회하는 지역은 유성구, 서구, 대덕구이며, 반면에 중구와 동구는 낮은 상태가 지속됨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의료·사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등의 자치구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격차가 증가했으며 유성구의 EQ-5D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주민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덕구가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201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대전 자치구별 공원 면적은 중구가 가장 넓으며, 2013년부터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기반 시설수가 대전 평균 보다 많은 자치구는 대덕구, 동구, 유성구이며, 이하인 자치구는 중구, 서구임. 하지만 도서관 연간 이용자수는 2015년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많으며 평균 이용자수 보다 적은 곳은 대덕구와 동구임
 - 주민 천명당 사설학원 수는 2015년 평균 1.4개로, 서구 1.76개, 유성구 1.49개, 중구 1.36개, 대덕구 1.33개, 동구 0.99개순임

- 행·재정 부문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성구만이 33.2%로 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는 2005년 대비 2015년 악화되고 있으며, 중구와 대덕구가 큰 폭으로 하락함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은 모든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2005년 대비 2015년 평균 1.8배 상승함

□ 2015년 대전시 사회조사 결과분석: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교육환경 만족도는 동구와 유성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와 중구가 낮은 점수를 보임. 이러한 이유는 자치구별 교육산업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음(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 주거환경 만족도는 유성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대덕구와 중구임. 이러한 이유는 공단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여부와 건물,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의 낙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자기일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는 유성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 중구, 서구, 동구 순임. 즉 고연령층, 저학력자, 무직의 비중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남
-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 2.03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음. 그 중에서 중구(2.3점)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1.96점)와 대덕구(1.73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함.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대전 거주기간, 교육수준,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황, 교육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걱정근심의 정도, 일반화된 신뢰도, 거주 자치구,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임
-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하고 있는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 였으며, 이는 거주 자치구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수준으로 나타남

■ 결론

-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 자치구의 성장동력과 거주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인구수, 지역내총생산액(GRDP),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EQ-5D, 스트레스 인지율 등에서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즉,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우선 이를 위해서는 GRDP와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중구와 동구의 경제력을 육성하는 경제·산업 정책이 요구됨. 대전의 경제 정책은 주로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모텔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 함
 - 따라서 중구와 동구의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마련이 필요함. 여기에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뿐만이 아닌 생태도시, 문화도시 등과 같은 보다 명확한 모델 설정이 요구됨
- 다음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대덕구의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대덕구, 중구, 동구의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재생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설계가 필요함
-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한다면, 대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였음. 즉,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이 요구됨. 이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타인의 노동에 대한 고마움 인지 등 경제구조 개선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차 례

| | |
|---------------------------------------|-----------|
| 1장 서론 | 3 |
| 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
| 1. 연구배경 | 3 |
| 2. 연구목적 | 5 |
| 2절. 선행연구 검토 | 6 |
| 1. 지역격차 연구 | 6 |
| 2.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연구 | 8 |
| 3절. 연구방법과 자료 | 10 |
| | |
| 2장 대전광역시 자치구간 격차 실태 분석 | 13 |
| 1절. 자치구간 부문별 격차 현황 | 13 |
| 1. 인구 부문 | 13 |
| 2. 경제 부문 | 27 |
| 3. 보건/복지 부문 | 33 |
| 4. 주거/환경 부문 | 43 |
| 5. 교육/문화 부문 | 51 |
| 6. 행·재정 부문 | 62 |
| 2절. 연평균 부문별 격차 증감 현황 및 시사점 | 68 |
| | |
| 3장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분석 | 79 |
| 1절. 변수의 구성과 측정 | 79 |
| 2절. 일반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81 |
|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81 |
| 2. 경제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87 |
| 3절. 거주 자치구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 93 |
| 4절.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103 |

| | |
|--------------------|------------|
| 1. 회귀모델 1 | 103 |
| 2. 회귀모델 2 | 104 |
| 3. 회귀모델 3 | 105 |
| | |
| 4장 결론 | 109 |
| 1절. 요약 | 109 |
| 2절. 정책과제 | 114 |
| | |
| 참고문헌 | 118 |

표 차례

| | |
|--|----|
| [표 2-1] 인구성장률 | 13 |
| [표 2-2] 주민등록인구수 | 14 |
| [표 2-3] 주민등록세대수 | 16 |
| [표 2-4]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 18 |
| [표 2-5] 노령화지수 | 20 |
| [표 2-6] 인구순이동 | 22 |
| [표 2-7] 인구이동: 전입 | 23 |
| [표 2-8] 인구이동: 전출 | 24 |
| [표 2-9] 인구 순이동률 | 26 |
| [표 2-10]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27 |
| [표 2-11] GRDP | 29 |
| [표 2-12]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 31 |
| [표 2-13] EQ-5D 지표 | 33 |
| [표 2-14]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 35 |
| [표 2-15]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37 |
| [표 2-16]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 39 |
| [표 2-17] 스트레스 인지율 | 41 |
| [표 2-18] 지가변동률 | 43 |
| [표 2-19]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 45 |
| [표 2-20] 공원면적 | 47 |
| [표 2-21] 1인당 공원면적 | 49 |
| [표 2-22] 취학률 | 51 |
| [표 2-23] 학업중단률 | 53 |
| [표 2-24] 천명당 사설학원수 | 55 |
| [표 2-25] 문화기반시설수(인구 십만명당) | 57 |
| [표 2-26]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 58 |
| [표 2-27] 유아(0~4세) 보육시설수(천명당) | 60 |
| [표 2-28] 재정자립도 | 62 |

| | |
|--|-----|
| [표 2-29] 재정자주도 | 64 |
| [표 2-30]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 66 |
| [표 2-31] 부문별 격차 연평균 증감 추이 | 68 |
| [표 3-1] 변수의 구성과 측정 | 80 |
| [표 3-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86 |
| [표 3-3]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92 |
| [표 3-4] 자치구별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의 변화 | 94 |
| [표 3-5] 대덕구와 유성구의 걱정근심 정도의 차이분석 | 100 |
| [표 3-6] 응답자의 거주 자치구와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 102 |
| [표 3-7]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 106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인구성장률 변동 추이 | 13 |
| [그림 2-2] 주민등록인구수 변동 추이 | 15 |
| [그림 2-3] 주민등록인구수 변이계수(2005~2015) | 15 |
| [그림 2-4] 주민등록세대수 변동 추이 | 17 |
| [그림 2-5] 주민등록세대수 변이계수 | 17 |
| [그림 2-6]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변동 추이 | 18 |
| [그림 2-7] 인구천명당 외국인수 변이계수 | 19 |
| [그림 2-8] 노령화지수 변동 추이 | 20 |
| [그림 2-9] 노령화지수 변이계수 | 21 |
| [그림 2-10] 인구 순이동 변동 추이 | 22 |
| [그림 2-11] 인구가동: 전입 변동 추이 | 23 |
| [그림 2-12] 인구가동: 전출 변동 추이 | 24 |
| [그림 2-13] 전입 및 전출 증감률(2010년~2015년) | 25 |
| [그림 2-14] 전입 및 전출 변이계수 | 25 |
| [그림 2-15] 인구 순이동률 변동 추이 | 26 |
| [그림 2-16]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변동 추이 | 27 |

| | |
|---|----|
| [그림 2-17]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변이계수 | 28 |
| [그림 2-18] GRDP 변동 추이 | 29 |
| [그림 2-19] GRDP 변이계수 | 30 |
| [그림 2-20]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변동 추이 | 31 |
| [그림 2-21]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변이계수 | 32 |
| [그림 2-22] EQ-5D 지표 변동 추이 | 33 |
| [그림 2-23] 1인당 EQ-5D 지표 변이계수 | 34 |
| [그림 2-24]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변동 추이 | 35 |
| [그림 2-25]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변이계수 | 36 |
| [그림 2-26]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변동 추이 | 37 |
| [그림 2-27]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변이계수 | 38 |
| [그림 2-28]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동 추이 | 39 |
| [그림 2-29]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이계수 | 40 |
| [그림 2-30] 스트레스 인지율 변동 추이 | 41 |
| [그림 2-31] 스트레스 인지율 변이계수 | 42 |
| [그림 2-32] 지가변동률 변동 추이 | 43 |
| [그림 2-33] 지가변동률 변이계수 | 44 |
| [그림 2-34]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변동 추이 | 45 |
| [그림 2-35]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변이계수 | 46 |
| [그림 2-36] 공원면적 변동 추이 | 47 |
| [그림 2-37] 공원면적 변이계수 | 48 |
| [그림 2-38] 대전시 구별 1인당 공원면적 변동 추이 | 49 |
| [그림 2-39] 대전시 구별 1인당 공원면적 변이계수 | 50 |
| [그림 2-40] 취학률 변동 추이 | 51 |
| [그림 2-41] 취학률 변이계수 | 52 |
| [그림 2-42] 학업중단률 변동 추이 | 53 |
| [그림 2-43] 학업중단률 변이계수 | 54 |
| [그림 2-44] 사설학원수(천명당) 변동 추이 | 55 |
| [그림 2-45] 사설학원수(천명당) 변이계수 | 56 |
| [그림 2-46]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변동 추이 | 57 |
| [그림 2-47]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변이계수 | 58 |
| [그림 2-48]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변동 추이 | 59 |

| | |
|---|-----|
| [그림 2-49] 도서관 연간 이용자수 변이계수 | 59 |
| [그림 2-50] 대전시 구별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변동 추이 | 60 |
| [그림 2-51] 대전시 구별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변이계수 | 61 |
| [그림 2-52]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 62 |
| [그림 2-53] 재정자립도 변이계수 | 63 |
| [그림 2-54]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 64 |
| [그림 2-55] 재정자주도 변이계수 | 65 |
| [그림 2-56]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변동 추이 | 66 |
| [그림 2-57]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변이계수 | 67 |
| [그림 2-58] 인구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69 |
| [그림 2-59] 경제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70 |
| [그림 2-60] 보건/복지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71 |
| [그림 2-61] 주거/환경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72 |
| [그림 2-62] 교육/문화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73 |
| [그림 2-63] 행·재정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74 |
| [그림 3-1] 연령대와 자치구별 차이분석 | 82 |
| [그림 3-2] 교육수준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83 |
| [그림 3-3] 거주기간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84 |
| [그림 3-4] 혼인상태와 자치구별 차이분석 | 85 |
| [그림 3-5] 월평균가구소득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88 |
| [그림 3-6] 노동상황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89 |
| [그림 3-7] 주거점유 형태와 자치구별 차이분석 | 90 |
| [그림 3-8]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91 |
| [그림 3-9] 자치구별 교육만족도의 차이분석 | 93 |
| [그림 3-10] 자치구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분석 | 95 |
| [그림 3-11] 자치구별 소비생활 만족도의 차이분석 | 96 |
| [그림 3-12] 자치구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분석 | 97 |
| [그림 3-13] 자치구별 일의 가치부여 정도의 차이분석 | 98 |
| [그림 3-14] 자치구별 일반화된 신뢰도의 차이분석 | 99 |
| [그림 3-15] 자치구별 걱정근심 정도의 차이분석 | 100 |
| [그림 3-16] 자치구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분석 | 101 |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과 목적

2절. 선행연구 검토

3절. 연구방법과 자료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대전의 공간지형의 변화는 자치구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즉 서부 지역(서구와 유성구)은 동부 지역(동구, 중구, 대덕구) 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와 질이 높으며 반면에 동부지역은 상주인구의 감소, 건물의 노후화, 하위 거주계층의 집중 등이 진행되면서 그 낙후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됨
- 이러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둔산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있음. 대전의 대표적인 신도시 둔산 지역은 1980년대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 국가의 지역균등화 발전정책의 흐름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며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음¹⁾
 - 특히 1997년 정부대전청사의 설립이후 본격적으로 대전검찰청, 대전법원, 대전시청, 특허법원, 대전지방경찰청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의 공간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함
 - 이처럼 둔산 지역의 개발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대전내의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다양한 서비스 산업 등이 둔산으로 집중됐고 그 결과 원도심(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등)의 도심기능은 약화됨.²⁾ 즉 원도심에서는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남

1) 1985년 택지개발과 1988년 노태우 정권의 주택200만호 건설공약 이행을 위한 대상지에는 둔산 지역 외에 경기도 성남의 분당, 경기도 고양의 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되었음. 이 정책에 의해 대전 둔산 지역은 743만 4,838km²에 총5만 700호의 각종 주택을 세워 20만 2,8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됨(대전광역시, 2015: 448).

2) 대전의 원도심은 1930년대 충남도청사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후 시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공공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대전 최고의 번화가를 형성했던 곳으로, 충남도청

- 대전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는 도시임.³⁾ 하지만 이러한 도시 내의 자치구간 격차는 2000년대에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즉, 이제 대전의 동-서간의 격차는 단순히 도시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간의 격차와 중첩되어 고착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자치구간의 격차는 도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주민 간의 삶의 질의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도시내부의 갈등을 축적하여 사회통합과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지방정부에서도 자치구간 격차해소를 도시정책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성과는 미비한 수준임. 따라서 자치구별 격차에 관한 보다 면밀한 실태분석과 원인과 대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재까지 진행된 자치구간 격차연구는 주로 경제적 격차, 도시기반 시설의 격차, 공공서비스의 격차 등 생활환경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음. 하지만 자치구간 격차 문제는 비단 물질적 격차의 문제만이 아님. 또한 궁극적으로 시의 정책은 시민이 스스로의 삶을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즉, 자치구간 격차 연구는 경제적, 생활환경적 격차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

과 대전역을 축으로 한 중앙로 양쪽으로 도심이 크게 성장하여 상업과 경공업의 중심지가 되었음(대전광역시, 2015: 409).

- 3) 지역별로 시민의 삶의 질을 분석한 김희성(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은 65.514점으로, 전국 평균 60.016점 보다 높으며 15개시도 중에서 2위를 차지함. 또한 이는 2006년 61.823점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연구목적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본 연구는 자치구간 격차연구를 두 가지 방식에서 파악하고자 함
 - 첫째, 자치구간 격차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함.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는 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행정지표들로 15년간의 시계열 자료임. 따라서 자치구간 격차의 장기적 추이를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음
 - 둘째,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임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절. 선행연구 검토

1. 지역격차 연구

-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지역격차에 의한 불평등, 복지차원에
서의 삶의 질 등의 개념과 함께 수행되고 있음
 - 김정수·김형빈(2006)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 교육, 사회복지,
문화, 교통, 산업, 경제, 생활환경 영역의 42개 지표를 비교했는
데, 1995년부터 2002년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교통, 생
활환경 영역분야의 격차를 밝혀냄
 - 이재원·이우중(2007)은 서울시의 자치구를 1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이 연구는 분석변수의 범주를 크게 주거, 경제, 재
정, 공공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주택보급률, 1인당 공원면적 등 삶의
질(quality of life) 혹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첫째, 지형, 지세, 기상, 접근성 등과 같은 물리
적 특성을 띠는 지역기반 인프라와 결합시켜 분석하려고 함. 다시 말
해 지역이 처하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 지역격차의 주요인일 수 있다
는 것(Vanhove & Klassen 1980). 이와 같이 지역기반 인프라에 주목
하는 이유는 인프라와 현대인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풍부한 인
프라의 설치 및 유지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일
것임(김현중 외 2015: 110)⁴⁾
- 둘째,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에 주목함. 공공재정 투입의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지출 및 투자의 지역적 배분은 지역격
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지역의 성장률에 가장 분명히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기에 지역적 공간의 집중은 인구와 함께 연쇄적으로 집중화
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임(Williamson 1965; Hirshman 1988)

4) 김현중·이종길·여관현(2015)의 연구결과는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지역의 경제 수준(공시지가 변수)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인구, 소득, 토지가격,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있음(Heynen et. al. 2006; 김용국 2014; 문지영·반영은 2015)
 - 헤이넨 등(2006)은 고소득 지역이 저소득지역보다 높은 녹지비율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용국(2014)은 인구밀도와 재해취약성은 도시공원의 면적과 반비례하고, 고령화와 재정자립도는 비례관계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반면에, 문지영과 반영은(2015)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인구, 추정소득분위, 토지가격과 같은 사회·경제적 격차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지역사회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역 인프라가 결정되고 확대된다고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주로 언급되는 요인은 인구, 소득, 교육, 복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오영수(2000)는 서울과 지방 5대 도시간의 격차를 비교하면서 비교 기준을 지역 총인구로 설정한바 있음.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선의 거주지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인구 격차는 지역의 모든 격차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주장함. 이는 현대인이 직장의 위치 문제나 부양가족의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거주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특히, 교육격차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⁵⁾는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특히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크게 제약하고 있어 교육격차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김양분 외, 2010). 아울러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수준(김경근, 2005)이나 도시/농촌간 지역특성(정철영 외 2011)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함

5) 특히 노령화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 격차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노령화 지수임. 노령화 지수는 해당 사회의 인구구조의 전반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와 인구부양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박삼욱·진종현·구양미, 2008: 337-357); 민연경·이명석(2013, 113-140).

- 다른 한편으로, 박준식과 김영범(2012)은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 이론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은 주로 교육, 의료, 일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들에 의하면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격차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지역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특히 일자리, 교육,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 의료 일자리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시급하게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둘째, 지역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 역시 확인됨. 지역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수도권 거주자에서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격차에 대한 대부분의 영역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2.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연구

-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보고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김홍태(2007)의 「대전광역시 지역간 격차분석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는 지역격차와 관련한 지표분석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음
- 연구결과, 거주지역의 도시기반 여건과 관련한 11개 부문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 문화환경, 공원·녹지, 문화환경, 의료서비스, 사회복지부문 등에서 동구와 대덕구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자치구간 격차에 대한 주민인식을 보면, ‘심각하다’는 의견이 6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자치구간 격차의 발생 원인으로는 주거환경의 열악, 재정불균형, 교육환경 등이 우선순위로 선택됨
- 주민들은 대전의 5개 구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동구를, 환경공해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곳으로는 대덕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격차 해소방안으로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가 ‘지역불균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53.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낙후지역 우선 예산지원(14.8%)’, ‘균형발전 조례제정 등 제도마련(14.8%)’ 순이었음
- 대전발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2014)에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3개 영역으로 조합된 복합격차지수를 통한 자치구간 격차실태 분석이 실시됨
 - 연구결과, 종합적인 복합격차 지역으로는 중앙동, 판암1동이 도출됨
 - 또한, 실제 기반여건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쇠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되는 지역으로는 대덕구의 목상동, 석봉동, 덕암동, 신탄진 등이며, 서구에서는 정림동과 복수동, 중구에서는 중춘동, 산성동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대전지역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연구(문창기, 2008), 대전지역 내부의 불평등 양상을 분석한 연구(최인이, 2012), 자치구 문화향유차이 분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 방안 연구(박노동, 2015) 등이 있음

3절. 연구방법과 자료

-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구간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먼저, 자치구간 실태 분석을 위해서 총 30개의 지표를 분석함. 이는 「KOSIS e-지방지표」, 「대전통계연보」, 「대전의 사회지표」 등에 수록된 121개의 지표 중에서 총 30개를 추출하여 선정한 것임
 - 지표의 선정기준은 자료구득의 용이성, 격차설명 가능성, 향후 분석의 용이성 그리고 대전격차연구(1)과의 차별성임
- 다음으로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분석에 사용함.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는 대전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로 2011년부터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계법 제18조 3항에 의거 승인된 일반통계
 - 조사 대상가구는 대전지역의 5,000개 표본가구
 - 조사 대상자는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의 가구원
 - 표본추출 방법은 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

2장

대전광역시 자치구간 격차 실태 분석

1절. 자치구간 부문별 격차현황

2절. 연평균 부문별 격차 증감현황
및 시사점

2장 대전광역시 자치구간 격차 실태 분석

1절. 자치구간 부문별 격차 현황

1. 인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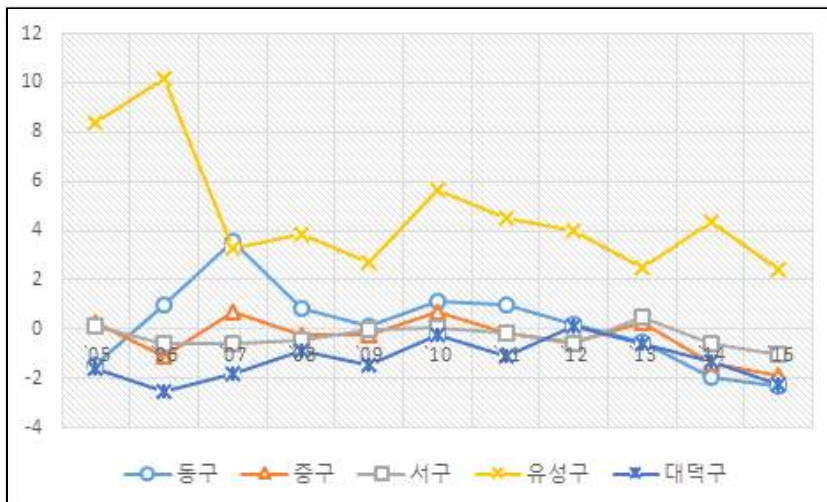
1) 인구성장률

[표 2-1] 인구성장률

(단위 :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1.43 | 0.98 | 3.59 | 0.84 | 0.15 | 1.12 | 0.97 | 0.19 | -0.49 | -1.93 | -2.32 |
| 중 구 | 0.28 | -1.07 | 0.74 | -0.23 | -0.26 | 0.74 | -0.13 | -0.53 | 0.28 | -1.38 | -1.86 |
| 서 구 | 0.15 | -0.60 | -0.56 | -0.46 | 0.02 | 0.06 | -0.13 | -0.55 | 0.47 | -0.55 | -1.05 |
| 유성구 | 8.38 | 10.19 | 3.29 | 3.89 | 2.69 | 5.66 | 4.51 | 3.99 | 2.53 | 4.37 | 2.45 |
| 대덕구 | -1.56 | -2.51 | -1.77 | -0.88 | -1.47 | -0.25 | -1.06 | 0.12 | -0.59 | -1.33 | -2.24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1] 인구성장률 변동 추이

- 국가통계 e-지방지표에서 제시된 지역 인구성장률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볼 때, 대전 평균 인구성장률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음. 유성구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성장률은 4.72% 평균을 보임. 대덕구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2012년까지는 인구성장률에서 상승곡선을 그리지만, 그 이후에는 동구, 중구, 서구와 마찬가지로 인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음
- 평균을 상회하는 구는 유성구로 2006년 인구성장률이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약세를 보이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인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안정인 변동 폭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특징임. 2015년에는 유성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다소 크게 정체되는 반면, 유성구는 꾸준히 인구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형성과 대단위 아파트 분양 등의 개발요인 등이 인구성장률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됨

2) 주민등록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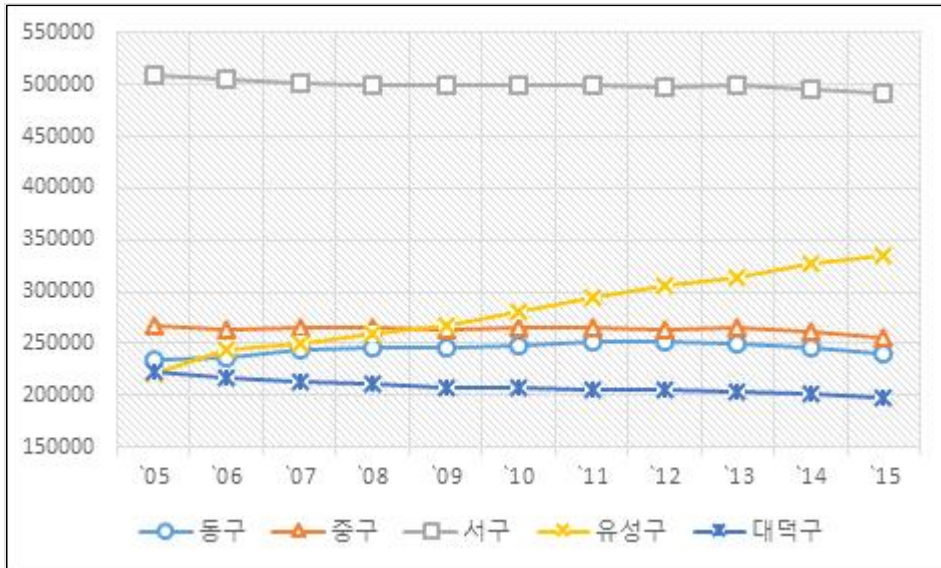
[표 2-2] 주민등록인구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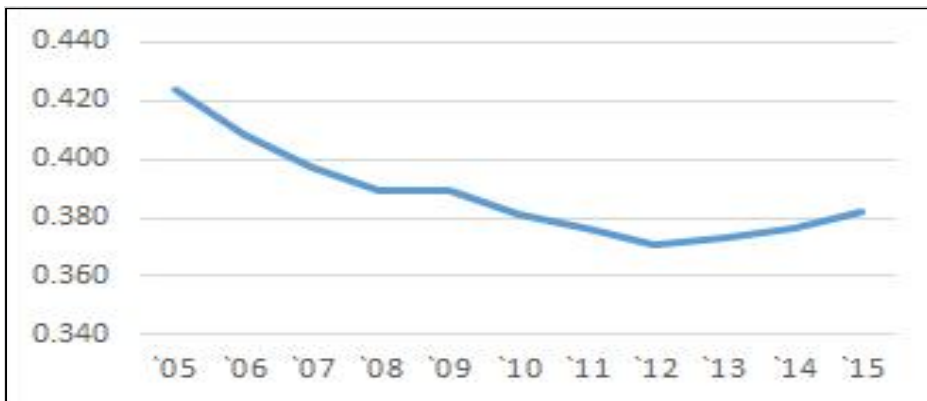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구 | 234,724 | 236,504 | 244,496 | 245,973 | 246,116 | 248,835 | 251,285 | 251,945 | 250,653 | 245,493 | 239,579 |
| 중구 | 266,635 | 263,592 | 265,430 | 264,678 | 264,035 | 265,846 | 265,502 | 264,125 | 264,913 | 261,165 | 256,186 |
| 서구 | 509,225 | 505,600 | 501,935 | 499,172 | 499,297 | 499,742 | 499,124 | 496,513 | 498,917 | 496,132 | 490,859 |
| 유성구 | 220,767 | 243,130 | 250,523 | 259,831 | 266,585 | 281,692 | 294,353 | 306,312 | 313,968 | 327,461 | 335,312 |
| 대덕구 | 223,287 | 217,332 | 213,275 | 211,241 | 208,147 | 207,549 | 205,339 | 205,688 | 204,360 | 201,558 | 196,839 |
| S.D (표준편차) | 123,390.1 | 119,862.2 | 117,158.3 | 115,385.0 | 115,563.6 | 114,630.8 | 114,190.1 | 112,946.2 | 114,412.6 | 115,314.2 | 115,991.5 |
| M(평균) | 290,927.6 | 293,231.6 | 295,131.8 | 296,179.0 | 296,836.0 | 300,732.8 | 303,120.6 | 304,916.6 | 306,562.2 | 306,361.8 | 303,755.0 |
| C.V ⁶⁾ (변이계수) | 0.424 | 0.409 | 0.397 | 0.390 | 0.389 | 0.381 | 0.377 | 0.370 | 0.373 | 0.376 | 0.382 |

출처: 통계청

6)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이탈도(逸脫度)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계수가 작을수록 평균치 가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격차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주민등록인구수 변동 추이



[그림 2-3] 주민등록인구수 변이계수(2005~2015)

-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인구성장률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대전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수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유성구 서구임. 유성구는 2005년 220,767명에서 2015년 335,312명으로 10년간 11만명 정도가 증가하였음. 전체적인 경향에서는 중구, 서구, 대덕구는 주민등록인구수가 2005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성구는 주민등록인구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인구수와 관련한 변인계수(표준편차의 평균)에서는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수의 격차가 200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자치구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음. 주민등록인구수의 경우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유성구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임
- 유성구의 주민등록인구 성장의 측면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하여 대학 등 교육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며, 또한 다른 자치구의 인구감소가 유성구로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요인간의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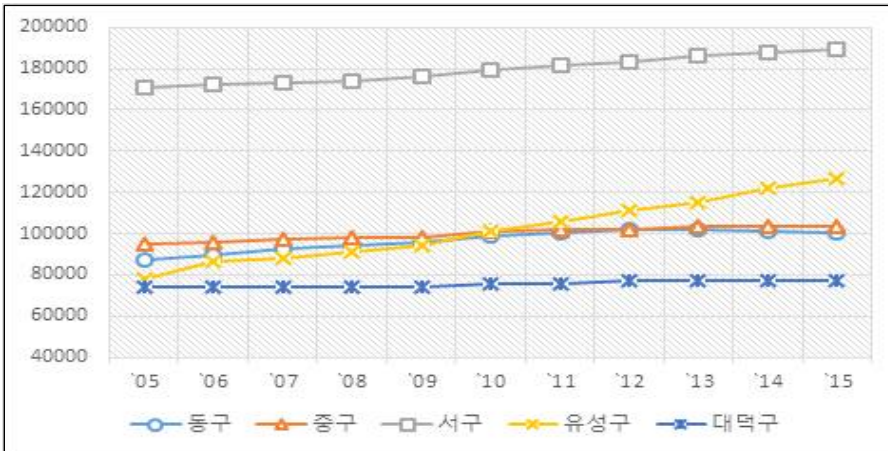
3) 주민등록 세대수

[표 2-3] 주민등록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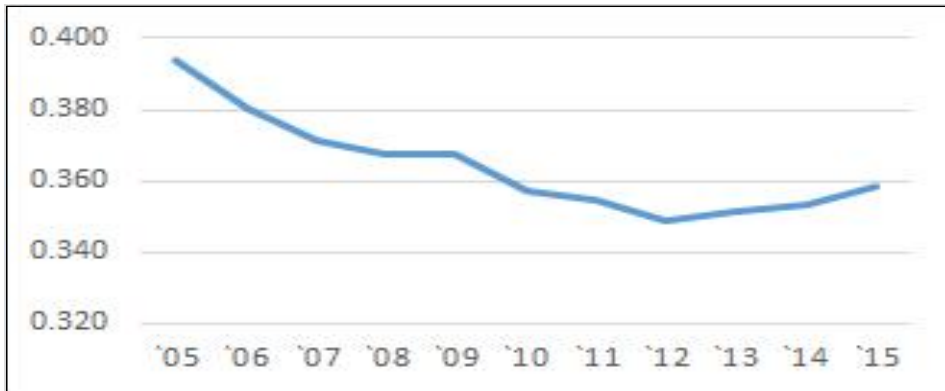
(단위 : 세대)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87,089 | 89,385 | 92,949 | 94,402 | 95,415 | 98,977 | 100,745 | 101,687 | 102,263 | 101,512 | 100,635 |
| 중 구 | 95,008 | 95,790 | 97,389 | 97,719 | 98,373 | 100,983 | 101,819 | 102,201 | 103,705 | 103,669 | 103,285 |
| 서 구 | 170,967 | 172,661 | 173,262 | 174,265 | 176,293 | 179,550 | 181,948 | 183,229 | 186,185 | 187,921 | 189,068 |
| 유성구 | 78,220 | 86,092 | 88,324 | 91,153 | 93,906 | 100,821 | 106,053 | 111,553 | 115,304 | 121,857 | 126,969 |
| 대덕구 | 74,366 | 74,111 | 73,956 | 74,143 | 74,113 | 75,437 | 75,759 | 76,930 | 77,420 | 77,549 | 77,051 |
| SD | 39,852.9 | 39,397.4 | 39,065.7 | 39,044.6 | 39,564.0 | 39,724.7 | 40,199.0 | 40,178.9 | 41,079.0 | 41,881.0 | 42,767.3 |
| M | 101,130.0 | 103,607.8 | 105,176.0 | 106,336.4 | 107,620.0 | 111,153.6 | 113,264.8 | 115,120.0 | 116,975.4 | 118,501.6 | 119,401.6 |
| C.V | 0.394 | 0.380 | 0.371 | 0.367 | 0.368 | 0.357 | 0.355 | 0.349 | 0.351 | 0.353 | 0.358 |

출처: 통계청



[그림 2-4] 주민등록세대수 변동 추이



[그림 2-5] 주민등록세대수 변이계수

- 통계청의 주민등록세대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성구가 2005년에는 78,220세대에서 2015년 126,969세대로 48,749세대가 증가하는 등 주민등록인구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덕구의 경우 2005년 74,366세대에서 2015년 77,051세대로 가장 적은 증가를 보임
- 대전 5개 자치구별 주민등록세대수의 증가 경향은 완만한 증가세를 전체적으로 보이면 2012년 기점으로 유성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05년 0.394에서 2012년 0.349로 작아지는 모

습을 보이지만 유성구의 성장세로 다시 자치구별 주민등록세대수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민등록세대수의 경우 가족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유성구에 인구성장이 눈에 뜨게 높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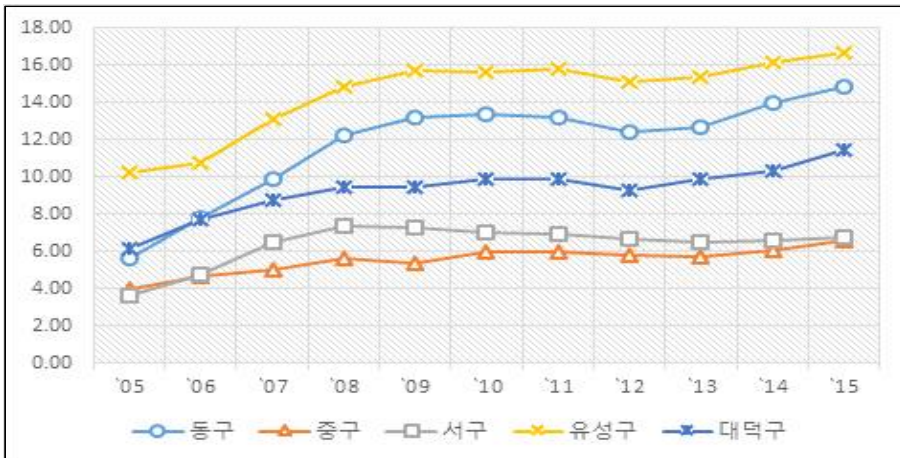
4)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표 2-4]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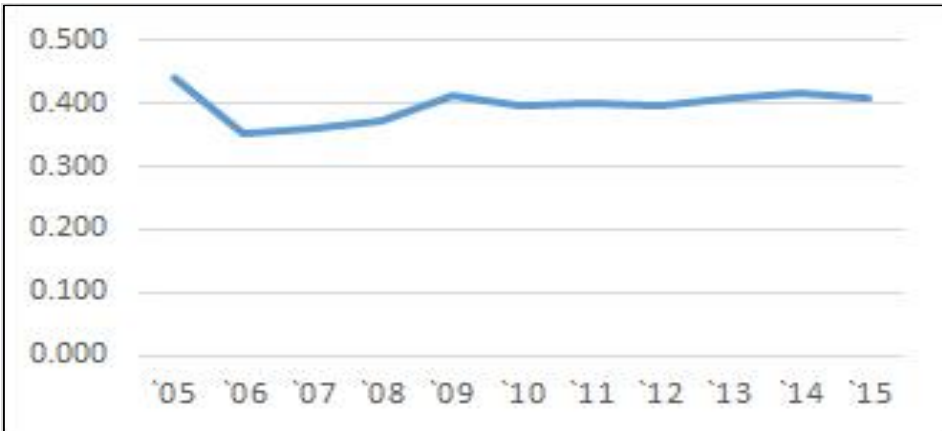
(단위 : 수)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구 | 5.67 | 7.85 | 9.88 | 12.24 | 13.21 | 13.36 | 13.19 | 12.46 | 12.65 | 13.98 | 14.90 |
| 중구 | 3.99 | 4.68 | 5.06 | 5.63 | 5.42 | 5.95 | 5.97 | 5.85 | 5.70 | 6.09 | 6.61 |
| 서구 | 3.68 | 4.78 | 6.48 | 7.40 | 7.31 | 7.01 | 6.93 | 6.70 | 6.51 | 6.56 | 6.74 |
| 유성구 | 10.22 | 10.75 | 13.15 | 14.83 | 15.69 | 15.67 | 15.83 | 15.15 | 15.41 | 16.15 | 16.67 |
| 대덕구 | 6.14 | 7.74 | 8.78 | 9.50 | 9.45 | 9.87 | 9.88 | 9.33 | 9.94 | 10.38 | 11.46 |
| SD | 2.6 | 2.5 | 3.1 | 3.7 | 4.2 | 4.1 | 4.2 | 3.9 | 4.1 | 4.4 | 4.6 |
| M | 5.9 | 7.2 | 8.7 | 9.9 | 10.2 | 10.4 | 10.4 | 9.9 | 10.0 | 10.6 | 11.3 |
| CV | 0.440 | 0.353 | 0.362 | 0.372 | 0.412 | 0.398 | 0.401 | 0.395 | 0.407 | 0.418 | 0.408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6]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변동 추이



[그림 2-7] 인구천명당 외국인수 변이계수

- 국가통계 e-지방지표에 따르면,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는 2006년을 제외하고 유성구, 동구, 대덕구, 서구, 중구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산술적 수치로 유성구는 10.22명에서 16.67명으로 6.45명이 증가하였고, 중구의 경우 3.99명에서 6.61명으로 2.62명 정도의 증가를 보임. 서구의 경우 2005년 3.68명에서 2008년 7.4명으로 증가되었으나 이후 2014년까지 6.56명으로 인구천명당 외국인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자치구별 외국인 수의 2015년 평균은 11.3명으로 이하인 지역은 중구와 서구로 나타남
- 변동 추이 그래프에서 경향을 살펴보면 5개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상승 경향을 그리고 있음. 다만, 서구의 경우는 하향 추세를 고려하면 외국인수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성구는 대전에서 외국인 거주자 수가 높은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해석됨
- 변이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 상황에 대한 부분은 내성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중구와 대덕구에서 높은 외국인 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유성구와 대비하여 국적과 유인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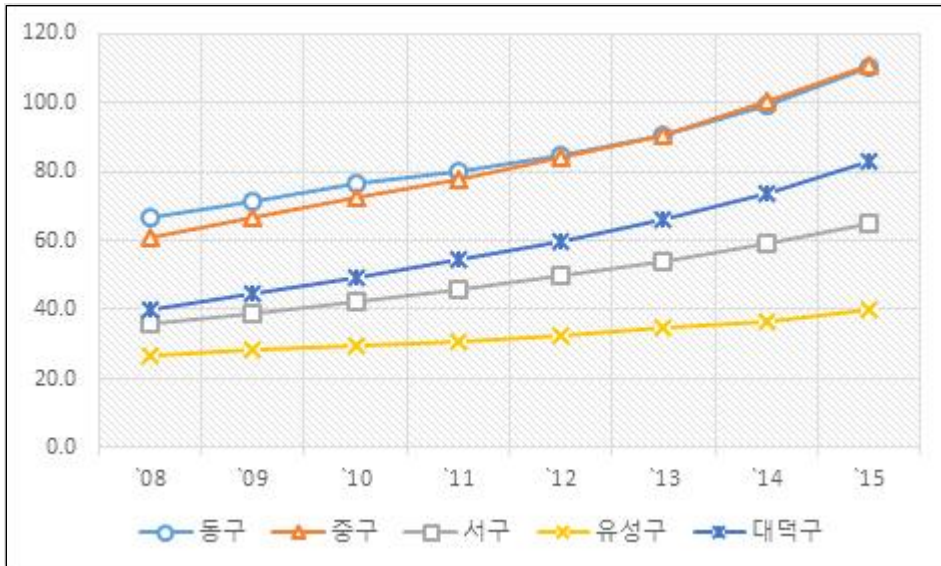
5) 노령화지수

[표 2-5] 노령화지수

(단위 : 점)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66.4 | 71.0 | 76.5 | 79.8 | 84.9 | 90.7 | 99.4 | 110.1 |
| 중 구 | 61.2 | 66.8 | 72.6 | 77.5 | 83.9 | 90.5 | 100.4 | 110.6 |
| 서 구 | 36.0 | 39.1 | 42.3 | 45.6 | 49.9 | 54.0 | 59.0 | 65.2 |
| 유성구 | 26.7 | 28.2 | 29.7 | 30.9 | 32.7 | 34.8 | 36.7 | 39.9 |
| 대덕구 | 39.9 | 44.4 | 49.1 | 54.4 | 59.8 | 66.3 | 73.5 | 83.0 |
| S.D. | 17.0 | 18.4 | 20.0 | 21.0 | 22.4 | 24.1 | 27.2 | 30.3 |
| M | 46.0 | 49.9 | 54.0 | 57.6 | 62.2 | 67.3 | 73.8 | 81.7 |
| C.V | 0.369 | 0.368 | 0.371 | 0.363 | 0.360 | 0.358 | 0.368 | 0.370 |

출처: 통계청



[그림 2-8] 노령화지수 변동 추이



[그림 2-9] 노령화지수 변이계수

-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전체적인 노령화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구, 중구, 대덕구가 2015년도 대전의 노령화지수 평균인 81.7을 상회하고 있음. 특히 동구와 중구는 굉장히 높은 순을 차지하고 있음. 아울러 서구가 노령화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반면, 유성구도 늦지만 다소 동일한 경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노령화지수와 관련하여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치구별 전체적으로 노령화지수가 동일한 경향을 가지며 격차가 작아지는 평균 경향을 보이지만, 2013년부터는 자치구간의 상승률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에 대한 지역격차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노령화지수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 및 산업 등 복합적인 요인을 상층적으로 작용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해석이 필요함. 아울러 단순 노령화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모든 자치구에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구의 정책을 넘어선 대전시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6) 인구이동

[표 2-6] 인구순이동

(단위 : 명)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4,879 | 688 | 6,443 | -87 | -1,103 | -1,404 | 1,498 | -357 | -2,138 | -5,984 | -6,599 |
| 중 구 | -495 | -4,403 | 598 | -2,218 | -1,866 | -2,098 | -1,359 | -2,339 | 3 | -4,497 | -5,587 |
| 서 구 | -2,167 | -6,819 | -7,051 | -6,512 | -3,121 | -5,761 | -3,625 | -5,520 | -412 | -5,495 | -7,994 |
| 유성구 | 15,647 | 20,301 | 4,705 | 6,722 | 4,567 | 11,749 | 9,968 | 9,221 | 5,064 | 10,751 | 4,937 |
| 대덕구 | -4,896 | -7,452 | -5,743 | -3,515 | -4,235 | -3,531 | -3,138 | -506 | -2,206 | -3,613 | -5,373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10] 인구 순이동 변동 추이

- 인구순이동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의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뚜렷한 것은 유성구만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자치구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

7) 인구이동: 전입

[표 2-7] 인구이동: 전입

(단위 : 명)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39,385 | 49,264 | 55,649 | 44,438 | 40,687 | 41,320 | 45,410 | 38,226 | 37,113 | 33,388 | 31,522 |
| 중 구 | 51,790 | 46,999 | 51,788 | 44,962 | 42,838 | 42,498 | 42,547 | 36,979 | 38,936 | 35,230 | 32,735 |
| 서 구 | 103,975 | 97,878 | 89,698 | 87,289 | 87,805 | 88,473 | 85,832 | 74,987 | 76,498 | 79,063 | 72,726 |
| 유성구 | 57,733 | 66,493 | 53,304 | 55,360 | 51,571 | 61,767 | 61,579 | 60,575 | 52,129 | 67,026 | 60,944 |
| 대덕구 | 34,952 | 34,180 | 32,641 | 31,483 | 29,523 | 28,374 | 28,876 | 28,868 | 26,182 | 24,852 | 22,847 |
| S.D. | 27,518.8 | 24,609.4 | 20,642.4 | 21,105.5 | 22,292.6 | 23,382.8 | 21,796.0 | 19,166.6 | 19,294.9 | 23,660.5 | 21,460.5 |
| M | 57,567.0 | 58,962.8 | 56,616.0 | 52,706.4 | 50,484.8 | 52,486.4 | 52,848.8 | 47,927.0 | 46,171.6 | 47,911.8 | 44,154.8 |
| C.V | 0.478 | 0.417 | 0.365 | 0.400 | 0.442 | 0.446 | 0.412 | 0.400 | 0.418 | 0.494 | 0.486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11] 인구이동: 전입 변동 추이

- 전입 변동 추이를 살펴봐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전입의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성구가 다소 변동의 폭을 가지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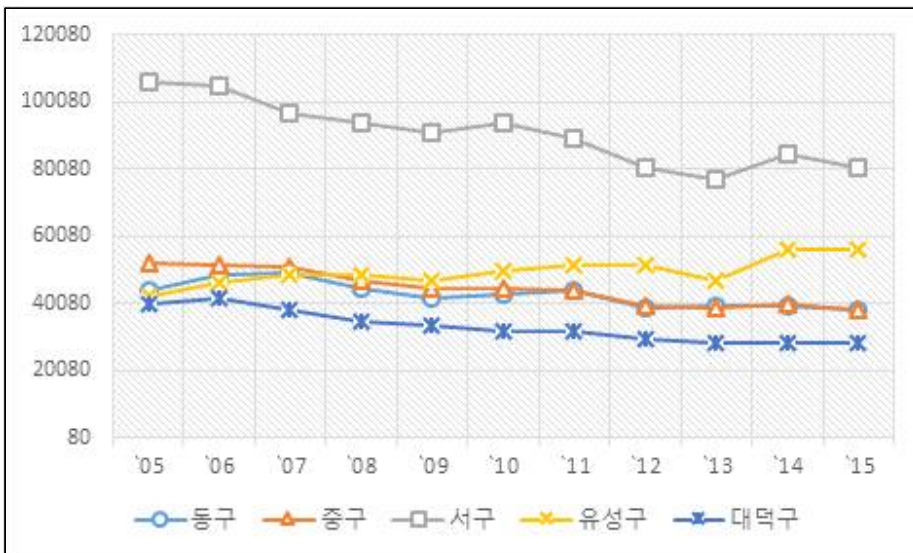
8) 인구가동: 전출

[표 2-8] 인구가동: 전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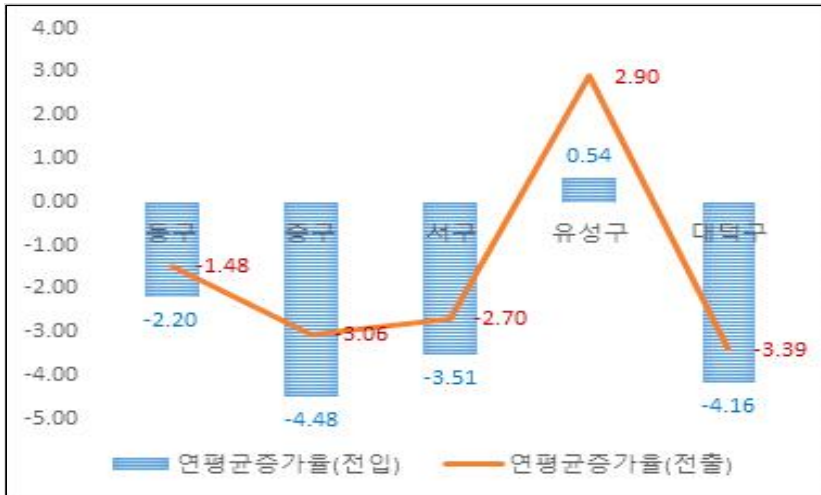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44,264 | 48,576 | 49,206 | 44,525 | 41,790 | 42,724 | 43,912 | 38,583 | 39,251 | 39,372 | 38,121 |
| 중 구 | 52,285 | 51,402 | 51,190 | 47,180 | 44,704 | 44,596 | 43,906 | 39,318 | 38,933 | 39,727 | 38,322 |
| 서 구 | 106,142 | 104,697 | 96,749 | 93,801 | 90,926 | 94,234 | 89,457 | 80,507 | 76,910 | 84,558 | 80,720 |
| 유성구 | 42,086 | 46,192 | 48,599 | 48,638 | 47,004 | 50,018 | 51,611 | 51,354 | 47,065 | 56,275 | 56,007 |
| 대덕구 | 39,848 | 41,632 | 38,384 | 34,998 | 33,758 | 31,905 | 32,014 | 29,374 | 28,388 | 28,465 | 28,220 |
| S.D. | 27,910.4 | 26,072.2 | 22,866.3 | 22,967.8 | 22,526.5 | 24,134.5 | 21,985.1 | 19,867.0 | 18,453.8 | 21,882.4 | 20,717.3 |
| M | 56,925.0 | 58,499.8 | 56,825.6 | 53,828.4 | 51,636.4 | 52,695.4 | 52,180.0 | 47,827.2 | 46,109.4 | 49,679.4 | 48,278.0 |
| C.V | 0.490 | 0.446 | 0.402 | 0.427 | 0.436 | 0.458 | 0.421 | 0.415 | 0.400 | 0.440 | 0.429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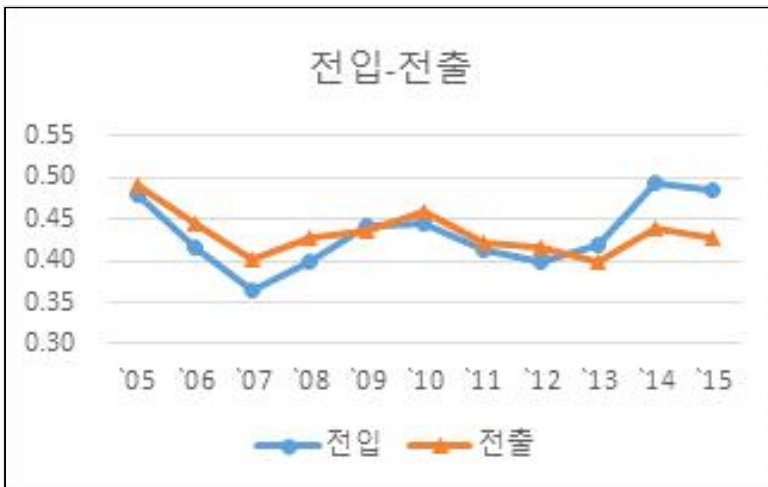


[그림 2-12] 인구가동: 전출 변동 추이

- 인구가동의 전출에서는 유성구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유성구는 2005년 42,086명에서 2015년 56,007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변동 추이의 경향에서는 2013년까지 전출 동향이 축소되다가 2014년부터 다소 지역간 이동의 증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그림 2-13] 전입 및 전출 증감률(2010년~2015년)



[그림 2-14] 전입 및 전출 변이계수

- 전입 및 전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자치구간 전입 및 전출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전입과 전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유성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유성 또한 전입보다 전출의 경향이 높게 보임. 중구의 경우 전입과 전출이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보임. 전출과 전입에 대한 변이계수 차원에서도 두 요인이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 인구 순이동률

[표 2-9] 인구 순이동률

(단위 :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2.08 | 0.29 | 2.64 | -0.04 | -0.45 | -0.56 | 0.60 | -0.14 | -0.85 | -2.44 | -2.75 |
| 중 구 | -0.19 | -1.67 | 0.23 | -0.84 | -0.71 | -0.79 | -0.51 | -0.89 | 0.00 | -1.72 | -2.18 |
| 서 구 | -0.43 | -1.35 | -1.40 | -1.30 | -0.63 | -1.15 | -0.73 | -1.11 | -0.08 | -1.11 | -1.63 |
| 유성구 | 7.09 | 8.35 | 1.88 | 2.59 | 1.71 | 4.17 | 3.39 | 3.01 | 1.61 | 3.28 | 1.47 |
| 대덕구 | -2.19 | -3.43 | -2.69 | -1.66 | -2.03 | -1.70 | -1.53 | -0.25 | -1.08 | -1.79 | -2.73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15] 인구 순이동률 변동 추이

- 인구 순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총 인구수) \times 100 \}$ 은 계상함. 자치구별 인구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유성구만이 2005년 7.09%에서 2015년 1.47%로 축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동구의 경우 2005년 -2.08%에서 2015년 -2.75%로 전출인구가 많아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인구 순이동률이 높게 계상되었음

○ 인구 순이동률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의 5개 자치구가 2005년과 2006년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만 이후 유성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자치구가 유사한 값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음. 다만 중구의 경우 2012년 -0.89%에서 2013년 0%를 기록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음

2. 경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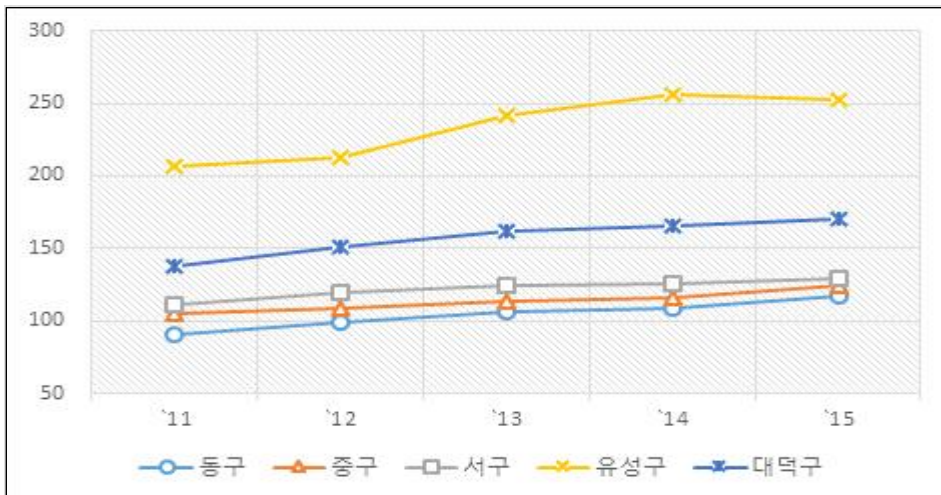
1) 지방세 부담액

[표 2-10] 1인당 지방세 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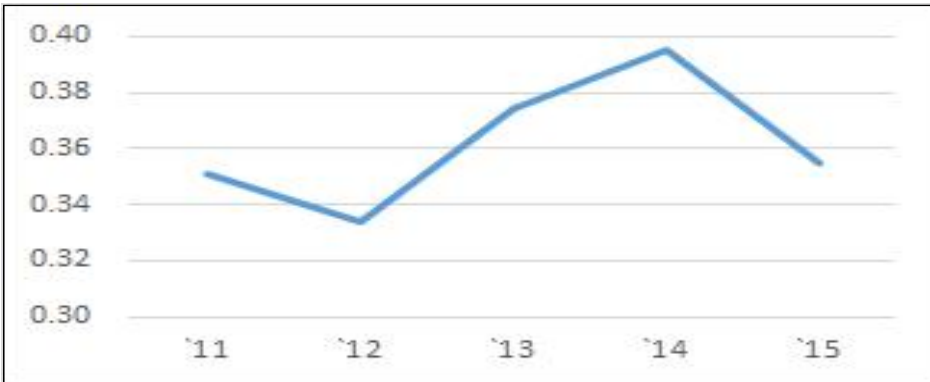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91 | 99 | 106 | 109 | 117 |
| 중 구 | 105 | 109 | 114 | 116 | 124 |
| 서 구 | 111 | 119 | 124 | 125 | 129 |
| 유성구 | 206 | 213 | 242 | 256 | 252 |
| 대덕구 | 138 | 151 | 162 | 165 | 170 |
| S.D. | 45.7 | 46.1 | 55.9 | 60.9 | 56.3 |
| M | 130.2 | 138.2 | 149.6 | 154.2 | 158.4 |
| C.V | 0.351 | 0.334 | 0.374 | 0.395 | 0.355 |

출처: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



[그림 2-16]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변동 추이



[그림 2-17]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변이계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재정 365)에서 대전 자치구별 지방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모든 자치구에서 점차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자치구별 2015년 평균은 158,400원으로 이를 상회하는 자치구는 유성구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성구는 2011년 206,000원에서 252,000원으로 46,000원이 증가하였음.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인 자치구는 서구로 2011년 111,000원에서 129,000원으로 18,000원의 증가를 보임. 그러나 2015년을 단수 계상 비교하면 명목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동구의 경우 2011년 91,000원에서 2015년 117,000원으로 26,000원의 증가를 보이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낮은 자치구임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치구간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이후 점차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음. 유성구가 2015을 현재로 2012년부터의 증가율이 지속되지 않았지만 다른 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변이계수에서의 격차가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유성구의 지방세 부담액이 다른 자치구의 지방세 부담액 상승률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나, 유성구의 명목적 부담액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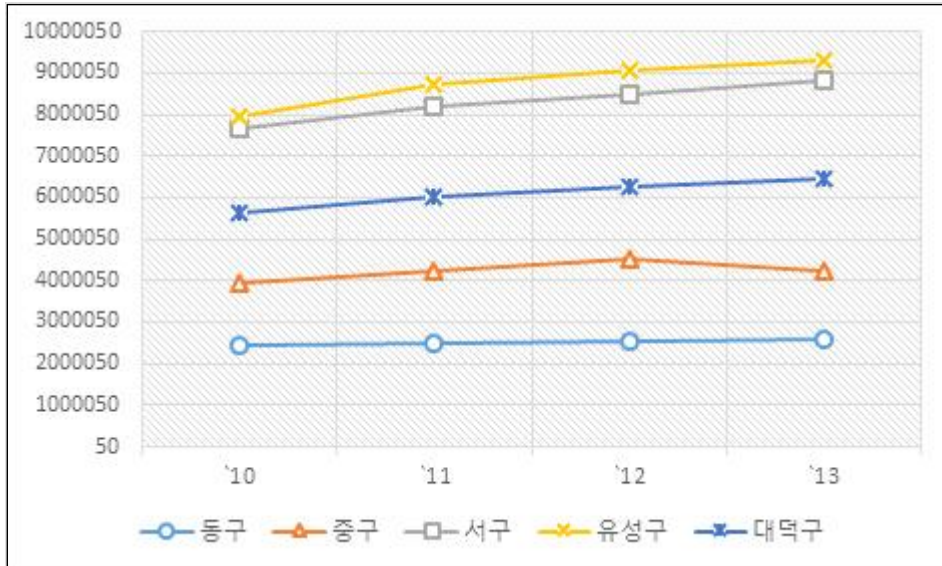
2) GRDP

[표 2-11]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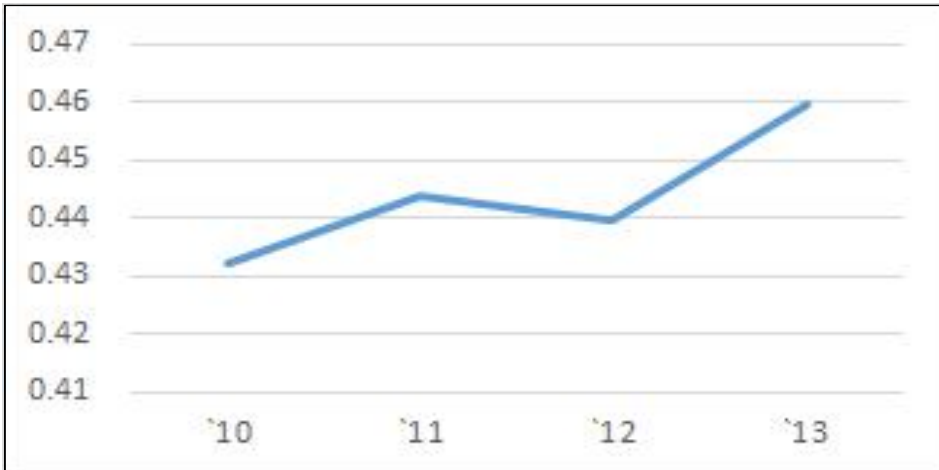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 동구 | 2,423,545 | 2,486,611 | 2,555,567 | 2,602,481 |
| 중구 | 3,917,991 | 4,234,538 | 4,511,004 | 4,246,324 |
| 서구 | 7,670,625 | 8,182,895 | 8,493,418 | 8,843,444 |
| 유성구 | 7,970,821 | 8,748,567 | 9,047,772 | 9,313,385 |
| 대덕구 | 5,648,696 | 6,031,248 | 6,276,707 | 6,450,088 |
| S.D. | 2,387,600.3 | 2,634,454.3 | 2,716,035.0 | 2,892,272.6 |
| M | 5,526,335.6 | 5,936,771.8 | 6,176,893.6 | 6,291,144.4 |
| C.V | 0.432 | 0.444 | 0.440 | 0.460 |

출처: 통계청



[그림 2-18] GRDP 변동 추이



[그림 2-19] GRDP 변이계수

-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중구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구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GRDP의 2015년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유성구, 서구, 대덕구이며, 반면에 중구와 동구는 낮은 순위를 계속 차지함
- GRDP의 변동 추이 경향에서 중구의 2012년과 2013년의 상황을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서는 연도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변이계수에서는 그 격차가 중구와 대비하여 다른 구간의 격차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중구의 낮은 지표가 지역간 격차를 평균적으로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음
- 대전의 평균 GRDP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동구와 중구이며, 중구는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총생산의 개선이 필요함. 이는 다른 자치구와 경향을 정합시켜야만 대전의 전체적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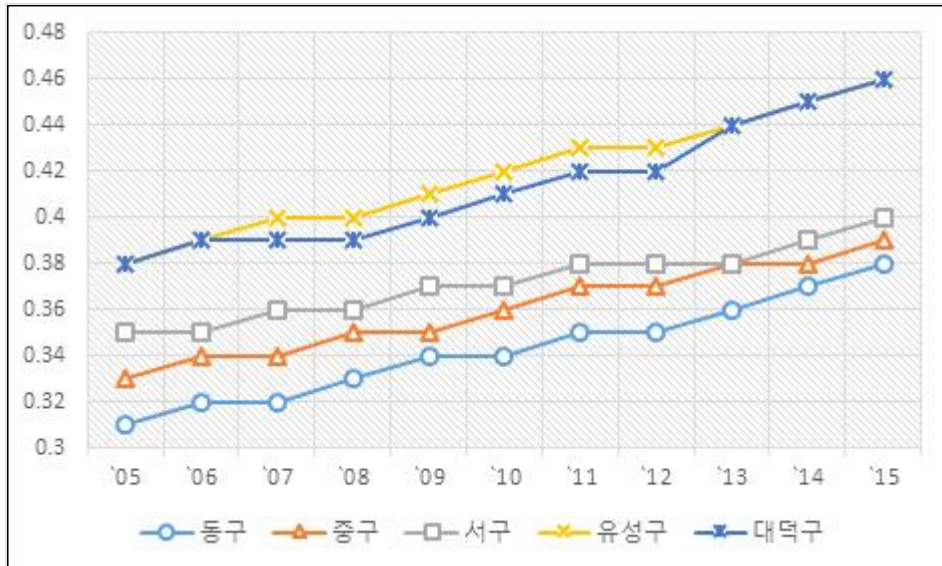
3)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표 2-12]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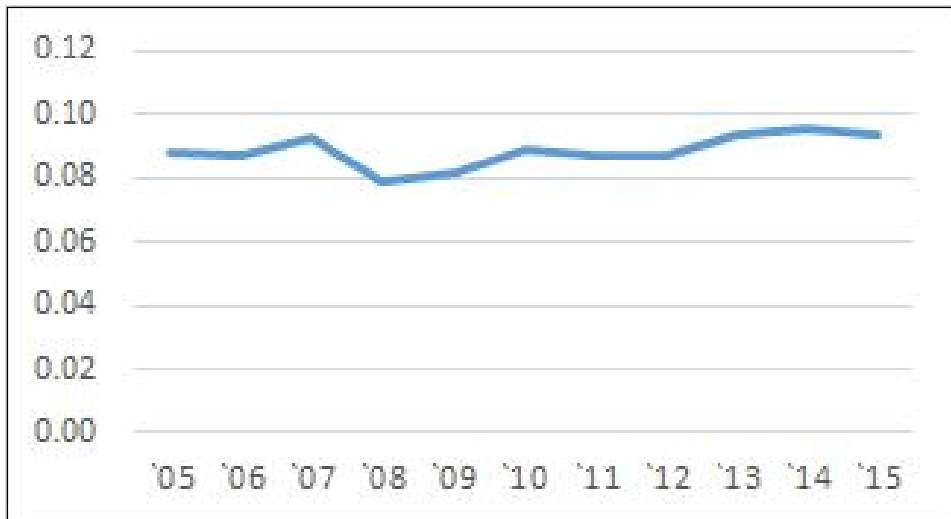
(단위 : 대)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0.31 | 0.32 | 0.32 | 0.33 | 0.34 | 0.34 | 0.35 | 0.35 | 0.36 | 0.37 | 0.38 |
| 중 구 | 0.33 | 0.34 | 0.34 | 0.35 | 0.35 | 0.36 | 0.37 | 0.37 | 0.38 | 0.38 | 0.39 |
| 서 구 | 0.35 | 0.35 | 0.36 | 0.36 | 0.37 | 0.37 | 0.38 | 0.38 | 0.38 | 0.39 | 0.4 |
| 유성구 | 0.38 | 0.39 | 0.4 | 0.4 | 0.41 | 0.42 | 0.43 | 0.43 | 0.44 | 0.45 | 0.46 |
| 대덕구 | 0.38 | 0.39 | 0.39 | 0.39 | 0.4 | 0.41 | 0.42 | 0.42 | 0.44 | 0.45 | 0.46 |
| S.D.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M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 C.V | 0.088 | 0.087 | 0.092 | 0.079 | 0.082 | 0.089 | 0.087 | 0.087 | 0.094 | 0.096 | 0.093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20]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변동 추이



[그림 2-21]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변이계수

- 자치구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 평균 0.4대를 보유하고 있음. 유성구와 대덕구가 2005년 0.38대에서 2015년 0.46대로 0.08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자치구도 완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자치구별 변동 추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며, 변이계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이가 있지만 구별 큰 격차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의 확인 및 지역격차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자동차의 유형 등 상세한 계상을 하여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만 개인 경제규모를 경향적이나마 해석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통해 가계 소비규모를 짐작하여 소득의 편중 상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3. 보건/복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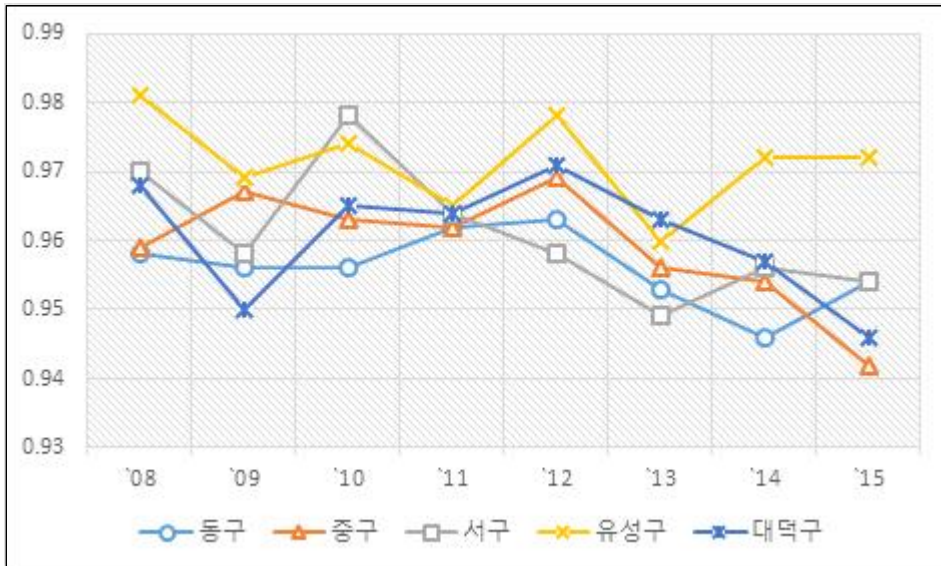
1) EQ-5D 지표

[표 2-13] EQ-5D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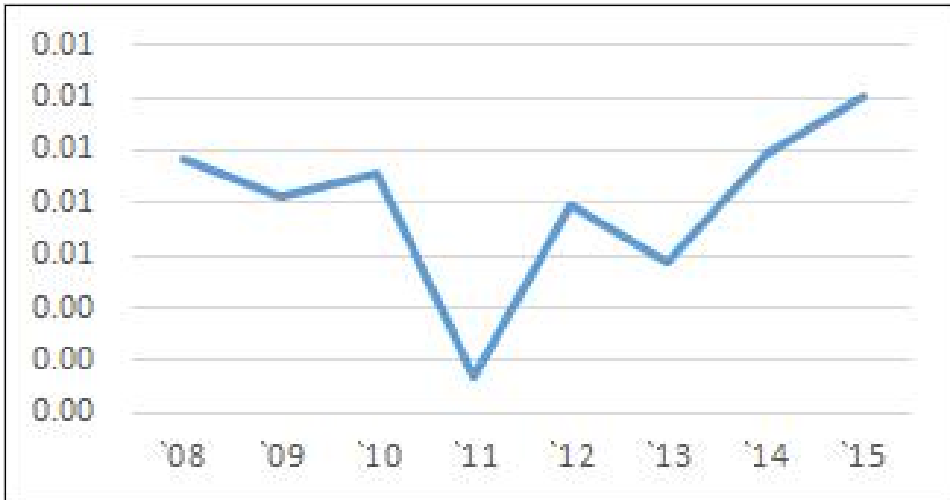
(단위 : 점)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구 | 0.958 | 0.956 | 0.956 | 0.962 | 0.963 | 0.953 | 0.946 | 0.954 |
| 중구 | 0.959 | 0.967 | 0.963 | 0.962 | 0.969 | 0.956 | 0.954 | 0.942 |
| 서구 | 0.970 | 0.958 | 0.978 | 0.964 | 0.958 | 0.949 | 0.956 | 0.954 |
| 유성구 | 0.981 | 0.969 | 0.974 | 0.965 | 0.978 | 0.960 | 0.972 | 0.972 |
| 대덕구 | 0.968 | 0.95 | 0.965 | 0.964 | 0.971 | 0.963 | 0.957 | 0.946 |
| S.D. | 0.0094 | 0.0079 | 0.0088 | 0.0013 | 0.0077 | 0.0055 | 0.0094 | 0.0115 |
| M | 0.97 | 0.96 | 0.97 | 0.96 | 0.97 | 0.96 | 0.96 | 0.95 |
| C.V | 0.010 | 0.008 | 0.009 | 0.001 | 0.008 | 0.006 | 0.010 | 0.012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22] EQ-5D 지표 변동 추이



[그림 2-23] 1인당 EQ-5D 지표 변이계수

- EQ-5D 지표⁷⁾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점차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2015년 EQ-5D 지표를 보면, 유성구 0.9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동구와 서구가 0.954점, 대덕구 0.946점, 중구 0.942점 순으로 나타났음. 유성구와 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와의 지표값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 이는 특정 자치구를 중심으로 격차가 커진 것을 의미함
- EQ-5D의 경우 표준편차와 평균, 변이계수가 큰 폭의 변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변이계수 그래프가 큰 기울기를 가지는 것으로 표시됨. 대전시 자치구 주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련한 정책은 변동 추이에서의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일관된 대응이 중요해질 사안으로 보임

7) EQ-5D 지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표 2-14]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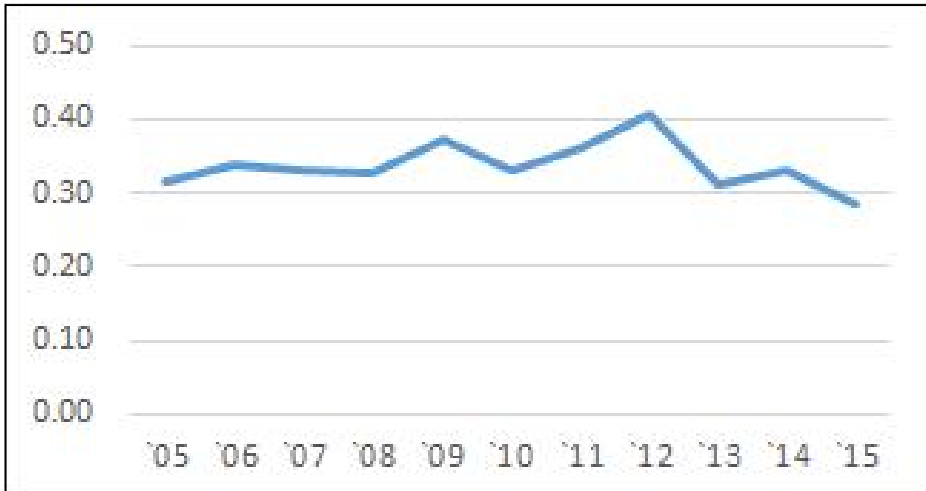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6.71 | 7.69 | 8.46 | 8.56 | 8.74 | 9.94 | 9.53 | 10.55 | 11.05 | 11.91 | 12.76 |
| 중 구 | 14.57 | 16.54 | 17.97 | 18.6 | 20.83 | 21.04 | 22.27 | 23.21 | 22.29 | 23.63 | 22.89 |
| 서 구 | 8.97 | 9.5 | 10.25 | 10.76 | 11.75 | 12.59 | 13.67 | 14.08 | 14.46 | 13.48 | 15.66 |
| 유성구 | 7.84 | 8.4 | 9.72 | 10.36 | 10.37 | 11.52 | 11.67 | 9.86 | 11.6 | 11.41 | 11.42 |
| 대덕구 | 9.71 | 10.1 | 10.59 | 11.01 | 11.53 | 11.51 | 11.61 | 10.82 | 13.51 | 14.85 | 15.13 |
| S.D. | 3.0 | 3.5 | 3.8 | 3.9 | 4.7 | 4.4 | 5.0 | 5.6 | 4.5 | 5.0 | 4.4 |
| M | 9.6 | 10.4 | 11.4 | 11.9 | 12.6 | 13.3 | 13.8 | 13.7 | 14.6 | 15.1 | 15.6 |
| C.V | 0.316 | 0.338 | 0.330 | 0.328 | 0.374 | 0.332 | 0.362 | 0.406 | 0.310 | 0.331 | 0.285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24]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변동 추이



[그림 2-25]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변이계수

- 주민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를 살펴보면, 대전 자치구의 평균은 2015년 15.6개이며, 현재 중구가 22.89개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보이는 자치구는 유성구로 2015년 11.42개임
- 변동 추이에서는 중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 순임. 의료기관 병상수의 경우 인구수의 증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구의 인구수 감소에 따른 경향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함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자치구별 편차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다만 유성구와 동구는 의료기관 병상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병상수의 경우 의료기관 입주와 직결되는 것으로 병원 개원의 시점과 지리적 여건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침. 병상수와 동시에 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종합한 자료가 있다면 보다 타당한 해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임

3)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표 2-15]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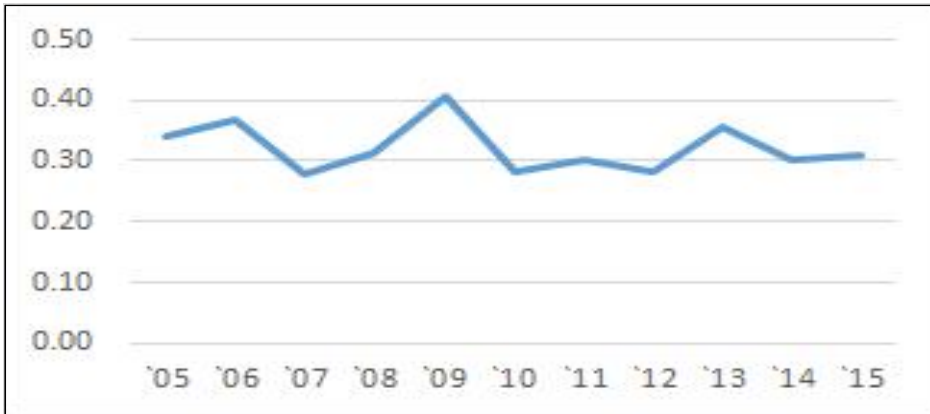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4.26 | 4.65 | 6.54 | 8.54 | 6.91 | 9.24 | 9.55 | 9.92 | 10.77 | 12.22 | 12.1 |
| 중 구 | 1.5 | 1.52 | 3.77 | 7.18 | 7.95 | 9.78 | 10.55 | 10.6 | 10.19 | 11.87 | 12.88 |
| 서 구 | 3.53 | 3.96 | 4.98 | 6.21 | 5.01 | 6.8 | 9.42 | 10.27 | 9.22 | 9.88 | 10.19 |
| 유성구 | 3.62 | 3.29 | 3.59 | 3.46 | 2.25 | 4.61 | 4.08 | 4.57 | 3.82 | 4.89 | 5.07 |
| 대덕구 | 2.69 | 2.76 | 3.75 | 5.21 | 4.8 | 6.75 | 9.74 | 10.7 | 12.72 | 11.91 | 12.7 |
| S.D. | 1.1 | 1.2 | 1.3 | 1.9 | 2.2 | 2.1 | 2.6 | 2.6 | 3.3 | 3.1 | 3.3 |
| M | 3.1 | 3.2 | 4.5 | 6.1 | 5.4 | 7.4 | 8.7 | 9.2 | 9.3 | 10.2 | 10.6 |
| C.V | 0.341 | 0.369 | 0.278 | 0.315 | 0.407 | 0.282 | 0.300 | 0.284 | 0.358 | 0.304 | 0.308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26]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변동 추이



[그림 2-27]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변이계수

- 자치구별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의 2015년 평균은 10.6개로, 유성구가 5.07개로 가장 낮은 사회복지시설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곳은 중구로 2005년 1.5개에서 2015년 12.88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승률이 높음. 다음으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순임
-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승폭은 다소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서는 곳은 대덕구와 중구, 동구임
-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에 대한 변이계수에서 살펴보면, 중구와 대덕구, 대덕구, 동구의 시설수 증가와 유성구의 다소 정체된 시설수 증가로 이 부분에서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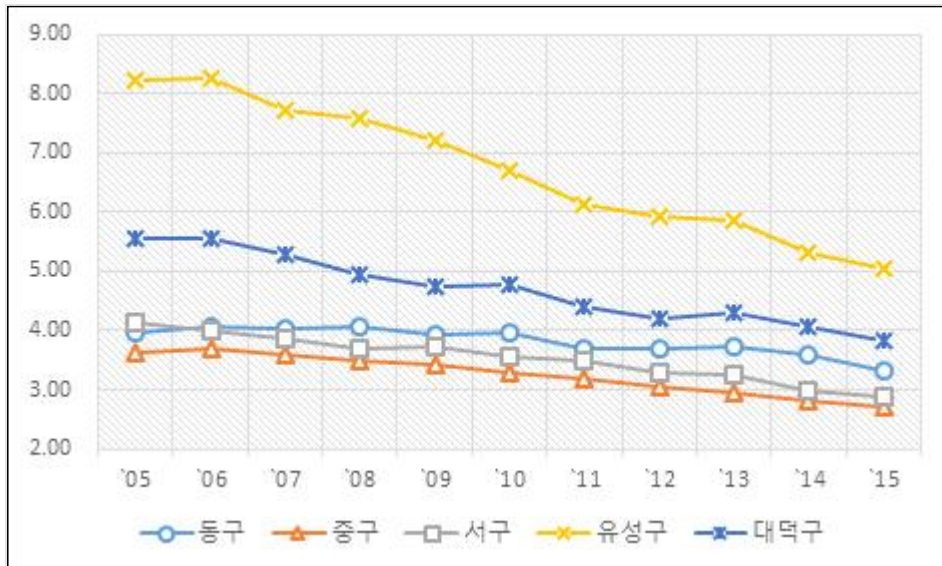
3)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표 2-16]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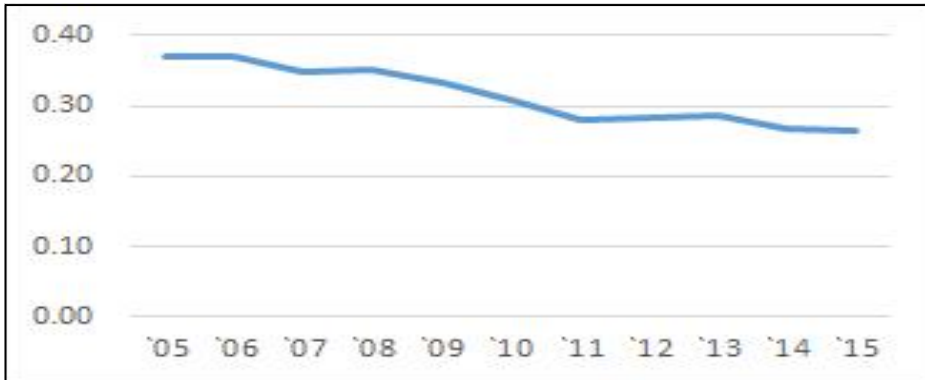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3.97 | 4.08 | 4.03 | 4.08 | 3.94 | 3.95 | 3.68 | 3.69 | 3.73 | 3.58 | 3.33 |
| 중 구 | 3.62 | 3.70 | 3.60 | 3.48 | 3.41 | 3.29 | 3.18 | 3.06 | 2.95 | 2.82 | 2.70 |
| 서 구 | 4.15 | 3.99 | 3.86 | 3.69 | 3.72 | 3.55 | 3.50 | 3.29 | 3.25 | 2.99 | 2.88 |
| 유성구 | 8.22 | 8.26 | 7.71 | 7.59 | 7.21 | 6.69 | 6.12 | 5.94 | 5.85 | 5.31 | 5.04 |
| 대덕구 | 5.55 | 5.55 | 5.28 | 4.95 | 4.74 | 4.78 | 4.41 | 4.20 | 4.31 | 4.08 | 3.83 |
| S.D. | 1.9 | 1.9 | 1.7 | 1.7 | 1.5 | 1.4 | 1.2 | 1.1 | 1.1 | 1.0 | 0.9 |
| M | 5.1 | 5.1 | 4.9 | 4.8 | 4.6 | 4.5 | 4.2 | 4.0 | 4.0 | 3.8 | 3.6 |
| C.V | 0.371 | 0.371 | 0.347 | 0.353 | 0.334 | 0.308 | 0.281 | 0.285 | 0.285 | 0.267 | 0.264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28]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동 추이



[그림 2-29]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이계수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에서 살펴보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시설수에서 2015년 3.6개라는 평균 이상을 기록한 구는 유성구와 대덕구임. 이는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시설에서의 정체가 그 요인으로 보임
- 60세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자치구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 단일한 하향 경향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앞서 살펴본 노령화의 진전이 시설 확충을 앞서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향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지만, 자치구별 특정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가 아닌 연령별이 아닌 전체 주민복지 차원에서 증가하는 시설수를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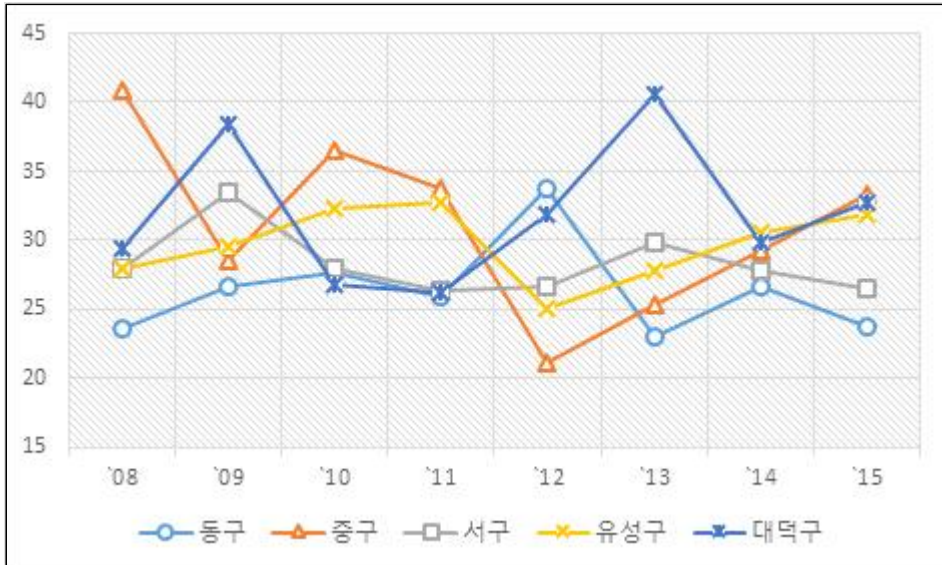
4) 스트레스 인지율

[표 2-17]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23.6 | 26.6 | 27.7 | 26 | 33.8 | 23.1 | 26.6 | 23.7 |
| 중 구 | 40.8 | 28.5 | 36.5 | 33.7 | 21.2 | 25.4 | 29.3 | 33.3 |
| 서 구 | 27.9 | 33.5 | 27.9 | 26.4 | 26.7 | 29.8 | 27.8 | 26.5 |
| 유성구 | 28 | 29.5 | 32.3 | 32.8 | 25 | 27.8 | 30.6 | 31.9 |
| 대덕구 | 29.4 | 38.4 | 26.8 | 26.2 | 31.9 | 40.6 | 29.9 | 32.7 |
| S.D. | 6.4 | 4.7 | 4.1 | 3.9 | 5.1 | 6.8 | 1.6 | 4.3 |
| M | 29.9 | 31.3 | 30.2 | 29.0 | 27.7 | 29.3 | 28.8 | 29.6 |
| C.V | 0.215 | 0.150 | 0.136 | 0.134 | 0.185 | 0.231 | 0.056 | 0.144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30] 스트레스 인지율 변동 추이



[그림 2-31] 스트레스 인지율 변이계수

- 대전시 구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 평균 29.6%임. 이를 상회하는 구는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이며, 가장 낮은 구는 동구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자치구는 유성구로 2008년에는 28%에서 2015년에는 31.9%로 3.9%가 증가하였음. 반대로 중구는 2008년 40.8%에서 2015년에는 33.3%로 7.5%가 감소하였음
-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동추이 및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불안정한 변동이 모든 자치구에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음. 중구의 경우 큰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향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작아지고 있음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13년 대덕구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큰 폭의 격차를 보여주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후 대덕구의 감소로 자치구간 격차가 감소하였음. 다만 2014년부터 동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다소 완연한 증가가 격차를 넓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4. 주거/환경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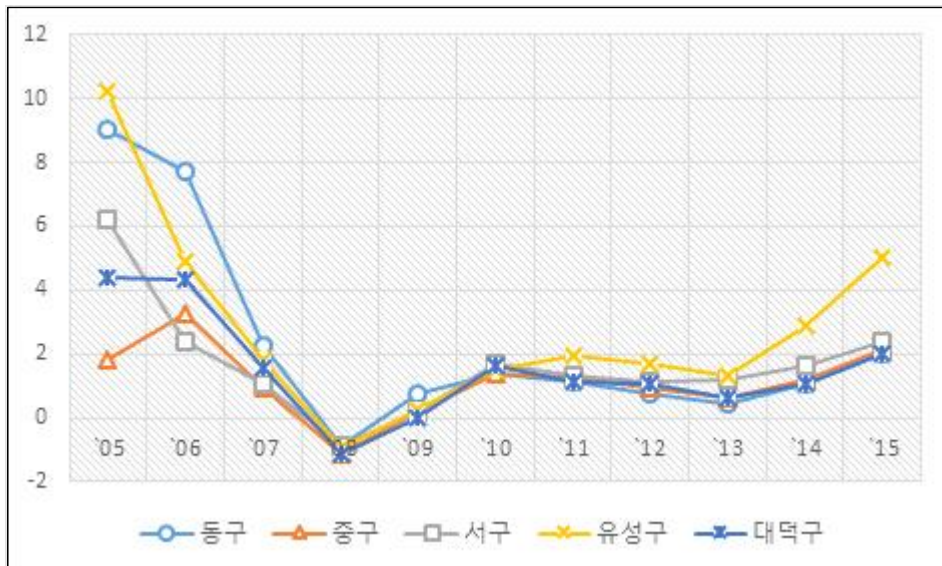
1) 자가변동률

[표 2-18] 자가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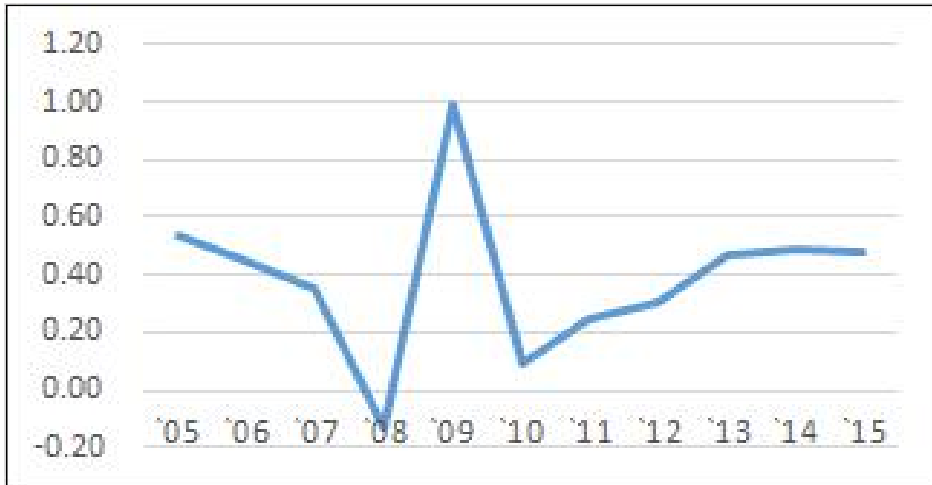
(단위 :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9.04 | 7.75 | 2.235 | -0.856 | 0.733 | 1.378 | 1.147 | 0.769 | 0.442 | 1.06 | 2.004 |
| 중 구 | 1.85 | 3.287 | 0.917 | -1.129 | 0.207 | 1.406 | 1.258 | 0.97 | 0.653 | 1.185 | 2.116 |
| 서 구 | 6.226 | 2.385 | 1.096 | -0.887 | 0.189 | 1.724 | 1.346 | 1.153 | 1.188 | 1.604 | 2.394 |
| 유성구 | 10.202 | 4.883 | 1.813 | -0.946 | 0.236 | 1.49 | 1.921 | 1.702 | 1.348 | 2.87 | 4.996 |
| 대덕구 | 4.407 | 4.346 | 1.547 | -1.126 | 0.005 | 1.625 | 1.108 | 1.098 | 0.613 | 1.091 | 2.002 |
| S.D. | 3.4 | 2.0 | 0.5 | 0.1 | 0.3 | 0.1 | 0.3 | 0.3 | 0.4 | 0.8 | 1.3 |
| M | 6.3 | 4.5 | 1.5 | -1.0 | 0.3 | 1.5 | 1.4 | 1.1 | 0.8 | 1.6 | 2.7 |
| C.V | 0.535 | 0.451 | 0.351 | -0.132 | 0.993 | 0.097 | 0.243 | 0.306 | 0.465 | 0.488 | 0.478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32] 자가변동률 변동 추이



[그림 2-33] 지가변동률 변이계수

- 지가변동률에서 대전 자치구의 2015년도 평균은 2.7%이며, 2015년도 지가변동률이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4.996%), 서구(2.394%), 중구(2.116%), 동구(2.004%), 대덕구(2.002%) 순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유성구는 2010년도를 기점으로 다른 구에 비하여 높은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변동률을 상회하고 있음. 이는 대전지역의 지가변동률에서 유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함
-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가변동률 변동 추이를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2008년까지 변동률의 폭이 다소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여기에서도 유성구는 다른 자치구의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는 경향이 두드러짐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지가변동률에서 경향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가지지만,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1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가변동률에서 격차를 가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임

2)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표 2-19]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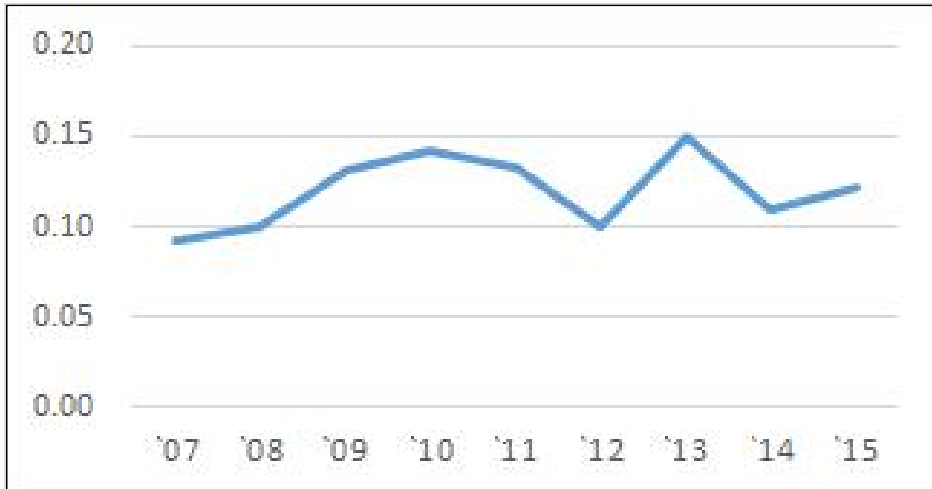
(단위 : kg/인, 일)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0.97 | 1.01 | 0.98 | 1.23 | 1.17 | 0.96 | 0.94 | 1.05 | 1.07 |
| 중 구 | 1.14 | 1.22 | 1.10 | 1.00 | 1.00 | 1.01 | 1.04 | 0.91 | 0.93 |
| 서 구 | 0.92 | 1.01 | 0.93 | 0.91 | 0.89 | 0.89 | 0.85 | 0.88 | 0.89 |
| 유성구 | 1.01 | 0.99 | 0.95 | 0.97 | 0.92 | 0.92 | 0.91 | 0.90 | 0.88 |
| 대덕구 | 1.12 | 1.18 | 1.26 | 1.23 | 1.18 | 1.14 | 1.23 | 1.12 | 1.15 |
| S.D. | 0.10 | 0.11 | 0.14 | 0.15 | 0.14 | 0.10 | 0.15 | 0.11 | 0.12 |
| M | 1.03 | 1.08 | 1.04 | 1.07 | 1.03 | 0.98 | 0.99 | 0.97 | 0.98 |
| C.V | 0.092 | 0.101 | 0.132 | 0.142 | 0.132 | 0.100 | 0.150 | 0.110 | 0.122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34]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변동 추이



[그림 2-35]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변이계수

- 주민1인당 1일 생활폐기물배출량에서 대전 자치구별 2015년 평균은 1.0이며, 이를 상회하는 지역은 대덕구(1.15)와 동구(1.07)임. 다음으로 중구(0.93), 서구(0.89), 유성구(0.88) 순으로 나타남
- 주민1인당 1일 생활폐기물배출량의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대덕구가 가장 높은 순위이며, 동구가 2013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아울러 중구와 유성구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되다가, 2012년까지 간격이 줄어들었음. 2007년과 대비하여 2015년의 자치구간 격차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치구별로 격차가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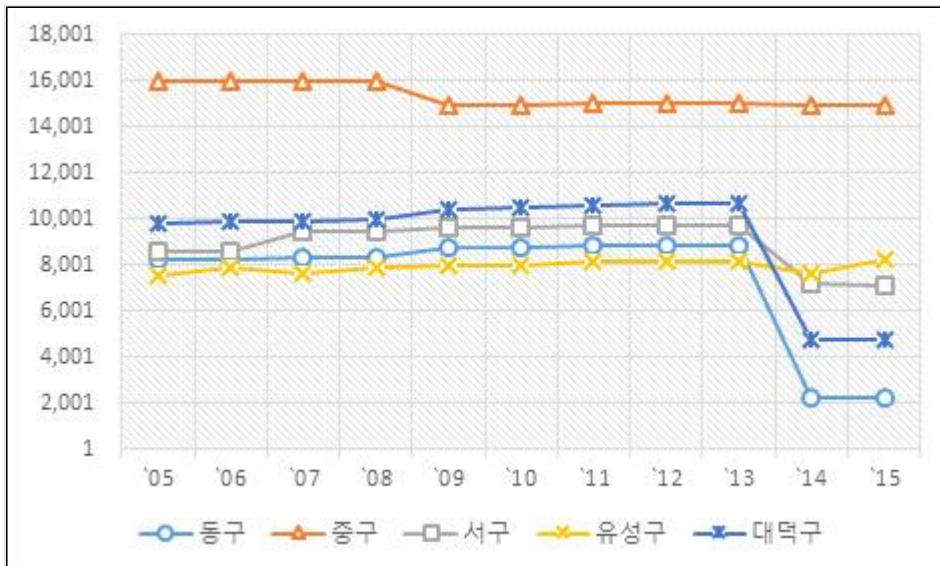
3) 공원면적(A)

[표 2-20] 공원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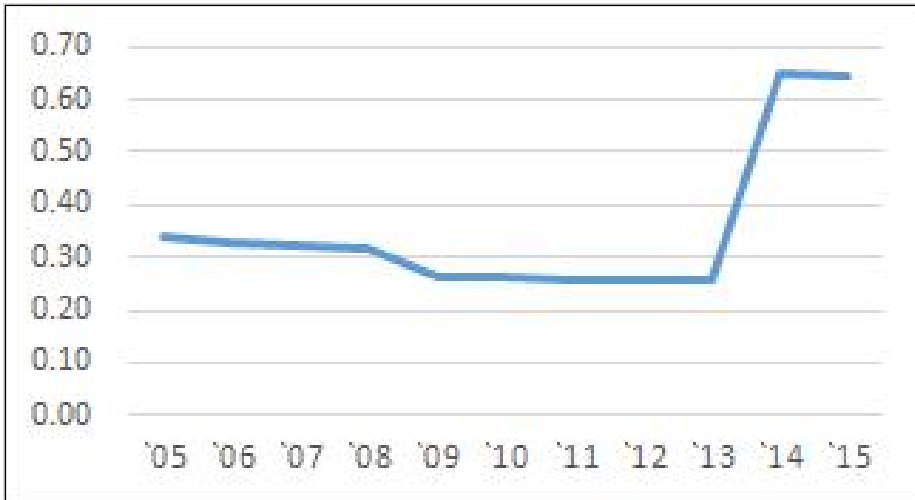
(단위 : m²)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8,226 | 8,261 | 8,322 | 8,337 | 8,721 | 8,743 | 8,821 | 8,815 | 8,814 | 2,189 | 2,183 |
| 중 구 | 15,937 | 15,952 | 15,964 | 15,989 | 14,936 | 14,958 | 14,987 | 14,978 | 14,977 | 14,965 | 14,926 |
| 서 구 | 8,589 | 8,590 | 9,477 | 9,486 | 9,637 | 9,637 | 9,663 | 9,666 | 9,663 | 7,174 | 7,067 |
| 유성구 | 7,510 | 7,903 | 7,594 | 7,894 | 7,940 | 7,968 | 8,141 | 8,140 | 8,141 | 7,635 | 8,229 |
| 대덕구 | 9,748 | 9,905 | 9,911 | 9,948 | 10,442 | 10,450 | 10,566 | 10,636 | 10,642 | 4,747 | 4,713 |
| S.D. | 3,415.0 | 3,345.5 | 3,321.7 | 3,270.7 | 2,739.0 | 2,739.0 | 2,701.9 | 2,700.1 | 2,699.9 | 4,783.1 | 4,792.5 |
| M | 10,002.0 | 10,122.2 | 10,253.6 | 10,330.8 | 10,335.2 | 10,351.2 | 10,435.6 | 10,447.0 | 10,447.4 | 7,342.0 | 7,423.6 |
| C.V | 0.341 | 0.331 | 0.324 | 0.317 | 0.265 | 0.265 | 0.259 | 0.258 | 0.258 | 0.651 | 0.646 |

출처: 통계청(대전시 기본통계)



[그림 2-36] 공원면적 변동 추이



[그림 2-37] 공원면적 변이계수

- 대전 자치구별 공원면적은 2015년 평균 7,423.6㎡로 계상됨. 공원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중구로 14,926㎡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동구로 2,183㎡를 기록하고 있음. 중구와 동구의 차이는 12,743㎡을 보임
- 공원면적에 대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중구의 경우 큰 감소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2013년부터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으로 공원면적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대전 자치구별 녹지개발현황과 맞물려서 해석되어야 할 사항이며 두 설명요인을 대비시켜 보아야 함과 동시에 공간이용의 목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 공원면적에 대한 변이계수는 중구의 안정세와 다른 자치구의 공원면적 감소로 2013년을 기점으로 큰 격차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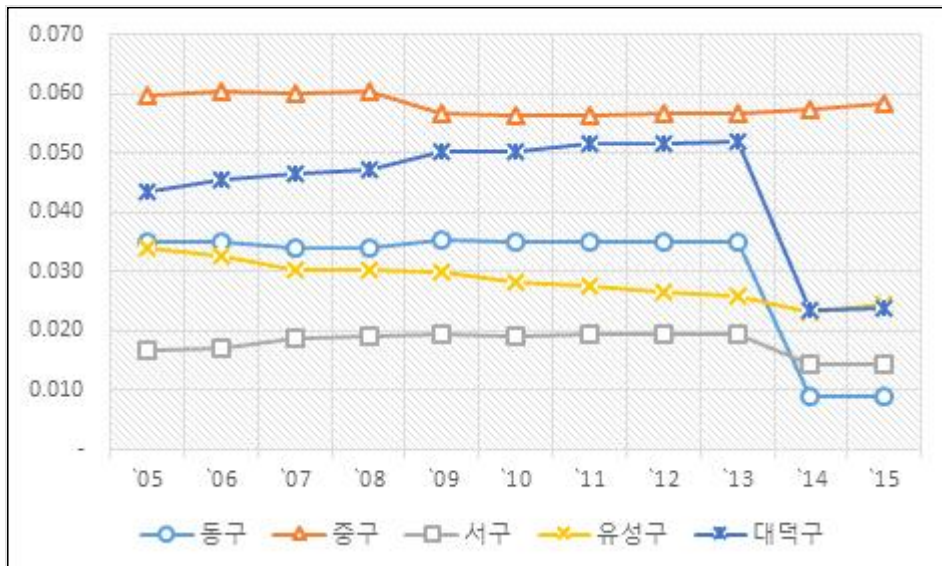
4) 1인당 공원면적(A)

[표 2-21] 1인당 공원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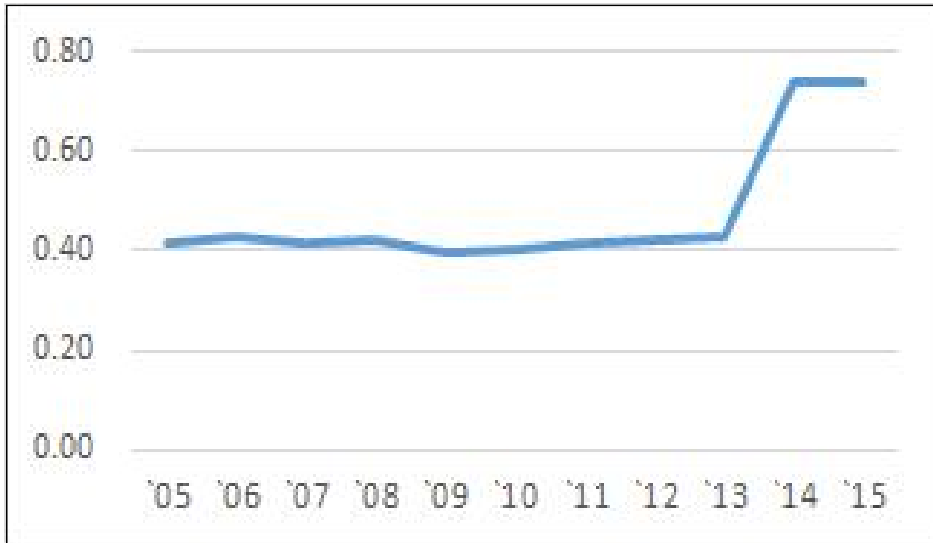
(단위 : 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0.035 | 0.035 | 0.034 | 0.034 | 0.035 | 0.035 | 0.035 | 0.035 | 0.035 | 0.009 | 0.009 |
| 중 구 | 0.060 | 0.061 | 0.060 | 0.060 | 0.057 | 0.056 | 0.056 | 0.057 | 0.057 | 0.057 | 0.058 |
| 서 구 | 0.017 | 0.017 | 0.019 | 0.019 | 0.019 | 0.019 | 0.019 | 0.019 | 0.019 | 0.014 | 0.014 |
| 유성구 | 0.034 | 0.033 | 0.030 | 0.030 | 0.030 | 0.028 | 0.028 | 0.027 | 0.026 | 0.023 | 0.025 |
| 대덕구 | 0.044 | 0.046 | 0.046 | 0.047 | 0.050 | 0.050 | 0.051 | 0.052 | 0.052 | 0.024 | 0.024 |
| S.D. | 0.016 | 0.016 | 0.016 | 0.016 | 0.015 | 0.015 | 0.016 | 0.016 | 0.016 | 0.019 | 0.019 |
| M | 0.038 | 0.038 | 0.038 | 0.038 | 0.038 | 0.038 | 0.038 | 0.038 | 0.038 | 0.026 | 0.026 |
| C.V | 0.413 | 0.424 | 0.417 | 0.419 | 0.396 | 0.405 | 0.413 | 0.422 | 0.427 | 0.738 | 0.735 |

출처: 통계청(대전시 기본통계)



[그림 2-38] 대전시 구별 1인당 공원면적 변동 추이



[그림 2-39] 대전시 구별 1인당 공원면적 변이계수

-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시 기본통계의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계상하면 2015년 평균은 0.026천㎡이며,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0.058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동구로 0.009천㎡로 나타남
- 1인당 공원면적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공원면적과 동일하게 중구를 제외하고 다른 4개 자치구에서 2013년부터 공원면적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구의 안정적 유지와 다른 자치구의 공원면적 감소는 변이계수에서 격차를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교육/문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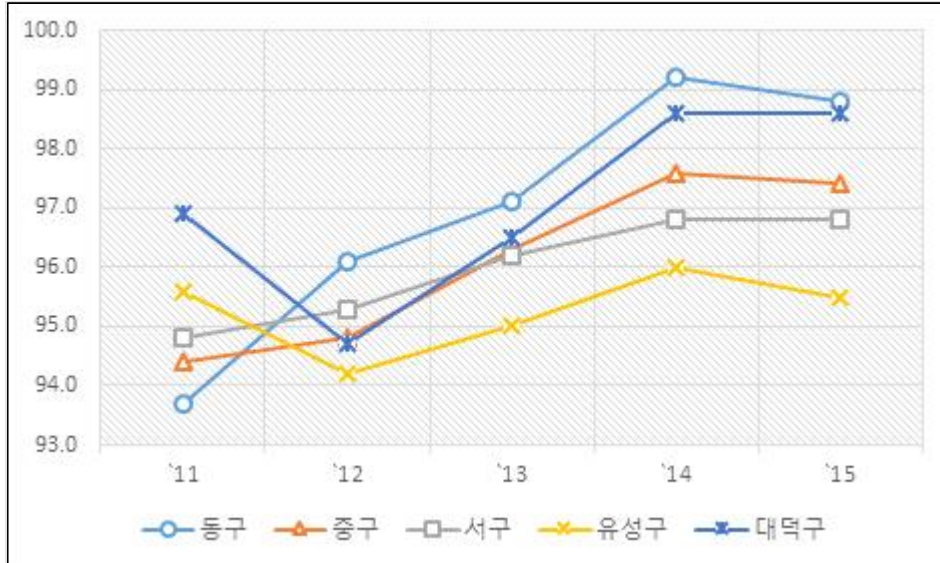
1) 취학률

[표 2-22] 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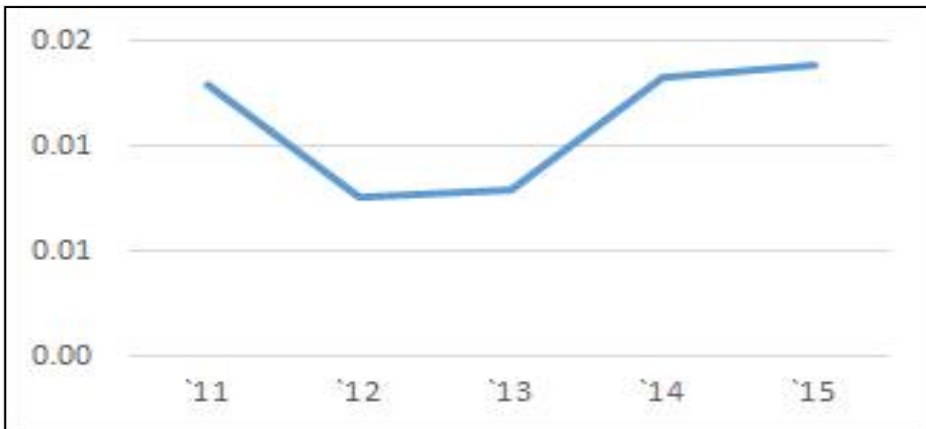
(단위 :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93.7 | 96.1 | 97.1 | 99.2 | 98.8 |
| 중 구 | 94.4 | 94.8 | 96.3 | 97.6 | 97.4 |
| 서 구 | 94.8 | 95.3 | 96.2 | 96.8 | 96.8 |
| 유성구 | 95.6 | 94.2 | 95.0 | 96.0 | 95.5 |
| 대덕구 | 96.9 | 94.7 | 96.5 | 98.6 | 98.6 |
| S.D. | 1.2 | 0.7 | 0.8 | 1.3 | 1.4 |
| M | 95.1 | 95.0 | 96.2 | 97.6 | 97.4 |
| C.V | 0.013 | 0.008 | 0.008 | 0.013 | 0.014 |

출처: 대전의 사회지표



[그림 2-40] 취학률 변동 추이



[그림 2-41] 취학률 변이계수

- 취학률을 단순하게 %로 살펴보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2015년 평균으로 보면, 동구(98.8%)와 대덕구(98.6%), 중구(97.4%)가 평균 이상의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성구(95.5%)와 서구(96.8%)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간 표준편차에서 2013년부터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성구의 취학률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임
- 취학률 변동 추이를 보면, 대전 5개 자치구의 경향은 큰 변동폭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다만, 표준편차의 평균으로 계상되는 변이계수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격차가 줄어들다가, 2012년부터 자치구간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치구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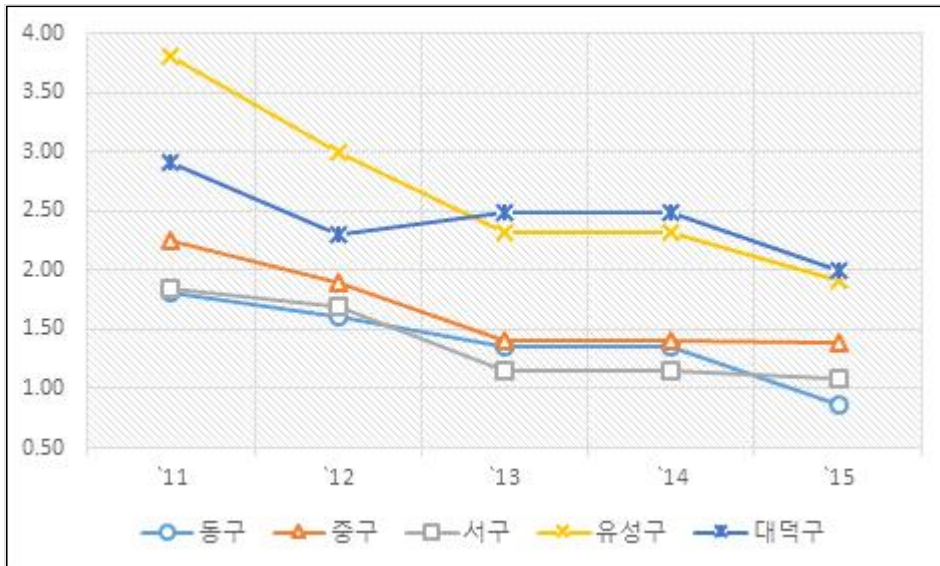
2) 학업중단률

[표 2-23] 학업중단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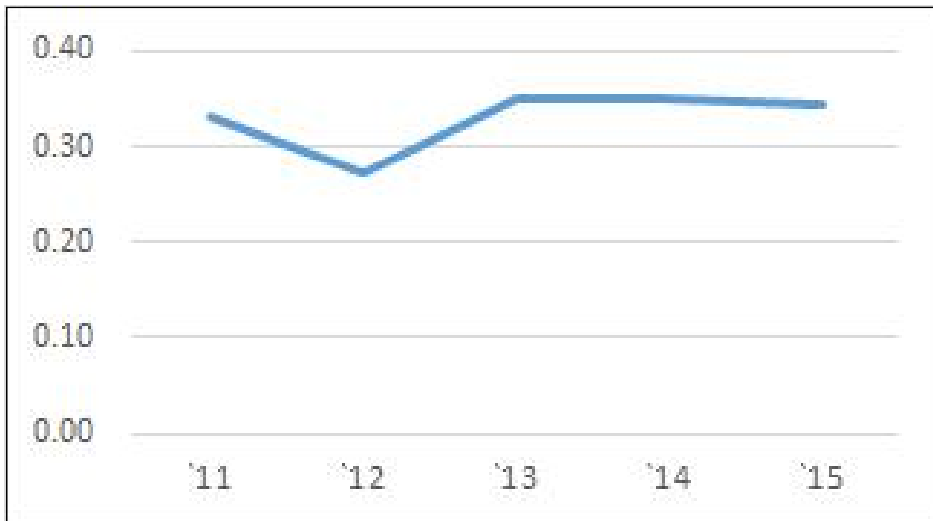
(단위 :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1.81 | 1.60 | 1.35 | 1.35 | 0.87 |
| 중 구 | 2.25 | 1.90 | 1.41 | 1.41 | 1.38 |
| 서 구 | 1.85 | 1.70 | 1.16 | 1.16 | 1.08 |
| 유성구 | 3.80 | 3.00 | 2.32 | 2.32 | 1.92 |
| 대덕구 | 2.91 | 2.30 | 2.49 | 2.49 | 1.99 |
| S.D. | 0.8 | 0.6 | 0.6 | 0.6 | 0.5 |
| M | 2.5 | 2.1 | 1.7 | 1.7 | 1.4 |
| C.V | 0.332 | 0.271 | 0.350 | 0.350 | 0.344 |

출처: 대전의 사회지표



[그림 2-42] 학업중단률 변동 추이



[그림 2-43] 학업중단률 변이계수

- 자치구별 학업중단률을 보면, 2015년 평균은 1.4%로 대덕구(1.99%)와 유성구(1.92%)가 높음. 그리고 중구(1.38%), 서구(1.08%), 동구(0.87%) 순으로 낮음. 대전 자치구별 평균에서의 의미에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학업중단률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보임
- 학업중단률에 관련한 변동 추이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학업중단률이 낮아지고 있음이 보임. 다만 동구의 학업중단률이 다른 자치구와는 다르게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변이계수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격차가 증가하고 이러한 경향이 내성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전 자치구별 비슷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사설학원수(천명당)

[표 2-24] 천명당 사설학원수

(단위 : 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1.18 | 1.01 | 0.99 | 1.05 | 1.04 | 1.02 | 1.00 | 1.00 | 0.96 | 0.93 | 0.99 |
| 중 구 | 1.44 | 1.38 | 1.38 | 1.45 | 1.45 | 1.36 | 1.29 | 1.32 | 1.34 | 1.27 | 1.36 |
| 서 구 | 1.36 | 1.52 | 1.66 | 1.62 | 1.69 | 1.74 | 1.70 | 1.68 | 1.69 | 1.64 | 1.76 |
| 유성구 | 1.12 | 1.23 | 1.50 | 1.41 | 1.52 | 1.52 | 1.52 | 1.50 | 1.46 | 1.41 | 1.49 |
| 대덕구 | 1.46 | 1.42 | 1.46 | 1.49 | 1.52 | 1.46 | 1.36 | 1.34 | 1.29 | 1.23 | 1.33 |
| S.D. | 0.2 | 0.2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0.3 | 0.3 |
| M | 1.3 | 1.3 | 1.4 | 1.4 | 1.4 | 1.4 | 1.4 | 1.4 | 1.3 | 1.3 | 1.4 |
| C.V | 0.117 | 0.151 | 0.179 | 0.152 | 0.168 | 0.186 | 0.191 | 0.184 | 0.197 | 0.201 | 0.201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44] 사설학원수(천명당) 변동 추이



[그림 2-45] 사설학원수(천명당) 변이계수

- 주민 천명당 사설학원수는 2015년 평균 1.4개로 서구 1.76개, 유성구가 1.49개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 1.36개, 대덕구 1.33개, 동구 0.99개로 드러남. 인구천명당 사설학원수에서 서구와 동구의 차이는 0.77개의 차이를 가짐
- 변동 추이를 살펴봐도 동구의 경우 2005년에 비하여 최근 반등의 폭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반면 서구와 유성구는 2008년을 기점으로 변동의 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이 보임
-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자치구간 사설학원수에서의 차이가 2008년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이러한 격차는 자치구별 교육여건 및 환경을 비롯하여 인구와 관련이 있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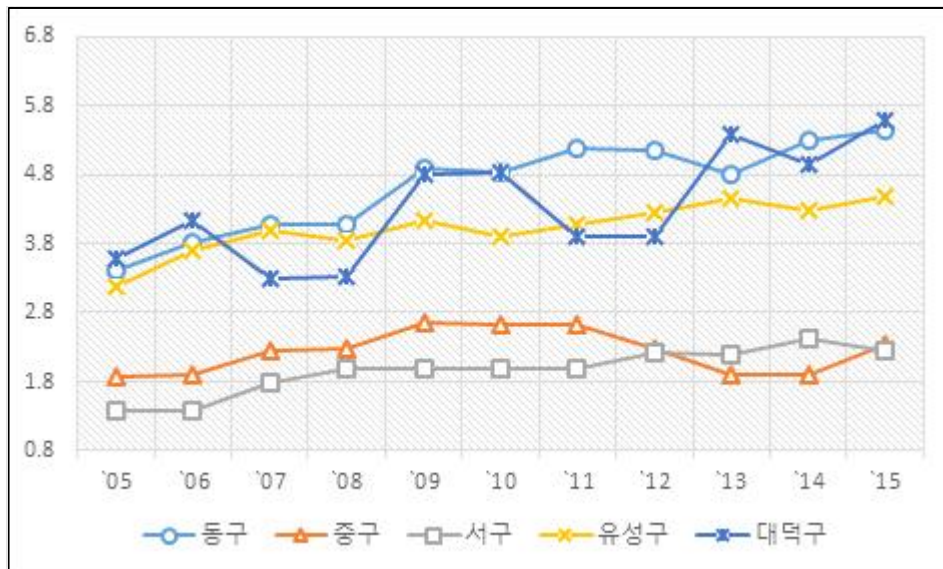
4) 문화기반시설수

[표 2-25] 문화기반시설수(인구 십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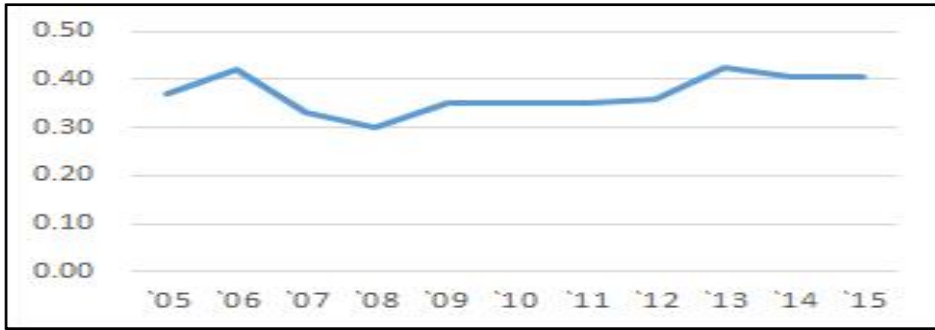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3.41 | 3.81 | 4.09 | 4.07 | 4.88 | 4.82 | 5.17 | 5.16 | 4.79 | 5.3 | 5.43 |
| 중 구 | 1.88 | 1.9 | 2.26 | 2.27 | 2.65 | 2.63 | 2.64 | 2.27 | 1.89 | 1.91 | 2.34 |
| 서 구 | 1.37 | 1.38 | 1.79 | 2 | 2 | 2 | 2 | 2.22 | 2.2 | 2.42 | 2.24 |
| 유성구 | 3.17 | 3.7 | 3.99 | 3.85 | 4.13 | 3.9 | 4.08 | 4.24 | 4.46 | 4.28 | 4.47 |
| 대덕구 | 3.58 | 4.14 | 3.28 | 3.31 | 4.8 | 4.82 | 3.9 | 3.89 | 5.38 | 4.96 | 5.59 |
| S.D. | 1.0 | 1.3 | 1.0 | 0.9 | 1.3 | 1.3 | 1.3 | 1.3 | 1.6 | 1.5 | 1.6 |
| M | 2.7 | 3.0 | 3.1 | 3.1 | 3.7 | 3.6 | 3.6 | 3.6 | 3.7 | 3.8 | 4.0 |
| C.V | 0.370 | 0.420 | 0.333 | 0.299 | 0.353 | 0.352 | 0.352 | 0.361 | 0.425 | 0.404 | 0.406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46]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변동 추이



[그림 2-47]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변이계수

- 문화기반시설수를 살펴보면, 대전시 자치구별 평균은 2015년에 4개로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대덕구 5.59개, 동구 5.43개, 유성구 4.47개 임.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중구 2.34개, 서구 2.24개로 나타남
- 문화기반시설수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기반시설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증감률을 차지하고 누적상황을 고려하면 그 격차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 위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그 증가폭에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동구와 중구의 자치구 현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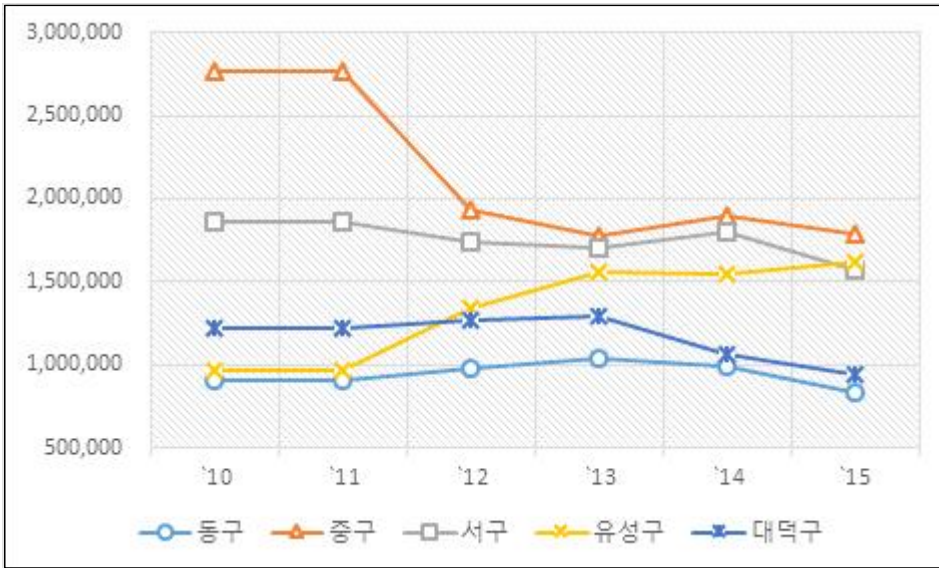
4)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표 2-26]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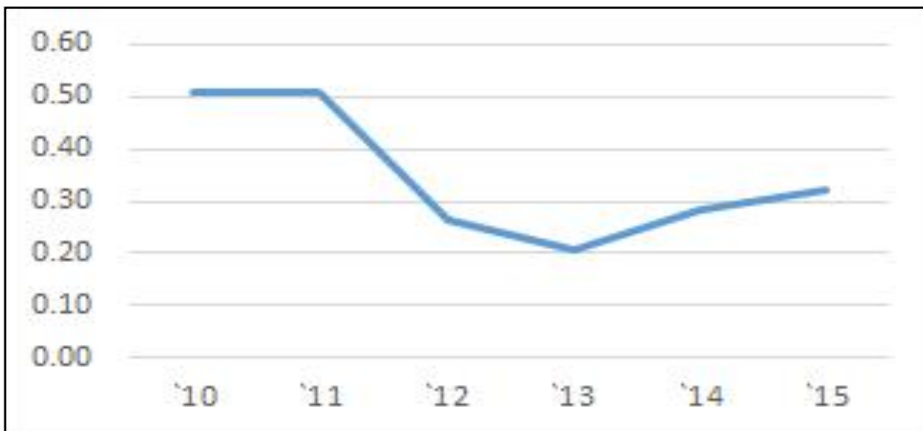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901,407 | 901,407 | 977,786 | 1,041,777 | 992,193 | 836,861 |
| 중 구 | 2,761,782 | 2,761,782 | 1,926,918 | 1,771,670 | 1,897,890 | 1,786,290 |
| 서 구 | 1,858,111 | 1,858,111 | 1,743,597 | 1,700,959 | 1,797,458 | 1,567,833 |
| 유성구 | 962,612 | 962,612 | 1,343,774 | 1,553,773 | 1,546,266 | 1,617,853 |
| 대덕구 | 1,223,706 | 1,223,706 | 1,268,273 | 1,293,071 | 1,057,065 | 937,767 |
| S.D. | 780,249.0 | 780,249.0 | 381,091.6 | 302,497.2 | 416,608.5 | 430,926.6 |
| M | 1,541,523.6 | 1,541,523.6 | 1,452,069.6 | 1,472,250.0 | 1,458,174.4 | 1,349,320.8 |
| C.V | 0.506 | 0.506 | 0.262 | 0.205 | 0.286 | 0.319 |

출처: 대전의 사회지표



[그림 2-48]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변동 추이



[그림 2-49] 도서관 연간 이용자수 변이계수

-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에서 2015년 평균 이상인 곳은 중구(1,786,290명), 유성구(1,617,853명), 서구(1,567,833명)임.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대덕구(937,767명)와 동구(836,861명)로 나타남
-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는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음. 중구의 경우 2015년 상황은 2010년의 수준에 비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변이계수의 측면에서 2013년까지 차이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2010년에 비하면 다소 격차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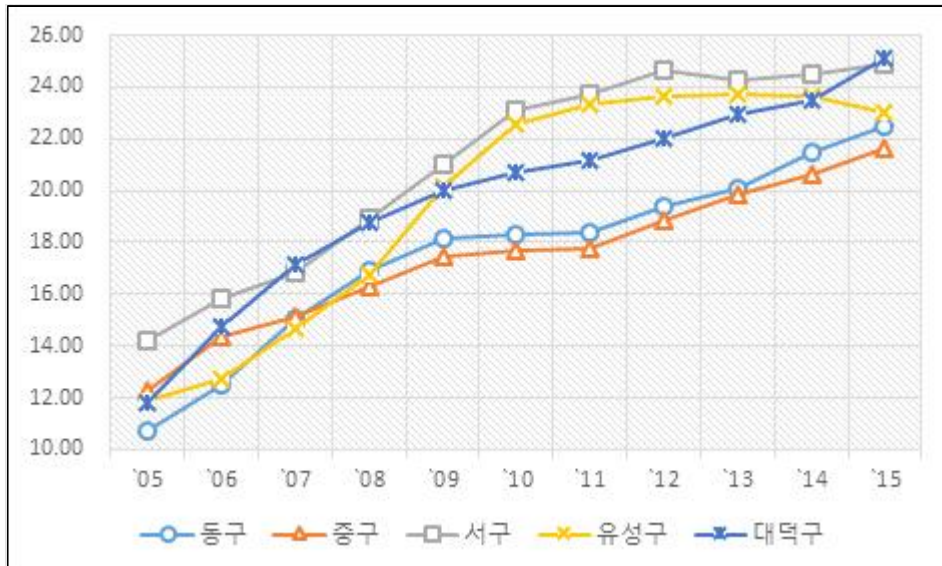
6) 유아 보육시설수

[표 2-27] 유아(0~4세) 보육시설수(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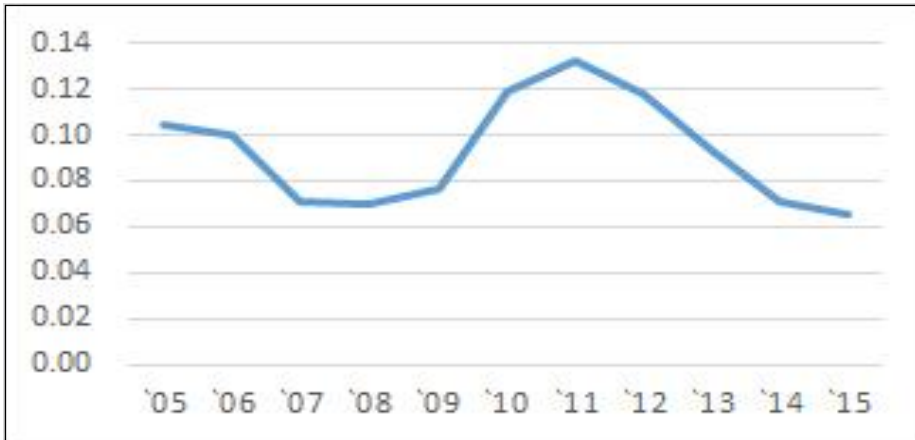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10.76 | 12.50 | 15.03 | 16.90 | 18.18 | 18.33 | 18.38 | 19.42 | 20.10 | 21.47 | 22.45 |
| 중 구 | 12.30 | 14.33 | 15.12 | 16.26 | 17.48 | 17.65 | 17.73 | 18.81 | 19.84 | 20.66 | 21.64 |
| 서 구 | 14.24 | 15.85 | 16.80 | 18.93 | 21.03 | 23.11 | 23.75 | 24.62 | 24.30 | 24.52 | 24.87 |
| 유성구 | 11.86 | 12.73 | 14.65 | 16.76 | 20.20 | 22.55 | 23.35 | 23.66 | 23.70 | 23.62 | 23.03 |
| 대덕구 | 11.80 | 14.71 | 17.11 | 18.74 | 20.00 | 20.74 | 21.18 | 22.01 | 22.94 | 23.46 | 25.15 |
| S.D. | 1.3 | 1.4 | 1.1 | 1.2 | 1.5 | 2.4 | 2.8 | 2.6 | 2.1 | 1.6 | 1.5 |
| M | 12.2 | 14.0 | 15.7 | 17.5 | 19.4 | 20.5 | 20.9 | 21.7 | 22.2 | 22.7 | 23.4 |
| C.V | 0.105 | 0.100 | 0.072 | 0.070 | 0.077 | 0.119 | 0.132 | 0.118 | 0.093 | 0.071 | 0.065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50] 대전시 구별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변동 추이



[그림 2-51] 대전시 구별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변이계수

- 유아 보육시설수는 2015년에 평균 23.4개로 대덕구가 25.15개, 서구 24.87개, 유성구 23.03개, 동구 22.45개, 중구 21.64개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 보육시설수 변동 추이에서는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변동 추이에서 서구와 대덕구가 높은 변동의 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중구는 2007년부터 보육시설수가 가장 낮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음
- 변이계수의 측면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아 보육시설수에 대한 자치구간의 격차가 존재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유아 보육시설수 차이는 전체적으로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행·재정 부문

1) 재정자립도

[표 2-28]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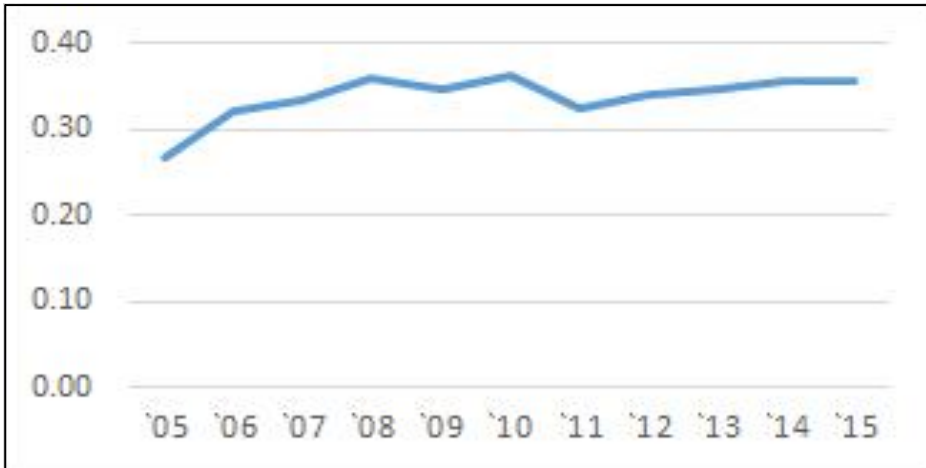
(단위 :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23.6 | 15.6 | 17.7 | 17.8 | 16.4 | 12.2 | 16.1 | 16.5 | 15.8 | 14.5 | 13.7 |
| 중 구 | 27.0 | 25.0 | 23.0 | 21.4 | 17.7 | 18.4 | 20.4 | 20.3 | 19.8 | 18.0 | 17.7 |
| 서 구 | 38.0 | 30.7 | 28.9 | 26.7 | 26.4 | 22.5 | 26.2 | 26.2 | 23.9 | 21.0 | 20.3 |
| 유성구 | 44.1 | 39.2 | 39.7 | 39.1 | 35.4 | 32.8 | 36.3 | 38.3 | 37.2 | 34.1 | 33.2 |
| 대덕구 | 27.7 | 24.4 | 20.7 | 18.0 | 18.8 | 18.9 | 20.7 | 21.6 | 21.0 | 18.6 | 18.7 |
| S.D. | 8.6 | 8.7 | 8.7 | 8.9 | 8.0 | 7.6 | 7.8 | 8.4 | 8.2 | 7.6 | 7.4 |
| M | 32.1 | 27.0 | 26.0 | 24.6 | 22.9 | 21.0 | 23.9 | 24.6 | 23.5 | 21.2 | 20.7 |
| C.V | 0.268 | 0.323 | 0.334 | 0.361 | 0.348 | 0.362 | 0.325 | 0.342 | 0.347 | 0.356 | 0.357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52]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그림 2-53] 재정자립도 변이계수

-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2015년 평균 20.7%로 극히 낮은 수준임. 재정자립도는 유성구만이 33.2%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서구 20.3%, 대덕구 18.7%, 중구 17.7%, 동구 13.7% 순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의 경우 표준편차에서도 간극의 크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변동 추이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부터 2011년의 변동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2005년도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재정자립도의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대전 모든 자치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음. 더구나 그 범위내에서도 또 다시 차이가 높은 경향이 드러나고 있어 대전시를 비롯하여 자치구의 자주재원 마련 등 자구적인 대책과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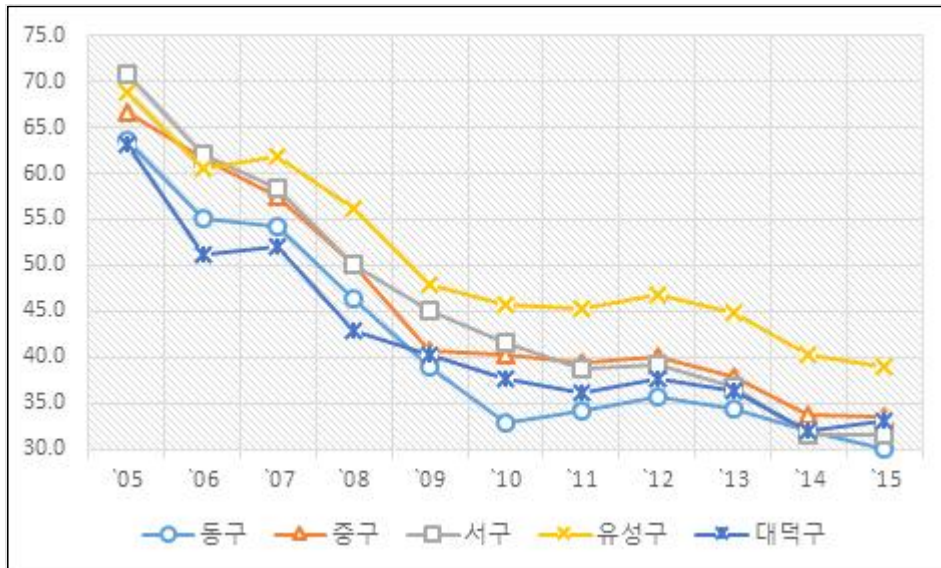
2) 재정자주도

[표 2-29] 재정자주도

(단위 :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63.6 | 55.2 | 54.3 | 46.4 | 39.0 | 33.0 | 34.3 | 35.8 | 34.5 | 32.0 | 30.1 |
| 중 구 | 66.6 | 61.6 | 57.4 | 50.2 | 40.8 | 40.2 | 39.4 | 40.1 | 37.9 | 33.7 | 33.6 |
| 서 구 | 70.7 | 62.0 | 58.4 | 50.0 | 45.0 | 41.6 | 38.8 | 39.2 | 36.9 | 31.7 | 31.5 |
| 유성구 | 68.8 | 60.6 | 61.8 | 56.1 | 48.0 | 45.7 | 45.3 | 46.8 | 44.8 | 40.2 | 39.0 |
| 대덕구 | 63.1 | 51.1 | 52.0 | 43.0 | 40.2 | 37.7 | 36.2 | 37.8 | 36.4 | 32.1 | 33.2 |
| S.D. | 3.3 | 4.8 | 3.8 | 4.9 | 3.8 | 4.7 | 4.2 | 4.2 | 3.9 | 3.6 | 3.4 |
| M | 66.6 | 58.1 | 56.8 | 49.1 | 42.6 | 39.6 | 38.8 | 39.9 | 38.1 | 33.9 | 33.5 |
| C.V | 0.049 | 0.082 | 0.067 | 0.099 | 0.089 | 0.119 | 0.108 | 0.104 | 0.104 | 0.106 | 0.101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54]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그림 2-55] 재정자주도 변이계수

- 2015년 대전의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2015년 평균 33.5%로 2005년 66.6%와 대비하여 나빠지고 있음. 2015년 재정자주도를 2005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서구 -39.2%, 동구 -33.5%, 중구 -33%로 3개 자치구가 30% 이상 낮아졌으며, 대덕구 -29.9%, 유성구 -29.8%로 보임. 표준편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전 5개 자치구간 모두 재정자주도의 악화가 눈에 띈
- 재정자주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대비 2015년에는 중구와 대덕구가 큰 낙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및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자주도에 대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치구간 격차가 커졌으며, 이후부터 재정자주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그 격차가 지속되어 누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3) 일반회계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표 2-30]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단위 :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동 구 | 36.82 | 37.2 | 39.36 | 42.53 | 48.33 | 52.29 | 47.82 | 53.96 | 54.76 | 58.36 | 60.98 |
| 중 구 | 29.51 | 33.95 | 40.31 | 44.27 | 46.41 | 50.3 | 49.46 | 49.69 | 51.26 | 54.18 | 55.96 |
| 서 구 | 31.78 | 33.8 | 41.12 | 46.4 | 47.96 | 52.13 | 50.56 | 52.1 | 54.09 | 56.69 | 56.62 |
| 유성구 | 19.74 | 24.5 | 26.17 | 29.01 | 30.67 | 34.05 | 36.09 | 39.14 | 43.11 | 42.14 | 45.99 |
| 대덕구 | 31.86 | 32.92 | 36.26 | 40 | 45.53 | 45.17 | 46.3 | 46.19 | 46.96 | 47.73 | 51.52 |
| S.D. | 6.3 | 4.7 | 6.1 | 6.8 | 7.4 | 7.7 | 5.8 | 5.8 | 4.9 | 6.8 | 5.7 |
| M | 29.9 | 32.5 | 36.6 | 40.4 | 43.8 | 46.8 | 46.0 | 48.2 | 50.0 | 51.8 | 54.2 |
| C.V | 0.210 | 0.146 | 0.168 | 0.168 | 0.169 | 0.164 | 0.126 | 0.121 | 0.099 | 0.130 | 0.105 |

출처: 국가통계 e-지방지표(KOSIS e-지방지표)



[그림 2-56]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변동 추이



[그림 2-57]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변이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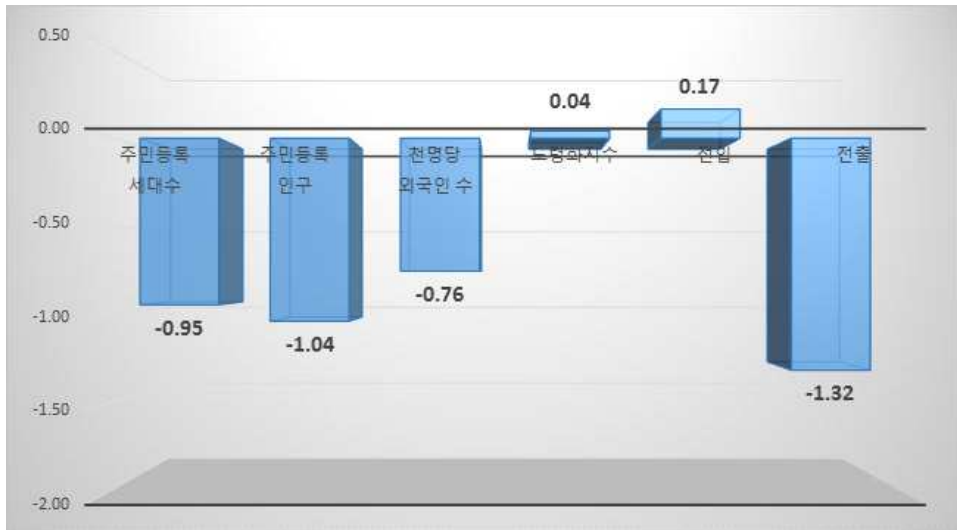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의 2015년도 평균은 54.2%로 유성구 45.99%, 대덕구 51.52%를 제외하고 3개 자치구에서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구로 60.98%이며, 서구가 56.62%, 다음으로 중구가 55.98%임.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개 자치구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며, 평균으로 계상하면, 2015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5년 대비 1.8배 상승하였음. 단순 산술계산에서도 비중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의 변동 추이는 2011년 동구가 약간 감소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2015년 전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변이계수에서는 2010년부터 자치구간 복지예산의 비중이 점차 유사하게 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5개 자치구에서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예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됨

2절. 연평균 부문별 격차 증감 현황 및 시사점

[표 2-31] 부문별 격차 연평균 증감 추이

| 부문 | 세부지표 | 연평균 증감률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구 | 주민등록 세대수 | -0.95 | 0.39 | 0.38 | 0.37 | 0.37 | 0.37 | 0.36 | 0.35 | 0.35 | 0.35 | 0.35 | 0.36 |
| | 주민등록 인구 | -1.04 | 0.42 | 0.41 | 0.40 | 0.39 | 0.39 | 0.38 | 0.38 | 0.37 | 0.37 | 0.38 | 0.38 |
| | 천명당 외국인수 | -0.76 | 0.44 | 0.35 | 0.36 | 0.37 | 0.41 | 0.40 | 0.40 | 0.39 | 0.41 | 0.42 | 0.41 |
| | 노령화 지수 | 0.04 | | | | 0.37 | 0.37 | 0.37 | 0.36 | 0.36 | 0.36 | 0.37 | 0.37 |
| | 전입 | 0.17 | 0.48 | 0.42 | 0.36 | 0.40 | 0.44 | 0.45 | 0.41 | 0.40 | 0.42 | 0.49 | 0.49 |
| | 전출 | -1.32 | 0.49 | 0.45 | 0.40 | 0.43 | 0.44 | 0.46 | 0.42 | 0.42 | 0.40 | 0.44 | 0.43 |
| 경제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0.30 | | | | | | | 0.35 | 0.33 | 0.37 | 0.39 | 0.36 |
| | GRDP | 2.09 | | | | | | 0.43 | 0.44 | 0.44 | 0.46 | | |
|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 0.58 | 0.09 | 0.09 | 0.09 | 0.08 | 0.08 | 0.09 | 0.09 | 0.09 | 0.09 | 0.10 | 0.09 |
| 보건/복지 | EQ-5D 지표 | 3.22 | | | | 0.01 | 0.01 | 0.01 | 0.00 | 0.01 | 0.01 | 0.01 | 0.01 |
| | 의료기관 병상수 | -1.03 | 0.32 | 0.34 | 0.33 | 0.33 | 0.37 | 0.33 | 0.36 | 0.41 | 0.31 | 0.33 | 0.29 |
| | 사회복지 시설수 | -1.00 | 0.34 | 0.37 | 0.28 | 0.32 | 0.41 | 0.28 | 0.30 | 0.28 | 0.36 | 0.30 | 0.31 |
| | 노인여가 복지시설수 | -3.35 | 0.37 | 0.37 | 0.35 | 0.35 | 0.33 | 0.31 | 0.28 | 0.28 | 0.29 | 0.27 | 0.26 |
| | 스트레스 인지율 | -5.57 | | | | 0.22 | 0.15 | 0.14 | 0.13 | 0.19 | 0.23 | 0.06 | 0.14 |
| 주거/환경 | 지가변동률 | -1.12 | 0.54 | 0.45 | 0.35 | -0.13 | 0.99 | 0.10 | 0.24 | 0.31 | 0.47 | 0.49 | 0.48 |
| | 1인당생활 폐기물배출량 | 3.54 | | | 0.09 | 0.10 | 0.13 | 0.14 | 0.13 | 0.10 | 0.15 | 0.11 | 0.12 |
| | 공원면적 | 6.58 | 0.34 | 0.33 | 0.32 | 0.32 | 0.27 | 0.26 | 0.26 | 0.26 | 0.26 | 0.65 | 0.65 |
| | 1인당 공원면적 | 5.94 | 0.41 | 0.42 | 0.42 | 0.42 | 0.40 | 0.40 | 0.41 | 0.42 | 0.43 | 0.74 | 0.74 |

| 부문 | 세부지표 | 연평균 증감률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교육/ 문화 | 취학률 | 1.92 | | | | | | | 0.01 | 0.01 | 0.01 | 0.01 | 0.01 |
| | 학업중단률 | 0.84 | | | | | | | 0.33 | 0.27 | 0.35 | 0.35 | 0.34 |
| | 사설학원수 | 5.54 | 0.12 | 0.15 | 0.18 | 0.15 | 0.17 | 0.19 | 0.19 | 0.18 | 0.20 | 0.20 | 0.20 |
| | 문화기반 시설수 | 0.94 | 0.37 | 0.42 | 0.33 | 0.30 | 0.35 | 0.35 | 0.35 | 0.36 | 0.42 | 0.40 | 0.41 |
| | 도서관 연간이용자수 | -8.80 | | | | | | 0.51 | 0.51 | 0.26 | 0.21 | 0.29 | 0.32 |
| | 유아보육 시설수 | -4.62 | 0.10 | 0.10 | 0.07 | 0.07 | 0.08 | 0.12 | 0.13 | 0.12 | 0.09 | 0.07 | 0.07 |
| 행재정 | 재정자립도 | 2.88 | 0.27 | 0.32 | 0.33 | 0.36 | 0.35 | 0.36 | 0.33 | 0.34 | 0.35 | 0.36 | 0.36 |
| | 재정자주도 | 7.48 | 0.05 | 0.08 | 0.07 | 0.10 | 0.09 | 0.12 | 0.11 | 0.10 | 0.10 | 0.11 | 0.10 |
| | 복지예산 비중 | -6.71 | 0.21 | 0.15 | 0.17 | 0.17 | 0.17 | 0.16 | 0.13 | 0.12 | 0.10 | 0.13 | 0.10 |



[그림 2-58] 인구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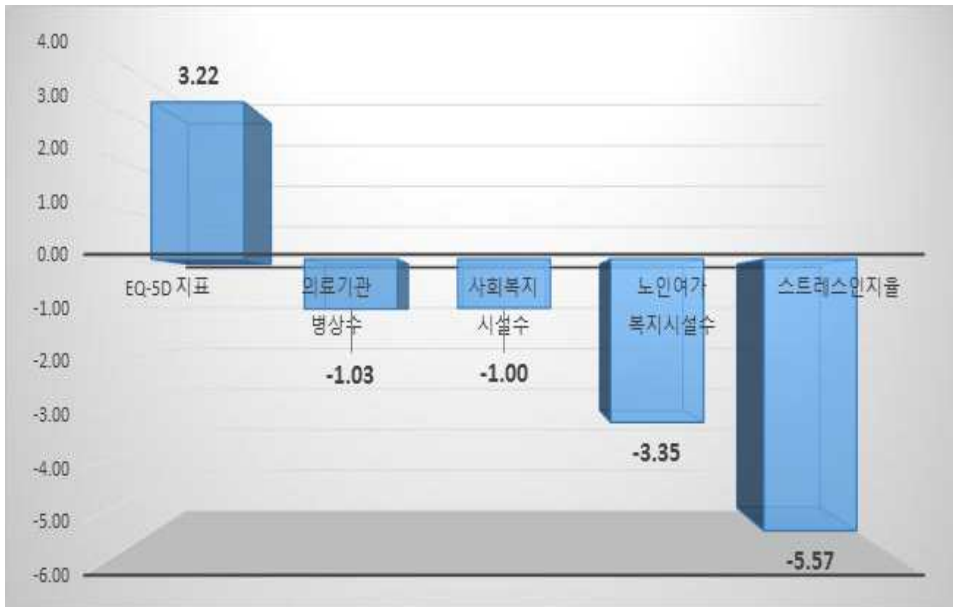
○ 인구부문의 자치구간 격차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노령화 지수와 전입 인구의 격차는 증가한 반면,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수, 천명당 외국인수, 전출인구의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이계수(CV)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표는 전출인구로 연평균 1.32%씩 감소하한 반면, 전입인구의 격차는 연평균 0.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전시 자치구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자치구(특히 유성구)에 전입인구 증가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노령화 지수의 지역격차가 연평균 0.0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이 크지는 않지만, 대전시 자치구간 노령인구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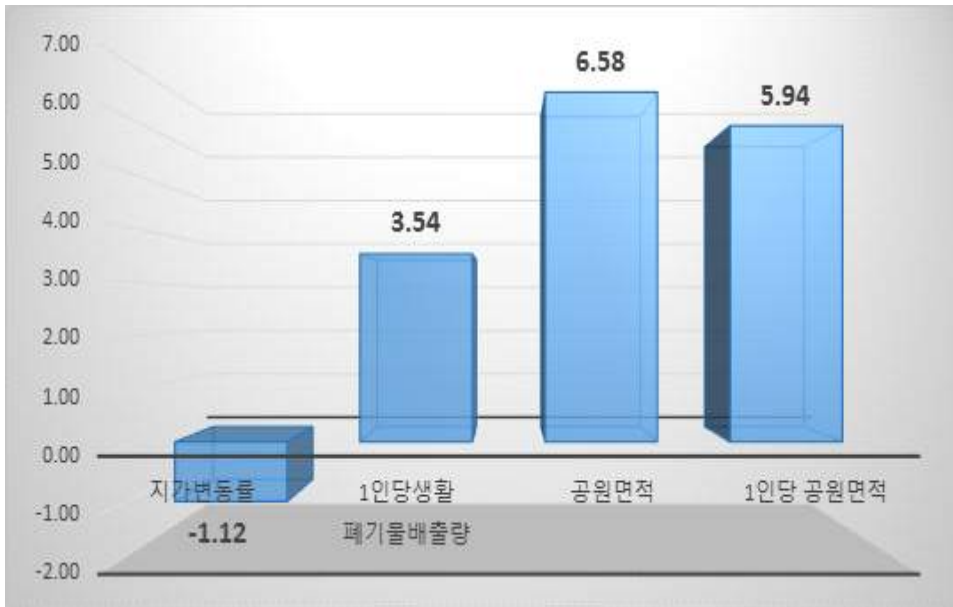
[그림 2-59] 경제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경제부문의 자치구간 격차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GRDP의 격차가 연평균 2.0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간 지역경제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이 자료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 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11개 년도치의 자료가 있는 1인당 자동차대수의 경우도 연평균 0.5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 자치구간 소득관련 경제의 격차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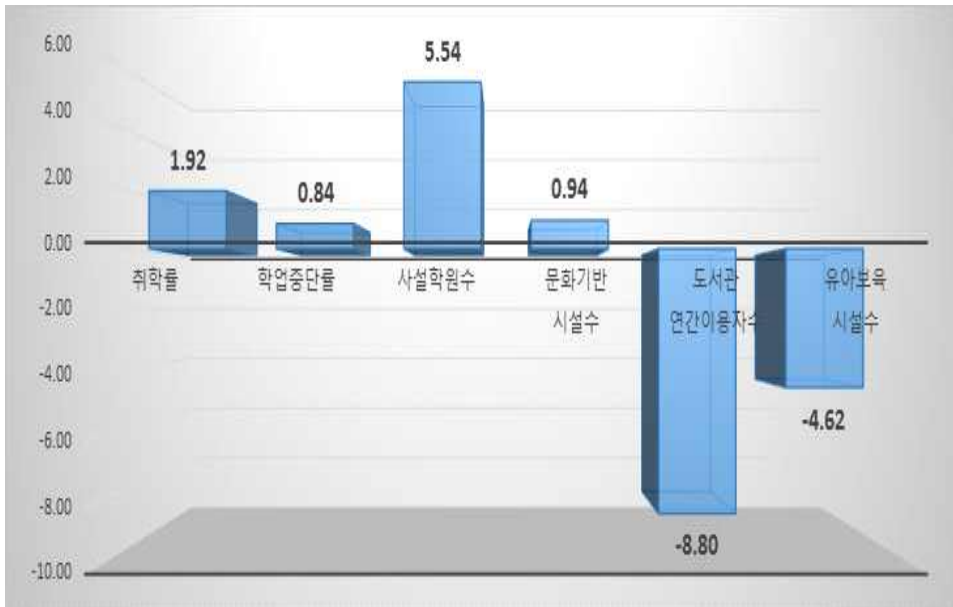
[그림 2-60] 보건/복지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보건/복지의 자치구간 격차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EQ-5D지표를 제외한 4개의 지표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시 자치구 주민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EQ-5D지표의 격차가 연평균 3.2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폭으로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전시 자치구간 의료기관 병상수(연평균 1.03% 감소)의 자치구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전시 자치구 주민건강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병상수와 같은 물리적인 지숫값의 개선 노력에 더하여 실질적인 주민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림 2-61] 주거/환경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주거/환경 부문의 자치구간 격차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지가변동률의 격차를 제외하고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의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가변동률의 경우 지가(地價)의 상승 및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므로 특정 자치구의 지가 상승 및 하락을 알 수는 없지만, 지가변동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거래량의 편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대전시 자치구간 지가변동 격차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원면적은 연평균 6.58%씩 자치구간 격차가 증가하였고, 1인당 공원면적 또한 연평균 5.94%씩 증가하여 자치구간 공원조성의 격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62] 교육/문화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교육/문화 부문의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유아보육시설의 자치구간 격차는 감소한 반면, 취학률, 학업중단률, 사설학원, 문화기반 시설수는 자치구간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설학원 수의 자치구간 격차의 증가는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지어 고려할 때, 가구소득이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유아보육시설수의 자치구간 격차가 연평균 4.6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증가하고, 유아보육의 특성상 보육대상 지역의 설립 및 운영 제약(유아를 원거리로 보내기 어려운 문제 등) 등의 이유로 유아보육시설 입지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3] 행·재정 부문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

- 행·재정 부문의 지역격차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의 자치구간 격차는 증가하고,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의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의 대전시 자치구간 격차가 연평균 7.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자치구간 재정력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에 더하여 자치구의 자율적 재정운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의 격차는 연평균 -6.71%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복지정책의 증가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6개 부문의 자치구간 격차 연평균 증감률 현황을 종합하면,
- 인구부문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수의 격차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대전시의 인구유출 문제를 감안한다면 인구 순이동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고, 노령화 지수의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인구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과 아동 교육·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노령화 지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제부문의 모든 격차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대전시 자치구간 산업경제적 특성, 자치구의 정주민구 및 가구소득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치구간 특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력이 낮은 자치구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은 EQ-5D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격차가 감소하였는데, EQ-5D지표가 대전시 자치구 주민의 실질적인 건강 및 복지를 의미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또는 양적 개선보다 대전시 자치구 주민건강에 대한 실질적 또는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 밖의 의료, 사회복지 시설의 자치구간 격차가 감소하였으므로 질적 수준에서의 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주거/환경 부문은 자가변동률을 제외하고 모두 격차가 증가하였는데, 자가변동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개입 여지가 작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린 편의시설 및 시설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1인당 생활폐기물의 격차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소득 규모 또는 소비 패턴의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경제부문의 격차 해소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교육/문화 부문은 도서관 연간이용자수, 유아보육시설수의 자치구간 격차는 감소한 반면 취학률, 학업중단률, 사설학원수, 문화기반시설수의 자치구간 격차는 증가였는데, 이 중에서 사설학원 수의 자치구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이는 주거입지의 조건이 교육문제와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자치구간 교육문제의 자족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행·재정 부분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격차가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 비중의 자치구간 격차는 감소한다는 것은 대전시 자치구간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 위임사무에 따른 복지예산의 비중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치구간 자주재원 확대를 통한 자치구별 재정운용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효과적 지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장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분석

- 1절. 변수의 구성과 측정
- 2절. 일반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3절. 거주 자치구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 4절.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장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분석

: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절. 변수의 구성과 측정

-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3-1>에 제시한 18개 변수를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을 측정한 주관적 변수(9개)와 객관적 조건을 측정한 객관적 변수(9개)를 포함함.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삶의 만족도 변수는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0점 척도로 측정함
 - 일의 가치부여 정도 변수는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0점 척도로 측정함
 - 걱정근심 정도 변수는 ‘귀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0점 척도로 측정함
 - 교육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변수는 만족의 정도(만족도 변수)를 묻는 질문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함
 - 일반화된 신뢰도 변수는 ‘만약 귀하가 집근처에서 2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 했을 때, 돈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에서 ‘매우기대한다’ 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함
 - 주관적 계층의식은 ‘귀하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그 외에 거주 자치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대전 거주기간,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황, 주거점유형태가 객관적 변수로 구성됨

[표 3-1] 변수의 구성과 측정⁸⁾

(N=1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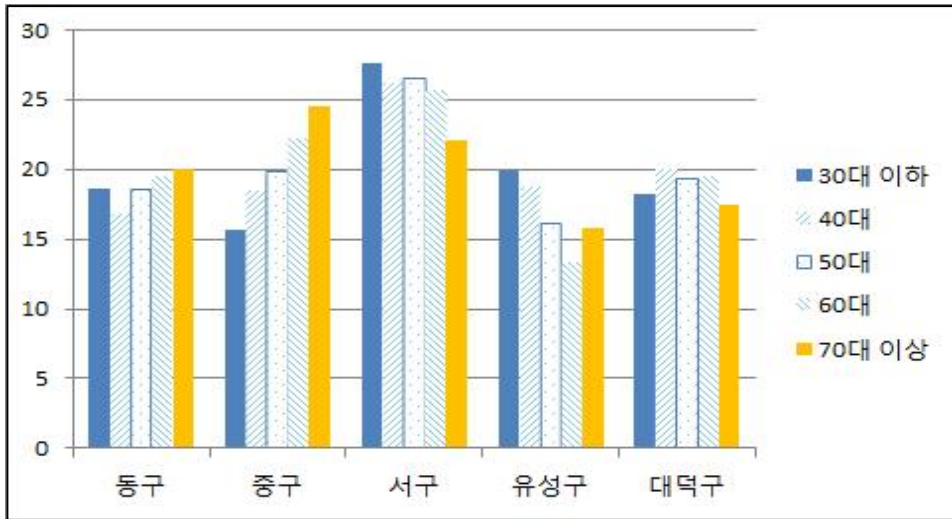
| 구분 | 변수 | 측정 |
|-------------------|------------|--|
| 주관적 요인 (9개) | 삶의 만족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⑩ 매우 그렇다 |
| | 일의 가치부여 정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⑩ 매우 그렇다 |
| | 걱정근심 정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⑩ 매우 그렇다 |
| | 교육환경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주거환경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
| | 가족관계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소비생활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일반화된 신뢰도 | ① 전혀 기대 안함 ~ ⑤ 매우 기대 |
| | 주관적 계층의식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 |
| 객관적 요인 (9개) | 거주 자치구 |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
| |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 | 연령 | 만 나이 |
| | 교육수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교 이상 |
| | 대전 거주기간 | 년 |
| | 혼인상태 | ① 미혼 ② 유배우자 ③ 사별 ④ 이혼 |
| | 월평균 가구소득 | 만 원 |
| | 노동상황 |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자영업자 ⑤ 학생 ⑥ 주부 ⑦ 무직(은퇴자 포함) |
| | 주거점유형태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및 기타 |

8) 변수의 구성과 측정은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자료를 연구에 목적에 맞게 재범주화와 하여 사용함.

2절. 일반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설문조사 응답자 총11,05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함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를 분석한 <표3-2>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성별은 여성이 52.3%로 남성의 47.7%에 비해 4.6%p 높게 나타남. 또한 자치구별로 다른 성별 분포를 보였음.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chi^2=4.54$, $p>.05$)
- 다음으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5세로 젊은 편임. 이러한 결과는 연령 분포에서 30대 이하가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다음으로는 50대가 21.4%, 40대 16.7%, 60대 12.0%, 70대 11.0% 순임
 - 연령대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3-1 참조), 동구에서는 70대 이상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대가 19.5%, 30대 이하 18.6%, 50대 18.5%, 40대 16.8% 순임
 - 중구에서는 70대 이상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대가 22.2%, 50대 19.8%, 40대 18.4%, 30대 이하 15.7% 순임. 즉,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고연령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서구에서는 30대 이하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0대가 26.5%, 40대 26.2%, 60대 25.6%, 70대 이상 22.1% 순임
 - 유성구에서는 30대 이하가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40대가 18.7%, 50대 16.0%, 70대 이상 15.8%, 60대 13.2% 순임. 즉,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연령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대덕구에서는 40대가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대 19.4%, 50대 19.2%, 30대 이하 18.2%, 60대 이상 17.5% 순임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chi^2=107.3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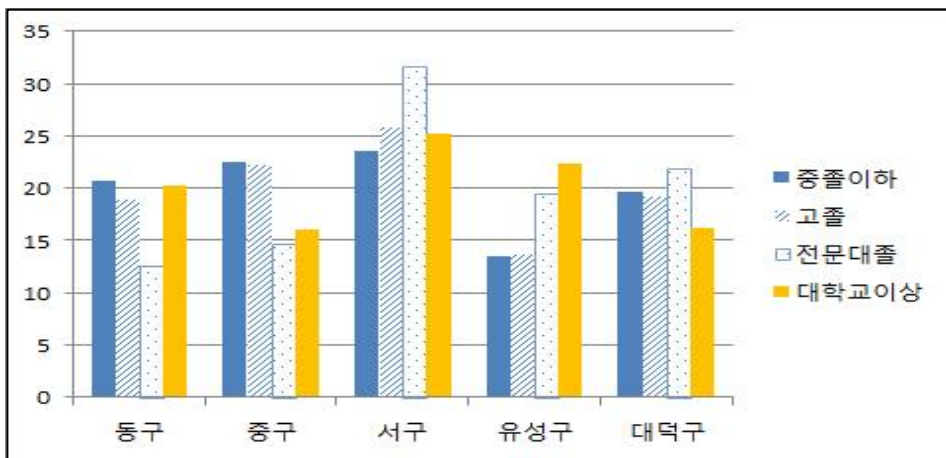


[그림 3-1] 연령대와 자치구별 차이분석

-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고졸이 32.2%, 전문대졸 17.5%, 중졸이하가 16.8%순임. 즉,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51%로 낮지 않은 편임
- 교육수준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3-2 참조), 동구에서는 중졸이하가 20.7%, 대학교 이상이 20.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18.9%, 전문대졸 12.6% 순임. 즉, 이는 동구의 주민의 연령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동구에서는 70대 이상과 30대 이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
- 중구에서는 중졸이하가 22.5%, 고졸 22.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교 이상이 16%, 전문대졸 14.6% 순임. 이는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높기 때문에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구에서는 전문대졸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25.9%, 대학교 이상 25.2%, 중졸이하 22.5% 순임

- 유성구에서는 대학교 이상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19.4%, 고졸 13.7%, 중졸이하 13.5% 순임. 즉, 유성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덕구에서는 전문대졸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19.7%, 고졸 19.3%, 대학교 이상이 16.2% 순임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chi^2=266.94,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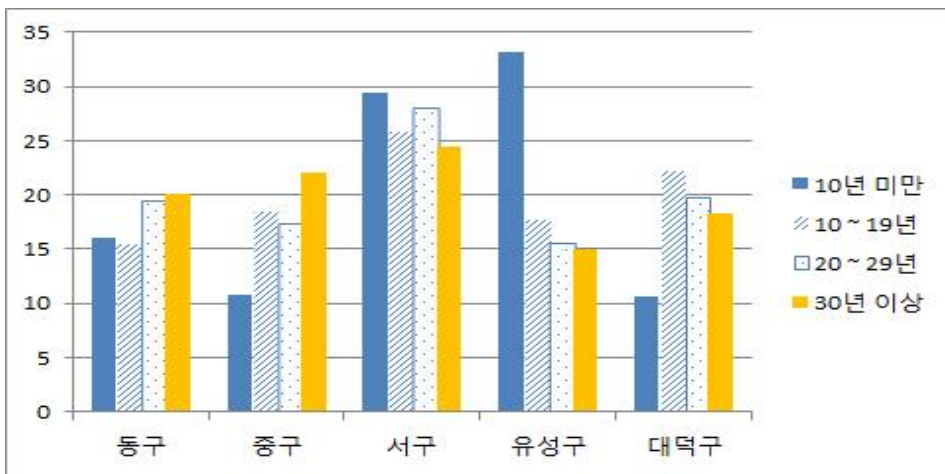


[그림 3-2] 교육수준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응답자의 대전 거주기간은 평균 27년으로, 40년 이상 거주 했다는 응답자가 40.1%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0~29년 거주가 28.2%, 10년 미만 10.2%, 10~19년 21.5% 순임
- 대전의 거주기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3-3 참조), 동구에서는 30년 이상 거주자가 20.1%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0~29년이 19.5%, 10년 미만 16.1%, 10~19년 15.5% 순임
- 중구에서는 30년 이상 거주자가 22.1%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10~19년이 18.5%, 20~29년 17.4%, 10년 미만 10.8% 순임
- 서구에서는 10년 미만이 29.4%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0~29년 28%, 10~19년 25.9%, 30년 이상 24.5% 순임

- 유성구에서는 10년 미만 33.1%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10~19년 17.8%, 20~29년 15.5%, 30년 이상이 15% 순임
- 대덕구에서는 10~19년이 22.2%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0~29년 19.7%, 30년 이상 18.3%, 10년 미만 10.6% 순임
- 즉, 20년 이상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는 동구, 중구이며 10년미만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유성구, 서구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chi^2=339.51$,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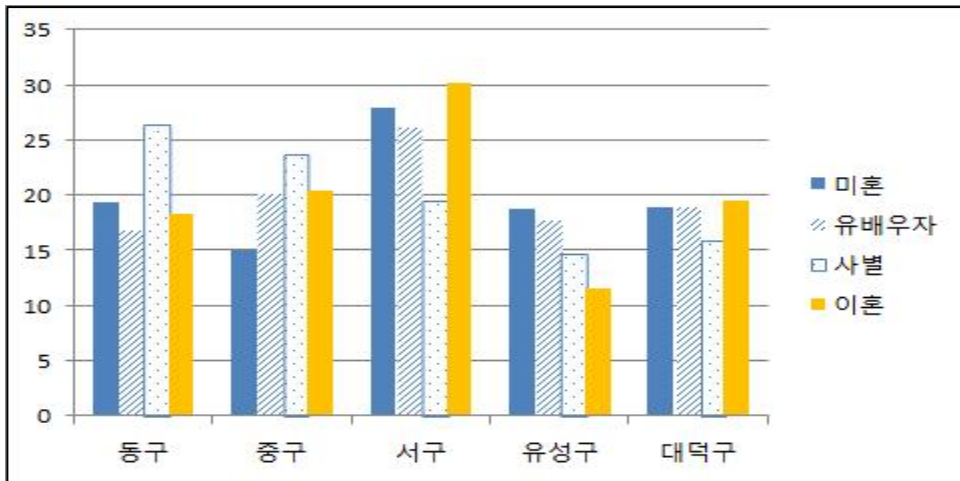


[그림 3-3] 거주기간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음이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이 31.0%, 사별 8.3%, 이혼 3.1%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3-4 참조), 동구에서는 사별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이 19.4%, 이혼 18.3%, 유배우자 16.9% 순임
- 중구에서는 사별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이 20.4%, 유배우자 20.1%, 미혼 15.0% 순임
- 서구에서는 이혼자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혼 27.9%, 유배우자 26.2%, 사별이 19.5% 순임

- 유성구에서는 미혼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배우자가 17.7%, 사별이 14.7%, 이혼이 11.5% 순임
- 대덕구에서는 이혼이 19.5%, 유배우자 19.0%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이 18.9%, 사별이 15.8% 순임
- 즉, 배우자가 사별한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와 중구이며, 서구에서는 미혼자와 이혼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성구에서는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chi^2=125.33$, $p<.001$)

(단위: %)



[그림 3-4] 혼인상태와 자치구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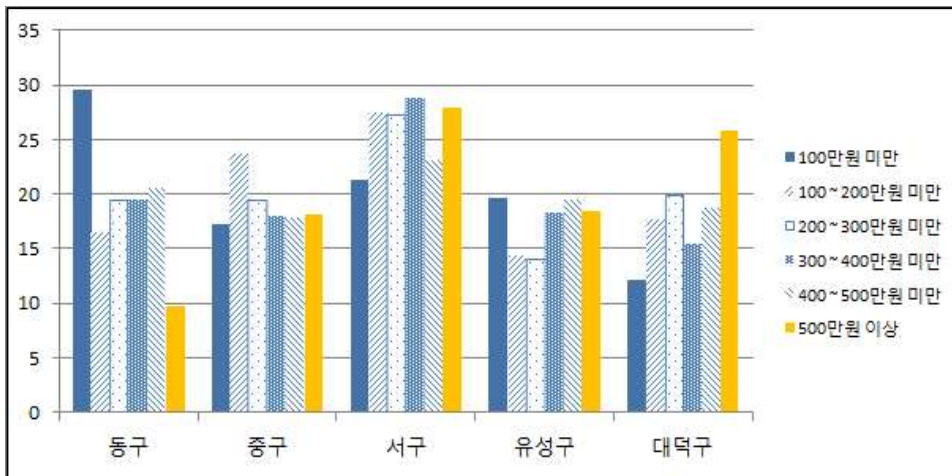
[표 3-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단위: 명(%))

| 변수 | 범주 | 자치구 | | | | | | | 검증 |
|---------|----------|-------------|-------------|-------------|-------------|-------------|-------------|-----|---------------------------|
| |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합계 | | |
| | | | | | |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성 | 980(18.6) | 969(18.4) | 1,359(25.8) | 948(18.0) | 1,017(19.3) | 5,273(47.7) | 100 | $\chi^2=4.54$ p>.05 |
| | 여성 | 1,070(18.5) | 1,112(19.2) | 1,549(26.8) | 996(17.2) | 1,057(18.3) | 5,784(52.3) | 100 | |
| 연령대 | 30대 이하 | 798(18.6) | 677(15.7) | 1,189(27.6) | 854(19.9) | 789(18.2) | 4,301(38.9) | 100 | $\chi^2=107.33$ p<.001 |
| | 40대 | 310(16.8) | 340(18.4) | 489(26.2) | 344(18.7) | 366(19.9) | 1,843(16.7) | 100 | |
| | 50대 | 438(18.5) | 469(19.8) | 627(26.5) | 379(16.0) | 455(19.2) | 2,368(21.4) | 100 | |
| | 60대 | 259(19.5) | 295(22.2) | 340(25.6) | 175(13.2) | 257(19.4) | 1,326(12.0) | 100 | |
| | 70대 이상 | 245(20.1) | 300(24.6) | 269(22.1) | 192(15.8) | 213(17.5) | 1,219(11.0) | 100 | |
| 교육수준 | 중졸이하 | 385(20.7) | 417(22.5) | 439(23.6) | 251(13.5) | 365(19.7) | 1,857(16.8) | 100 | $\chi^2=266.94$ p<.001 |
| | 고졸 | 671(18.9) | 789(22.2) | 922(25.9) | 489(13.7) | 687(19.3) | 3,358(32.2) | 100 | |
| | 전문대졸 | 244(12.6) | 283(14.6) | 613(31.6) | 377(19.4) | 423(21.8) | 1,940(17.5) | 100 | |
| | 대학교이상 | 750(20.3) | 592(16.0) | 934(25.2) | 827(22.3) | 599(16.2) | 3,702(33.5) | 100 | |
| 대전 거주기간 | 10년 미만 | 182(16.1) | 122(10.8) | 333(29.4) | 374(33.1) | 120(10.6) | 1,131(10.2) | 100 | $\chi^2=339.51$ p<.001 |
| | 10 ~ 19년 | 368(15.5) | 440(18.5) | 615(25.9) | 423(17.8) | 528(22.2) | 2,374(21.5) | 100 | |
| | 20 ~ 29년 | 608(19.5) | 541(17.4) | 872(28.0) | 482(15.5) | 614(19.7) | 3,117(28.2) | 100 | |
| | 30년 이상 | 892(20.1) | 978(22.1) | 1,088(24.5) | 665(15.0) | 812(18.3) | 4,435(40.1) | 100 | |
| 혼인상태 | 미혼 | 667(19.4) | 514(15.0) | 959(27.9) | 642(18.7) | 650(18.9) | 3,432(31.0) | 100 | $\chi^2=125.33$ p<.001 |
| | 유배우자 | 1,080(16.9) | 1,282(20.1) | 1,669(26.2) | 1,129(17.7) | 1,214(19.0) | 6,374(57.6) | 100 | |
| | 사별 | 241(26.4) | 216(23.7) | 178(19.5) | 134(14.7) | 144(15.8) | 913(8.3) | 100 | |
| | 이혼 | 62(18.3) | 69(20.4) | 102(30.2) | 39(11.5) | 66(19.5) | 338(3.1) | 100 | |

2. 경제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및 자치구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3-3>과 같음
- 먼저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2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500만원 이상이 19.8%, 400~500만원 미만 18.9%, 200~300만원 미만 16.7%, 100만원 미만 11.1%, 100~200만원 미만 11.0%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3-5 참조), 동구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400~500만원 미만 20.6%, 300~400만원 미만 19.5%, 200~300만원 미만 19.4%, 100~200만원 미만 16.5% 순임
 - 중구에서는 100~200만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00~300만원 미만 19.5%, 500만원 이상 18.1%, 300~400만원 미만 18%, 400~5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미만 17.3% 순임
 - 서구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00만원 이상 27.9%, 100~200만원 미만 27.5%, 200~300만원 미만 27.2%, 400~500만원 미만 23.2%, 100만원 미만 21.3% 순임
 - 유성구에서는 100만원 미만 19.6%, 400~500만원 미만 19.5%, 500만원 이상 18.5%, 300~400만원 미만 18.3%, 100~200만원 미만 14.4%, 200~300만원 14% 순임
 - 대덕구에서는 500만원 이상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00~300만원 19.9%, 400~500만원 미만 18.8%, 100~200만원 17.8%, 300~400만원 15.4%, 100만원 미만 12.2% 순임
 - 즉,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많은 자치구는 동구이며, 100~200만원 비중은 중구, 300만원 이상 비중은 유성구, 500만원 이상의 비중은 대덕구, 서구에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chi^2=360.0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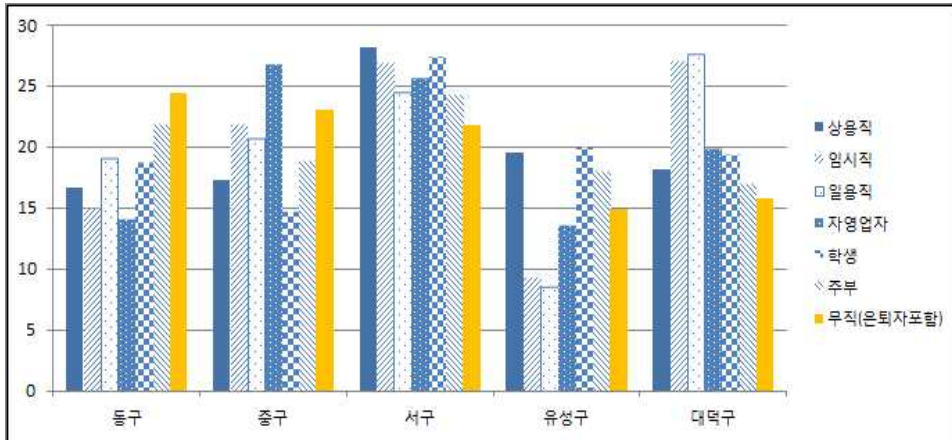


[그림 3-5] 월평균가구소득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응답자의 현재 노동상황은 상용직이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부가 17.5%, 학생 17.0%, 자영업자 7.6%, 임시직 5.1%, 일용직 2.9%순임
- 현재 노동상황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3-6 참조), 동구에서는 무직자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주부가 21.9%, 일용직 19%, 학생 18.7%, 상용직 16.7%, 임시직 14.9%, 자영업자 14.1%순임
- 중구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무직자가 23.1%, 임시직 21.9%, 일용직 20.6%, 주부 18.9%, 상용직 17.3%, 학생 14.7% 순임
- 서구에서는 상용직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생 27.4%, 임시직 26.9%, 자영업자 25.6%, 일용직 24.4%, 주부 24.2%, 무직자 21.8% 순으로 나타남
- 유성구에서는 상용직이 28.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생이 27.4%, 임시직 26.9%, 자영업자 25.6%, 일용직 24.4%, 주부 24.2% 순임
- 대덕구에서는 일용직이 27.5%, 임시직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19.9%, 학생 19.3%, 상용직 18.2%, 주부 17%, 무직 15.8% 순임

- 즉, 동구에서는 무직자와 주부가, 중구에서는 자영업자가, 서구에서는 상용직, 임시직과 학생, 유성구에서는 상용직과 학생, 대덕구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chi^2=251.22$,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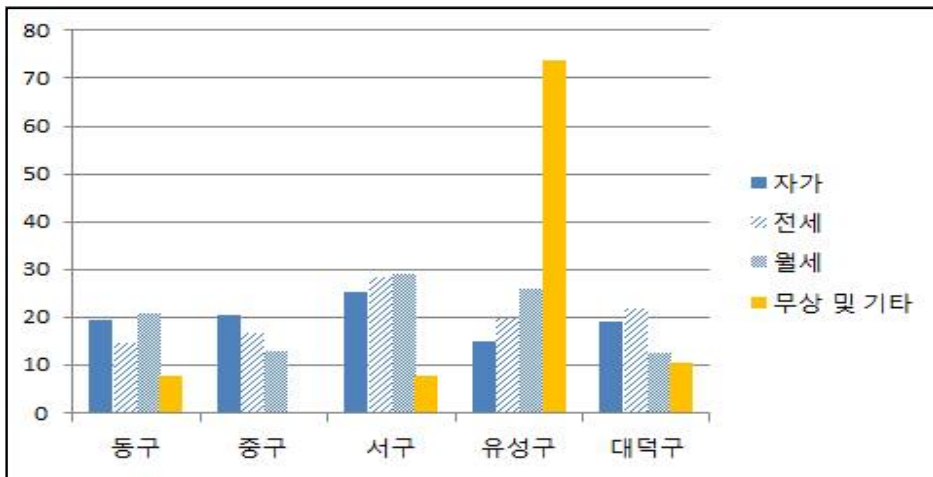
[그림 3-6] 노동상황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 응답자의 주거점유 형태는 자가소유가 6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전세가 20.3%, 월세가 12.3%, 무상 및 기타가 0.3% 순으로 나타남
- 주거점유 형태와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3-7 참조), 동구에서는 월세가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자가 19.5%, 전세 14.3%, 무상 및 기타 7.9% 순임
- 중구에서는 자가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세가 16.5%, 월세 12.7% 순으로 나타남
- 서구에서는 월세가 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세가 28.1%, 자가 25.4%, 무상 및 기타 7.9%순임
- 유성구에서는 월세가 25.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세가 19.7%, 자가 15.2% 순임⁹⁾

9) 유성구의 무상 및 기타 비율은 7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빈도수는 28개로 낮은 수치를 보임.

- 대덕구에서는 전세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가 19.1%, 월세가 12.2%, 무상 및 기타 10.5% 순임
- 즉, 동구에서는 자가소유와 월세가, 중구에서는 자가소유가, 유성구에서는 월세와 전세가, 대덕구에서는 전세와 자가소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동구와 중구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 집값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chi^2=286.61$,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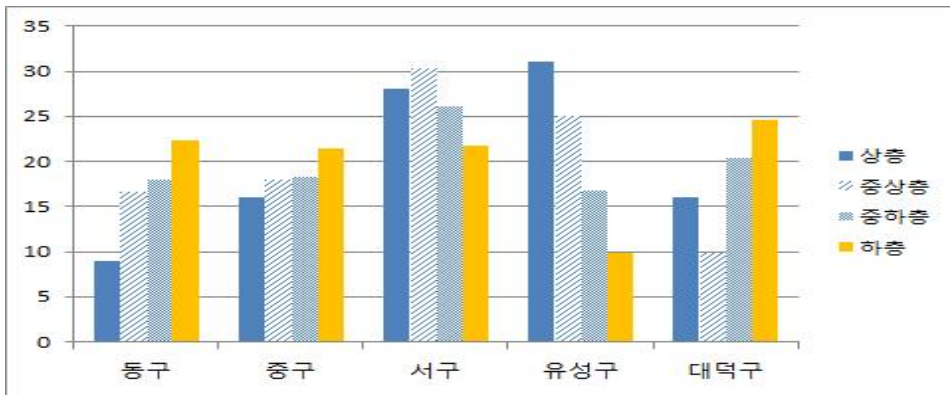


[그림 3-7] 주거점유 형태와 자치구별 차이분석

- ‘귀하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중상층 23.8%, 하층 19.8%, 상층 0.9% 순임. 즉, 중상층을 중산층으로 이해할 때, 응답자들의 75.3%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그림3-8 참조), 동구에서는 하층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하층 18.1%, 중상층이 16.7%, 상층이 9% 순임

- 중구에서는 하층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층이 18.3%, 중상층 18%, 상층이 16% 순임
- 서구에서는 중상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상층이 28%, 중하층 26.2%, 하층 21.7%순임
- 유성구에서는 상층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상층 25.1%, 중하층 16.9%, 하층 9.9%순임
- 대덕구에서는 하층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하층이 20.5%, 상층 16%, 중상층이 9.9% 순임
- 즉, 동구와 중구에서는 하층,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상층과 중상층, 대덕구에서는 중하층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chi^2=402.86$, $p<.001$)

(단위: %)



[그림 3-8]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치구별 차이분석

[표 3-3]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과 자치구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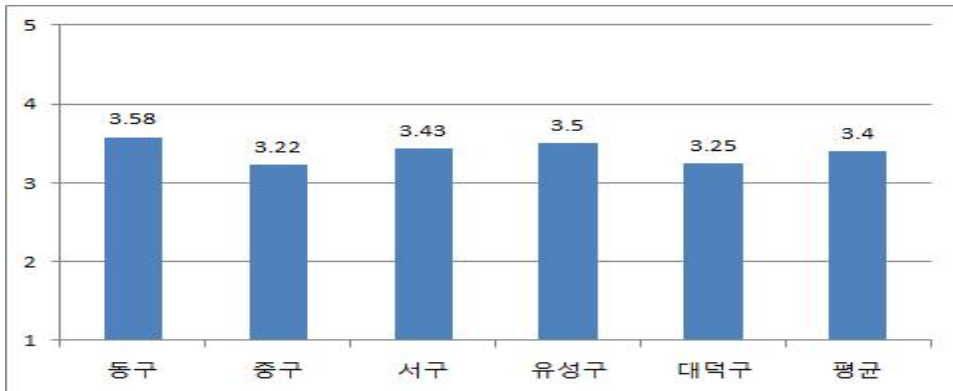
(단위: 명(%))

| 변수 | 범주 | 자치구 | | | | | | | 검증 |
|-------------|----------------|-------------|-------------|-------------|-------------|-------------|-------------|-----|---------------------------|
| |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합계 | | |
| | | | | | | | 빈도 | 비율 |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362(29.6) | 212(17.3) | 261(21.3) | 240(19.6) | 150(12.2) | 1,225(11.1) | 100 | $\chi^2=360.04$ p<.001 |
| | 100 ~ 200만원 미만 | 200(16.5) | 288(23.8) | 333(27.5) | 175(14.4) | 216(17.8) | 1,212(11.0) | 100 | |
| | 200 ~ 300만원 미만 | 357(19.4) | 359(19.5) | 500(27.2) | 258(14.0) | 367(19.9) | 1,841(16.7) | 100 | |
| | 300 ~ 400만원 미만 | 487(19.5) | 451(18.0) | 719(28.8) | 458(18.3) | 384(15.4) | 2,499(22.6) | 100 | |
| | 400 ~ 500만원 미만 | 431(20.6) | 375(17.9) | 486(23.2) | 408(19.5) | 394(18.8) | 2,094(18.9) | 100 | |
| | 500만원 이상 | 213(9.7) | 396(18.1) | 609(27.9) | 405(18.5) | 563(25.8) | 2,186(19.8) | 100 | |
| 노동상황 | 상용직 | 723(16.7) | 752(17.3) | 1,225(28.2) | 850(19.6) | 790(18.2) | 4,340(39.3) | 100 | $\chi^2=251.22$ p<.001 |
| | 임시직 | 84(14.9) | 123(21.9) | 151(26.9) | 52(9.3) | 152(27.0) | 562(5.1) | 100 | |
| | 일용직 | 60(19.0) | 65(20.6) | 77(24.4) | 27(8.5) | 87(27.5) | 316(2.9) | 100 | |
| | 자영업자 | 118(14.1) | 255(26.8) | 215(25.6) | 114(13.6) | 167(19.9) | 839(7.6) | 100 | |
| | 학생 | 350(18.7) | 275(14.7) | 513(27.4) | 375(20.0) | 362(19.3) | 1,875(17.0) | 100 | |
| | 주부 | 428(21.9) | 367(18.9) | 469(24.2) | 349(18.0) | 329(17.0) | 1,939(17.5) | 100 | |
| | 무직(은퇴자포함) | 290(24.5) | 274(23.1) | 258(21.8) | 177(14.9) | 187(15.8) | 1,186(10.7) | 100 |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1,452(19.5) | 1,543(20.7) | 1,892(25.4) | 1,134(15.2) | 1,423(19.1) | 7,444(67.3) | 100 | $\chi^2=286.61$ p<.001 |
| | 전세 | 321(14.3) | 370(16.5) | 631(28.1) | 442(19.7) | 485(21.6) | 2,249(20.3) | 100 | |
| | 월세 | 274(20.7) | 168(12.7) | 382(28.8) | 340(25.6) | 162(12.2) | 1,326(12.0) | 100 | |
| | 무상 및 기타 | 3(7.9) | 0 | 3(7.9) | 28(73.7) | 4(10.5) | 38(0.3) | 100 | |
| 주관적 계층의식 | 상층 | 9(9.0) | 16(16.0) | 28(28.0) | 31(31.0) | 16(16.0) | 100(0.9) | 100 | $\chi^2=402.86$ p<.001 |
| | 중상층 | 440(16.7) | 474(18.0) | 797(30.3) | 661(25.1) | 261(9.9) | 2,633(23.8) | 100 | |
| | 중하층 | 1,111(18.1) | 1,121(18.3) | 1,609(26.2) | 1,036(16.9) | 1,259(20.5) | 6,136(55.5) | 100 | |
| | 하층 | 490(22.4) | 470(21.5) | 474(21.7) | 216(9.9) | 538(24.6) | 2,188(19.8) | 100 | |

3절. 거주 자치구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 본 연구는 거주 자치구에 따른 대전시민의 일상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표3-6>과 같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거주자치구 별 대전시민의 일상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먼저 교육환경 만족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9 참조), 동구의 응답자가 3.58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유성구 3.5점, 서구 3.43점, 대덕구 3.25점, 중구 3.22점 순임. 즉, 대덕구와 중구가 전체 평균점수 3.40점 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이러한 차이는 자치구별 교육산업의 활성화의 정도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자치구별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표3-4 참조), 2010년 기준으로 동구가 14.01%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유성구가 10.68%, 서구 9.83%, 중구 8.91%, 대덕구 5.36% 순임
 - 이러한 교육산업의 활성화 정도는 응답자의 교육만족도의 순위와 유사함. 하지만 중구의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단위: 점)



[그림 3-9] 자치구별 교육만족도의 차이분석

[표 3-4] 자치구별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의 변화

(단위: 십억원, %)

| 자치구 | 2000 | 2005 | 2010 | 2010년 기준 | |
|-----|------|------|------|------------------------|---------|
| | | | | 부가가치 비중 ¹⁰⁾ | 연평균 상승률 |
| 동구 | 176 | 253 | 348 | 14.01 | 7.06 |
| 중구 | 125 | 260 | 337 | 8.91 | 10.44 |
| 서구 | 233 | 501 | 657 | 9.83 | 10.90 |
| 유성구 | 308 | 468 | 678 | 10.68 | 8.22 |
| 대덕구 | 106 | 225 | 270 | 5.36 | 9.76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대전광역시(2016), 산업구조의 변화(118-119)의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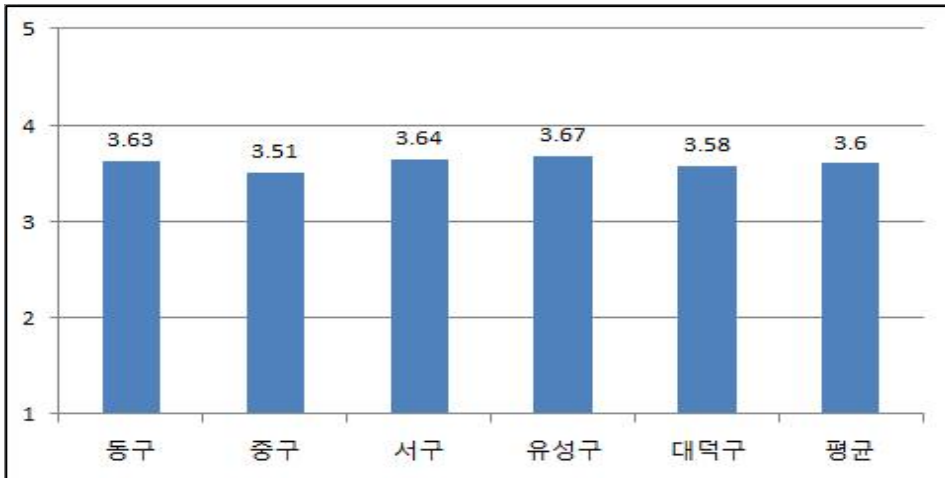
○ 다음으로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10 참조), 유성구가 3.6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서구가 3.64점, 동구 3.63점, 대덕구 3.58점, 중구 3.51점 순임. 그리고 평균점수는 3.60점임. 즉, 주거환경 만족도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곳은 대덕구와 중구임

- 대덕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대전의 대표 휴양지인 계족산과 뿌리공원, 대전 오-월드 공원 등이 위치해 있지만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반면에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근린공원 등만이 조성되어 있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주거환경 만족도에는 자연환경이나 공원뿐만이 아닌, 공단과 같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여부와 건물,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의 낙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¹¹⁾

10) 여기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은 자치구내의 다양한 경제활동 중에서 교육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11)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2014)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은 중구와 대덕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단위: 점)



[그림 3-10] 자치구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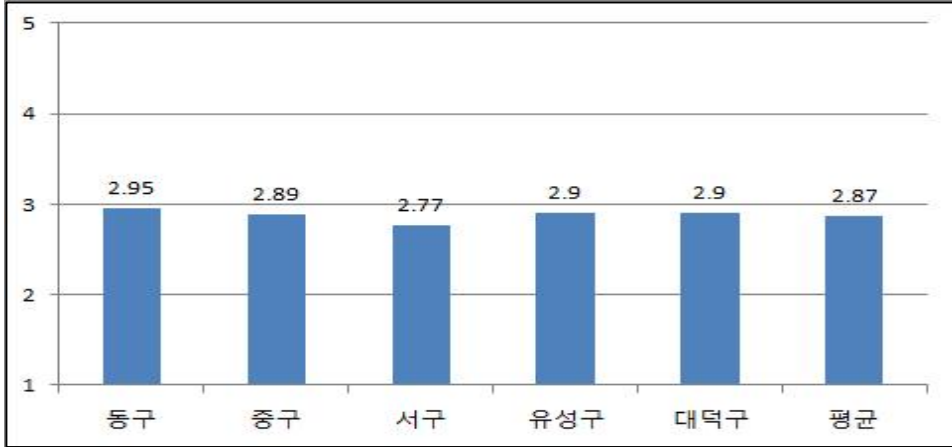
○ 다음으로 소비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11 참조), 동구가 2.9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2.9점, 중구 2.89점, 서구가 2.77점 순임. 즉,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평균점수 2.90점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서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낮게 나타남

- 소비생활 만족도를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소득수준, 학력, 결혼상태, 노동상태, 주거점유 형태였음¹²⁾
- 소비생활만족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지만, 500만원 이상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음
-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노동상태별로는 상용직> 자영업자> 학생> 주부> 무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또한 주거점유 형태에서는 자가소유> 전세> 월세> 무상 및 기타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12) 자치구별로 소비생활 만족도와 소득수준, 학력, 결혼상태, 노동상황, 주거점유 형태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 검증함.

-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서구에서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서구의 응답자들은 500만 원 이상, 전문대 졸, 이혼자, 임시직의 비중이 타 자치구보다 높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주거점유 형태에서 자가소유 보다는 전·월세의 비중이 높는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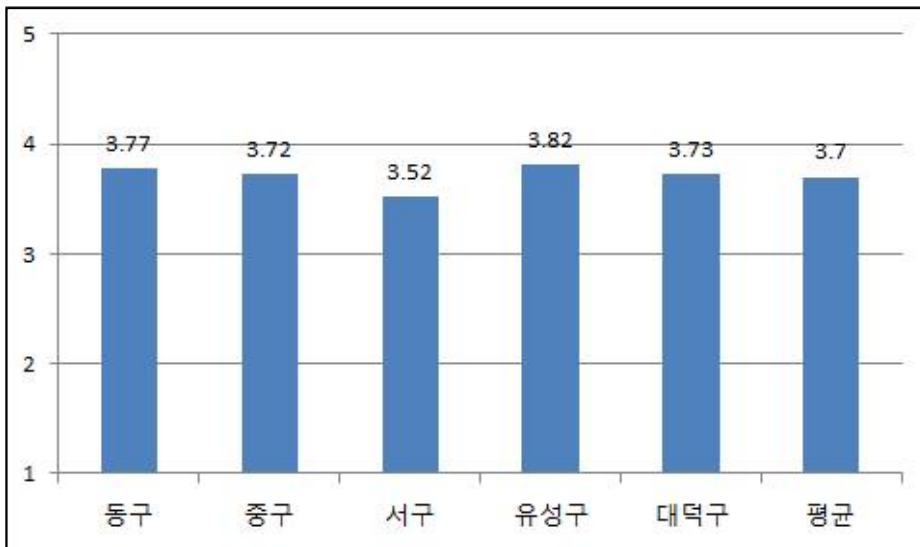


[그림 3-11] 자치구별 소비생활 만족도의 차이분석

- 다음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12 참조), 유성구가 3.82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동구가 3.77점, 대덕구 3.73점, 중구 3.72점, 서구 3.52점 순임. 즉, 서구가 평균점수 3.7점 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혼인상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구의 응답자들은 이혼자의 비중이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¹³⁾

13) 가족관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혼인상태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았음.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지만 500만원 이상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노동상태별로는 학생> 자영업자,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주부> 무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하지만 서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결과와는 상반되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혼인상태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 즉,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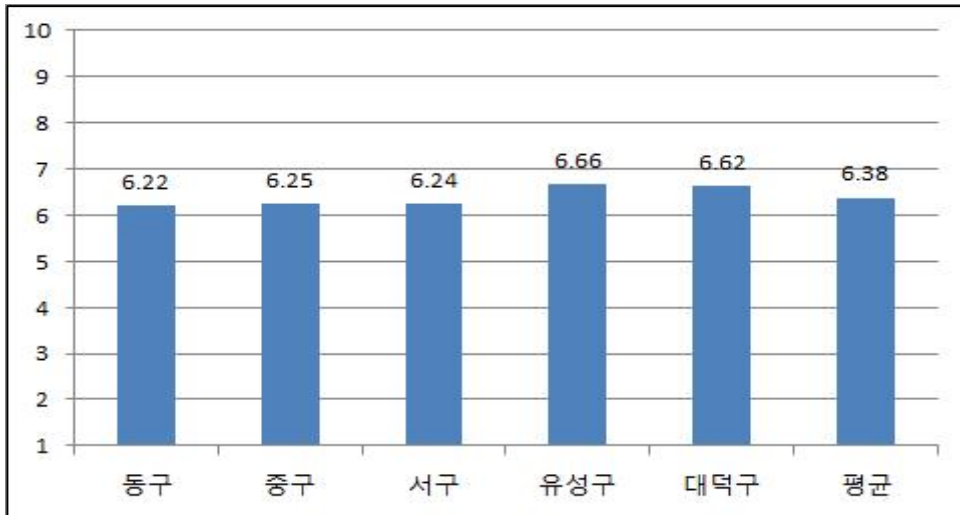


[그림 3-12] 자치구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분석

- 다음으로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 (그림3-13 참조), 유성구가 6.66점으로 자기일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대덕구 6.62점, 중구 6.25점, 서구 6.24점, 동구 6.22점 순임. 즉,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를 낮게 부여하고 있는 편으로 전체 평균점수 6.38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서구, 동구임
- 이러한 이유는 동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고연령층, 저학력자, 무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때문이며 서구의 경우에는 100~200만원 미만, 임시직과 주부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됨¹⁴⁾

14) 일의 가치부여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태임.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치부여도는 높게 나타남.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치부여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100~200만원 미만'이 '100만원 미만'보다 더 가치부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노동상태별로는 상용직> 학생> 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 주부> 무직 순으로 가치부여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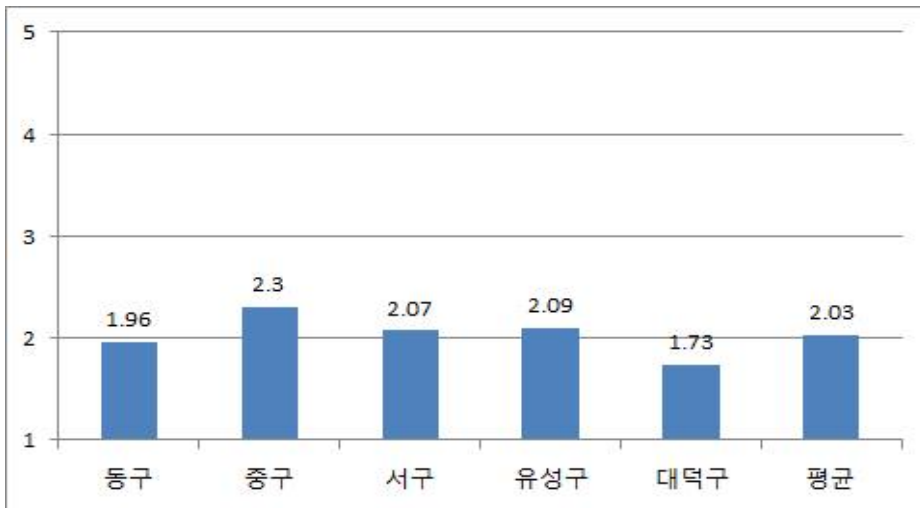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3-13] 자치구별 일의 가치부여 정도의 차이분석

- 일반화된 신뢰도에 따른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14 참조), 중구가 2.3점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유성구 2.09점, 서구 2.07점, 동구 1.96점, 대덕구 1.73점 순임. 즉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03점으로 매우 낮음. 이 중에서도 동구와 대덕구가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이러한 이유는 동구의 경우에는 고연령층, 저학력자, 무직자,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됨. 즉, 이들의 사회적 기대와 신뢰가 낮다고 해석 할 수 있음
 - 반면에 대덕구의 경우에는, 동구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신뢰도가 자치구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대덕구의 응답자들의 노동상황과 일반화된 신뢰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용직을 비롯한 임시, 일용, 자영업자 등 모두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낮은 신뢰도를 보임. 즉, 설문조사 결과로는 파악되지 않은 다른 특징(예를 들면, 고용불안 등)이 대덕구내에 내재된 것에 따른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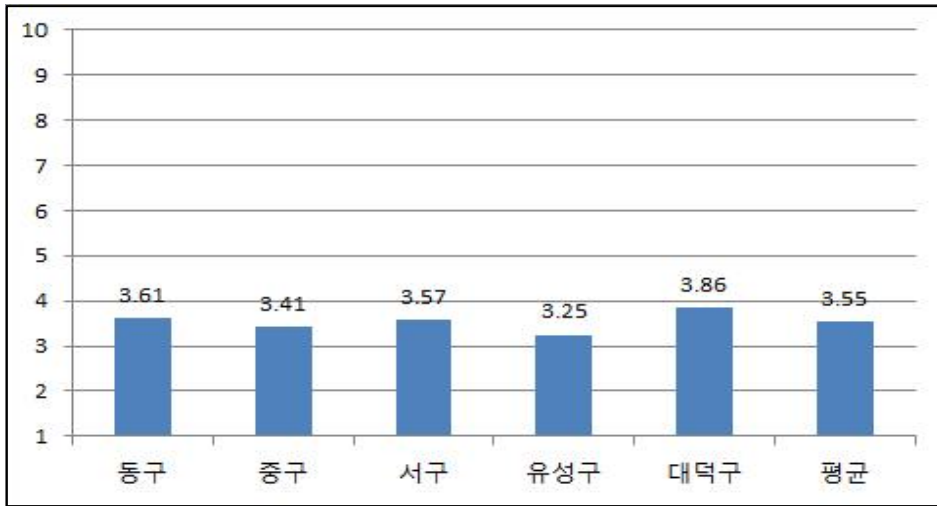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3-14] 자치구별 일반화된 신뢰도의 차이분석

- 걱정근심의 정도와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15 참조), 대덕구가 3.86점으로 가장 걱정근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동구가 3.61점, 서구 3.57점, 중구 3.41점, 유성구 3.25점 순임. 즉, 걱정근심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3.55점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자치구는 유성구임
 -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대덕구의 경우에는, 현재 노동상황에서 주부> 학생>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무직> 자영업자 순으로 걱정근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그 정도도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표3-5 참조)
 - 유성구에서는 임시직> 무직> 주부> 상용직> 일용직> 학생> 자영업자 순서로 걱정근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3-5 참조). 즉, 이는 대덕구와는 다른 경향으로 대덕구의 주부와 학생들이 유성구와 비교할 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점)



[그림 3-15] 자치구별 걱정근심 정도의 차이분석

[표 3-5] 대덕구와 유성구의 걱정근심 정도의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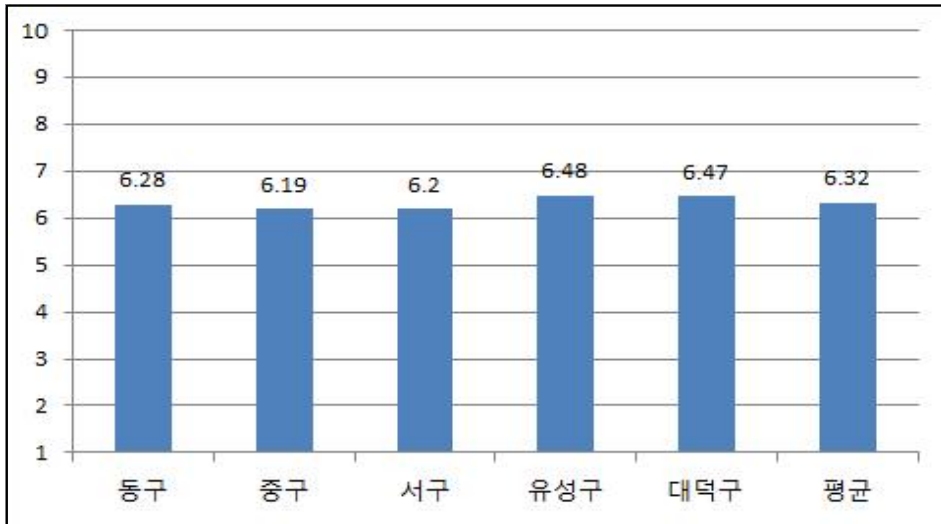
(단위: 빈도, 점)

| 노동상황 | 대덕구 | | 유성구 | |
|------------|-------|------|-------|------|
| | 빈도 | 점수 | 빈도 | 점수 |
| 상용직 | 790 | 3.79 | 850 | 3.25 |
| 임시직 | 152 | 3.72 | 52 | 3.65 |
| 일용직 | 87 | 3.97 | 27 | 3.07 |
| 자영업자 | 167 | 3.60 | 114 | 3.04 |
| 학생 | 362 | 4.03 | 375 | 3.06 |
| 주부 | 329 | 4.12 | 349 | 3.36 |
| 무직(은퇴자 포함) | 187 | 3.71 | 177 | 3.49 |
| 합계 | 2,074 | 3.86 | 1,944 | 3.25 |

○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의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하면(그림3-16 참조), 유성구와 대덕구가 6.48점, 6.4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동구 6.28점, 중구 6.19점, 서구 6.2점 순임. 즉,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6.32점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동구, 서구, 중구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노동상황
- 즉,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 미혼>이혼>사별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노동상황별로는 상용직>학생, 자영업자>일용직>임시직>주부>무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단위: 점)



[그림 3-16] 자치구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분석

[표 3-6] 응답자의 거주 자치구와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 변수 | 범주 | 빈도 | 평균점수 | 검증결과 | 자유도 |
|----------|-----|--------|------|---------------------|-----------------|
| 교육환경 만족도 | 동구 | 2,050 | 3.58 | F=80.66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3.22 | | |
| | 서구 | 2,908 | 3.43 | | |
| | 유성구 | 1,944 | 3.50 | | |
| | 대덕구 | 2,074 | 3.25 | | |
| | 합계 | 11,507 | 3.40 | | |
| 주거환경 만족도 | 동구 | 2,050 | 3.63 | F=15.37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3.51 | | |
| | 서구 | 2,908 | 3.64 | | |
| | 유성구 | 1,944 | 3.67 | | |
| | 대덕구 | 2,074 | 3.58 | | |
| | 합계 | 11,057 | 3.60 | | |
| 소비생활 만족도 | 동구 | 2,050 | 2.95 | F=22.10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2.89 | | |
| | 서구 | 2,908 | 2.77 | | |
| | 유성구 | 1,944 | 2.90 | | |
| | 대덕구 | 2,074 | 2.90 | | |
| | 합계 | 11,057 | 2.87 | | |
| 가족관계 만족도 | 동구 | 2,050 | 3.77 | F=64.66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3.72 | | |
| | 서구 | 2,908 | 3.52 | | |
| | 유성구 | 1,944 | 3.82 | | |
| | 대덕구 | 2,074 | 3.73 | | |
| | 합계 | 11,057 | 3.70 | | |
| 일의 가치부여 | 동구 | 2,050 | 6.22 | F=45.51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6.25 | | |
| | 서구 | 2,908 | 6.24 | | |
| | 유성구 | 1,944 | 6.66 | | |
| | 대덕구 | 2,074 | 6.62 | | |
| | 합계 | 11,507 | 6.38 | | |
| 일반화된 신뢰 | 동구 | 2,050 | 1.96 | F=101.52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2.30 | | |
| | 서구 | 2,908 | 2.07 | | |
| | 유성구 | 1,944 | 2.09 | | |
| | 대덕구 | 2,074 | 1.73 | | |
| | 합계 | 11,057 | 2.03 | | |
| 걱정근심 정도 | 동구 | 2,050 | 3.61 | F=36.32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3.41 | | |
| | 서구 | 2,908 | 3.57 | | |
| | 유성구 | 1,944 | 3.25 | | |
| | 대덕구 | 2,074 | 3.86 | | |
| | 합계 | 11,057 | 3.55 | | |
| 삶의 만족도 | 동구 | 2,050 | 6.28 | F=20.27 p<0.001 | df=4, 11,052 |
| | 중구 | 2,081 | 6.19 | | |
| | 서구 | 2,908 | 6.20 | | |
| | 유성구 | 1,944 | 6.48 | | |
| | 대덕구 | 2,074 | 6.47 | | |
| | 합계 | 11,057 | 6.32 | | |

4절.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 자치구, 일의 가치부여 정도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
-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7>과 같음. 먼저 회귀가정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잔차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52에서 1.66사이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회귀모델 1

-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1에 따르면, 대전 거주기간,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황, 주거점유형태, 교육 환경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걱정근심 정도, 일반화된 신뢰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2.1%임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음($\beta = -.076$, $p < .001$)
 -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서 전문대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음($\beta = .05$, $p < .001$)
 - 유배우자와 비교해서 미혼자가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beta = -.063$, $p < .001$), 유배우자와 비교해서 사별자($\beta = -.02$, $p < .05$), 이혼자($\beta = -.02$, $p < .05$)도 삶의 만족도가 낮았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beta = .049$, $p < .001$)
 - 상용직과 비교해서 학생($\beta = .049$, $p < .001$)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용직과 비교해서 주부($\beta = -.039$, $p < .001$)와 무직자($\beta = -.031$, $p < .01$)가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주거의 자가소유 응답자와 비교해서 전세자가 삶의 만족도가 높음($\beta=.034$, $p<.001$)
 -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beta=-.018$, $p<.05$)
 -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beta=.071$, $p<.001$)
 -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음($\beta=.042$, $p<.001$)
 -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beta=.190$, $p<.001$)
 - 걱정 및 근심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beta=-.417$, $p<.001$)
 -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beta=-.067$, $p<.001$)
- 이러한 결과는 걱정근심의 정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냄

2. 회귀모델 2

- 다음으로 모델1에 거주 자치구 변수를 추가하여 모델2를 구성하여 분석함.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명력은 모델1에 비해서 0.5%p 증가하여 32.6%였으며 분석모델은 유의미하게 나타남($F=184.32$, $p<.001$)
- 모델2에서는 모델1과 같이 대전거주기간, 교육수준,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황, 주거점유형태, 주거환경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걱정근심 정도, 일반화된 신뢰도 변수에서 동일하게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남
- 다만 새롭게 추가한 거주 자치구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¹⁵⁾ 구체적으로 중구거주자와 비교해서 대덕구($\beta=.089$, $p<.001$), 동구($\beta=.033$, $p<.01$), 유성구($\beta=.026$, $p<.01$), 서구($\beta=.21$,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

15) 회귀분석에서는 거주 자치구의 기준변수를 중구로 설정함. 이러한 이유는 앞서 분산분석의 결과, 중구가 타 지역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함.

- 하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변화가 발견됐는데,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일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beta=.018$, $p<.05$). 하지만 모델1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교육만족도가 거주 자치구 변수를 추가하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거주 자치구가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냄

3. 회귀모델 3

- 마지막으로 모델2에 일의 가치부여 정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 3에 따르면, 전체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서 27.9%p나 증가함. 분석모델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남($F=562.06$, $p<.001$)
- 새롭게 추가한 일의 가치부여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기일에 대한 가치부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그 영향력은 매우 높게 나타남($\beta=.639$, $p<.001$)
- 하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서는 변화가 발생했는데, 거주 자치구에서는 동구와 대덕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서구와 유성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음. 또한 대덕구보다 동구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이는 거주 자치구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7]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N=11,057)

| 변수 | 모델1 | | 모델2 | | 모델3 | |
|-----------------------|-----------|----------|-----------|----------|-----------|----------|
| | B | β | B | β | B | β |
| 상수 | 5.655*** | | 5.615*** | | 2.217*** | |
| 성별(남성) | | | | | | |
| 여성 | .050 | .017 | .054 | .018* | .014 | .005 |
| 연령 | .001 | .018 | .001 | .016 | .002 | .020 |
| 대전 거주기간 | -.007 | -.076*** | -.007 | -.076*** | -.006 | -.060*** |
| 교육수준(대졸이상) | | | | | | |
| 중졸이하 | .054 | .014 | .039 | .010 | .095 | .024* |
| 고졸 | .027 | .009 | .024 | .008 | .015 | .005 |
| 전문대졸 | .192 | .050*** | .179 | .046*** | .087 | .023** |
| 혼인상태(유배우자) | | | | | | |
| 미혼 | -.201 | -.063*** | -.211 | -.066*** | -.087 | -.027* |
| 사별 | -.107 | -.020* | -.106 | -.020* | -.055 | -.010 |
| 이혼 | -.173 | -.020* | -.178 | -.021* | -.020 | -.002 |
| 월평균 가구소득 | .045 | .049*** | .039 | .042*** | .037 | .041*** |
| 노동상황(상용직) | | | | | | |
| 임시직 | .005 | .001 | -.013 | -.002 | .053 | .008 |
| 일용직 | -.003 | .000 | -.024 | -.003 | .067 | .008 |
| 자영업자 | -.034 | -.006 | -.032 | -.006 | .025 | .004 |
| 학생 | .193 | .049*** | .185 | .047*** | .100 | .026** |
| 주부 | -.152 | -.039*** | -.159 | -.041*** | .037 | .010 |
| 무직 | -.146 | -.031** | -.145 | -.030** | .056 | .012 |
| 주거점유형태(자가) | | | | | | |
| 전세 | .125 | .034*** | .117 | .032*** | .021 | .006 |
| 월세 | .070 | .015 | .072 | .016 | .032 | .007 |
| 무상 및 기타 | -.178 | -.007 | -.180 | -.007 | .049 | .002 |
| 교육환경 만족도 | -.032 | -.018* | -.029 | -.016 | -.033 | -.018** |
| 주거환경 만족도 | .148 | .071*** | .144 | .070*** | .070 | .034*** |
| 소비생활 만족도 | .083 | .042*** | .076 | .038*** | .008 | .004 |
| 가족관계 만족도 | .378 | .190*** | .368 | .185*** | .120 | .060*** |
| 걱정근심 정도 | -.355 | -.417*** | -.362 | -.425*** | -.149 | -.175*** |
| 일반화된 신뢰도 | -.104 | -.067*** | -.083 | -.054*** | -.034 | -.022*** |
| 거주 자치구(중구) | | | | | | |
| 동구 | | | .123 | .033** | .130 | .034*** |
| 서구 | | | .072 | .021* | .036 | .011 |
| 유성구 | | | .100 | .026** | -.035 | -.009 |
| 대덕구 | | | .335 | .089*** | .068 | .018* |
| 일의 가치부여 정도 | | | | | .616 | .639*** |
| F | 208.80*** | | 184.32*** | | 562.06*** | |
| R ² | .321 | | .326 | | .605 | |
| R ² Change | .320 | | .325 | | .604 | |
| Durbin-Watson | 1.35 | | 1.36 | | 1.66 | |

4장

결론

1절. 요약

2절. 정책과제

4장 결론

제1절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 실태의 장기적 추이 파악과 실제 대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먼저, 자치구간 격차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구부문의 추이(2005-2015년)는 자치구별로 인구성장률, 주민등록 인구수, 주민등록 세대수,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노령화지수, 인구이동, 인구이동(전입), 인구이동(전출), 인구 순이동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함
 - 즉, 대전의 평균 인구성장률은 2010년을 기점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이동 역시 정체 및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유성구에서는 인구증가와 인구순이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형성과 대단위 아파트 분양 등의 개발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대전의 전체 노령화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 중구, 대덕구가 2015년 대전의 노령화지수 평균 81.7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부문에서는 자치구별로 지방세 부담액,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를 비교분석함
 - 모든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유성구가 가장 높았으며, 동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지역내총생산액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중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2015년 대전의 GRDP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유성구, 서구, 대덕구이며 반면에 중구와 동구는 낮은 수준이 지속됨

- 가계의 소비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모든 자치구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 그 중에서 유성구와 대덕구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자치구별로 EQ-5D 지표,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스트레스 인지율을 비교 분석함
 - 건강관련 삶의질(EQ-5D)지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자치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2015년 EQ-5D지표 점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0.972점)이며, 다음으로는 동구와 서구(0.954점), 대덕구(0.946점), 중구(0.942점) 순임
 - 주민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자치구별로 편차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2015년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 병상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성구와 동구가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입지하는 지역은 대덕구, 중구, 동구임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자치구간 격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 평균 29.6%를 상회하는 자치구는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서이며 가장 낮은 구는 동구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구는 유성구였으며, 2013년 대덕구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크게 높은 특징이 있음
-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자치구별로 지가변동률,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을 비교분석함
 - 지가변동률의 자치구간 격차는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 평균 2.7% 보다 가장 높은 구는 유성구로 4.99%임. 다음으로는 서구(2.4%), 중구(2.1%), 동구(2.0%), 대덕구(2.0%)순임
 - 주민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변동추이(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보면, 대덕구가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201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 고 있음. 반면에 중구와 유성구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전의 자치구별 공원면적은 2015년 현재 중구가 가장 넓게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으로 공원 면적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2013년 이후 자치구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자치구별로 취학률, 학업중단률, 사설학원수(천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유아보육시설수를 비교분석함
 - 취학률은 2015년 동구(98.8%)와 대덕구(98.6%), 중구(97.4%)가 평균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유성구와 서구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냄
 - 학업중단율은 2015년 평균 1.4% 보다 대덕구(1.99%)와 유성구(1.92%)가 높게 나타남. 중구(1.38%), 서구(1.08%), 동구(0.87%)는 다소 낮은 수준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학업중단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동구의 학업중단률이 상대적으로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주민천명당 사설학원 수는 2015년 평균 1.4개 보다 서구(1.76개)와 유성구(1.49개)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구(1.36개), 대덕구(1.33개), 동구(0.99개)로 낮은 수준임. 자치구간 격차는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문화기반시설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15년 평균 4개를 상회하는 구는 대덕구(5.59개), 동구(5.43개), 유성구(4.47개)임. 평균이하의 자치구는 중구(2.34개), 서구(2.24개)로 나타남
 - 도서관 연간 이용자수는 2015년 평균 이상인 구가 중구, 유성구, 서구이며, 평균 이하인 곳은 대덕구와 동구임. 하지만 2010년 기준 현재 자치구간 격차는 다소 감소함
 - 유아 보육시설수는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2015년 현재 평균 23.4개로 대덕구(25.15개), 서구(24.87개), 유성구(23.03개), 동구(22.45개), 중구(21.64개)순임
 - 행·재정 부문에서는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일반회계중 복지예산(사회보장)을 비교분석함
 - 재정자립도는 2015년 전체평균 20.7%로 매우 낮은 수준임. 재정자립도는

유성구만이 33.2%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서구 20.3%, 대덕구 18.7%, 중구 17.7%, 동구 13.7%순임

- 2015년 대전의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2015년 평균 33.5%로 2005년 66.6%와 대비하여 더 악화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구와 대덕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은 모든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015년 평균은 54.2%로 동구(60.98%), 서구(56.62%), 중구(55.98%)가 높은 수준이며, 유성구(45.99%), 대덕구(51.52%)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먼저, 거주 자치구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 만족도는 평균점수보다 동구와 유성구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덕구와 중구가 낮은 수준을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교육산업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자치구별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의 비중)
- 주거환경 만족도는 유성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덕구와 중구가 낮은 수준을 보임. 이러한 이유는 공단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여부와 건물,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낙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소비생활 만족도는 평균 2.87점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구(2.77점)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서구의 전월세 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높은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가족관계 만족도는 유성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3.52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혼인 상태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구에는 이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현재하고 있는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는 평균 6.38점으로 전체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임. 자치구별로는 유성구(6.66점)와 대덕구(6.62점)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반면에 중구(6.25점), 서구(6.24점), 동구(6.22점)는 낮은 점수를 보임. 즉,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는 고연령층, 저학력자, 무직일수록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비중 정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됨

-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0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음. 자치구별로는 대덕구가(1.7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동구(1.96점)도 낮게 나타남.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는 고연령층, 저학력자, 무직자,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일수록 사회적 기대와 신뢰가 낮게 나타나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대덕구의 경우에는 동구와는 다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 즉, 설문조사 결과로는 파악되지 않은 특징(예: 고용불안 등)이 대덕구 내에 내재된 것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음
 - 걱정근심의 정도는 대덕구가 3.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구(3.61점)와 서구(3.57점)이 평균 3.55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유성구임
 - 삶의 만족도는 전체평균 6.32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유성구(6.48점)와 대덕구(6.47점)가 높게 나타남. 반면에 서구(6.2점), 중구(6.19점)는 낮은 수준을 보임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함.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대전 거주기간, 교육수준,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노동상황, 교육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걱정근심의 정도, 일반화된 신뢰도, 거주 자치구,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임
-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하고 있는 ‘자기일의 가치부여 정도’ 였으며, 이는 거주 자치구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수준으로 나타남

제2절 정책 과제

- 대전의 자치구간 격차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 자치구의 성장동력과 거주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인구수, 지역내총생산액(GRDP),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EQ-5D, 스트레스 인지율 등에서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즉,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우선 이를 위해서는 GRDP와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중구와 동구의 경제력을 육성하는 경제·산업 정책이 요구됨. 대전의 경제 정책은 주로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모델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 함
 - 따라서 중구와 동구의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마련이 필요함. 여기에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뿐만이 아닌 생태도시, 문화도시 등과 같은 보다 명확한 모델 설정이 요구됨
- 다음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대덕구의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대덕구, 중구, 동구의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재생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설계가 필요함
-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한다면, 대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였음. 즉,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이 요구됨. 이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타인의 노동에 대한 고마움 인지 등 경제구조 개선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27.
- 김경수·김형빈(2006),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pp.129-149.
- 김용국(2014),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2(3), pp.76-89.
- 김현중·이종길·여관현(2015),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결정요인. 서울도시연구”, 16(4), pp.109-127.
- 김형태(2007), <대전광역시 지역간 격차분석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김희성(2017),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문.
- 대전광역시(2014),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2015), <한국지리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문창기(2015), “대전지역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의료, 빈곤, 교육, 노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1-149.
- 문지영·반영운(2015),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도시설계*, 16(6), pp.101-117.
- 민연경·이명석(2013), “시·도별 고령화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정책 대응”, *GRI 연구논총*, 15(1), pp.113-140.
- 박노동(2015), 「대전광역시 자치구 문화향유 차이분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박삼옥·진중현·구양미(2008),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3), pp.337-357.
- 박준식·김영범(2012), “지역격차 수준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전망*, pp.264-293.
- 오영수(2000), “부문별 비교를 통해 본 서울·지방도시간 격차의 본질과 원인”, *지방교육경영*, 5(1), pp.23-45.
- 이재원·이우종(2007),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 특성분석 연구”, *국토계획*, 42(5), pp.81-94.
- 정철영 외(2011), “도·농간 교육격차에 관한 가정 및 학교배경의 효과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1), pp.27-49.
- 최인이(2012), “대전지역의 계층구조 및 불평등”,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 Heynen, Nik, Harold A. Perkins, Parama Roy(2006), "The Political Ecology of Uneven Urban Green Space: The Impact of Political Economy on Race and Ethnicity in Producing Environmental Inequality in Milwaukee," *Urban Affairs Review*, 42(1), pp.325.
- Hirschman, Albert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44,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8).
- Vanhove, Norbert, and Leo Hendrik Klaassen.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 Saxon House, 1980.
- Williamson, Jeffrey G.(196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4) Part 2, pp.1-84.